

이동통신 **이1**  
이2

내고장 의미찾기 강원도편

# 남한강 천리 물길 따라서 남한강 천리 물길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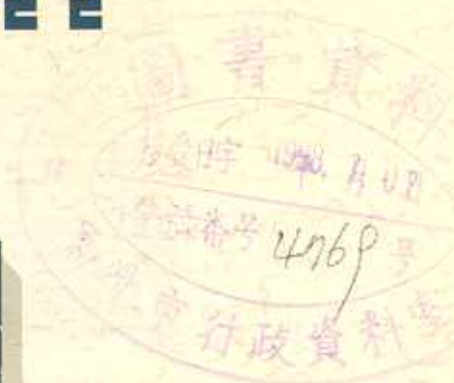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

이동전와 이1  
이2

내고장 의미찾기/강원

# 남하강 처리물길 따라서 M L O L 풀리



이동전와 이1	이2	기증( )
등록해	4969	호
19	1988	7.10

# 발간사



---

중국 문명의 발생이 황하강 유역에서 이루어졌듯이 한강은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문명발전의 젖줄이 되어왔습니다. 한반도의 척추로 알려진 웅장한 태백산맥이 한강의 발원지를 이루고 있으니, 남한강은 한강의 모태가 되는 젖줄인 셈입니다.

이번에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에서는 내고장의미찾기 사업을 전개하여 남한강을 따라 삶을 영위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강원인의 얼이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어떠한 교훈적인 면을 남겨주었는가를 조사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작하였으니, 집필지역의 범위는 한강의 발원을 이루고 있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의 강원도계에 속하는 지역으로 하였고, 책의 내용은 이들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기로 하여, 남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시 창죽동 금대산의 제당궁샘에서 시작되어 정성군·평창군·영월군·횡성군·통합 원주시를 대상으로 답사하였습니다.

이번의 책자는 각 지역에 유존하는 국보·보물·유형문화재  
· 기념물·무형문화재·천연기념물·사적·전설·인물·  
명승등의 지정·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하여 각 지역마다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책자 발간이 목적하는 바는 바로 '강원인의 얼'을 찾고 함양  
하는데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가 일익을 담당하여 「우리것」,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주지하듯이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하는 곳으로  
이번에 수록된 지역과 연계시켜 우리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랑하면 알게되고, 알면 보이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  
가 관심어린 눈으로 우리 고장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여 내고장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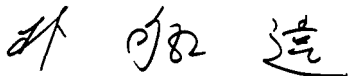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는 이번 책자의 발간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널리 알리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로 강원도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를 사랑하시는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시간의 제약과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자료의  
발굴과 원고의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반강고전연구소  
김호길 소장님과 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사에 협조해주신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6.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  
지사장 박 창 원



## 책을 엮으며



---

회고하면 서기 1977년 3월, 고향인 원주로 돌아와 산과 강으로 들로 골짜기로 동서남북으로 방방곡곡 현지답사를 하였다.

물론 혼자였다. 가족은 아직 철원농장에 있을 때고 부모님은 청주에서 귀향 전이셨기 때문에 하숙생으로 고향에 돌아온 형편이었다.

그 시절은 교사도 여러 학생과 함께 현지답사나 조사활동이 제한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우선 묘갈 등을 탁본 하고, 재학생과 틈나는 대로 원주지역의 금석문의 체계를 세워 유도회(儒道會) 원주지부 장윤(張潤) 지부장님의 도움으로 서기 1981년 11월 2~4일께 원주 카톨릭회관에서 탁본 전시회를 갖고 이때 탁본작품을 사진으로 찍어「雉岳金石文集」제 1집을 내었다.

그리고 십년 넘어 서기 1993년에 「雉岳金石文集」제 2집을 철농(鐵農) 이기우(李基雨) 선생의 표지전각을 그대로 써서 낸 후 금년까지 매년 발간하고 있다.

탁본도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 조선측 접반사 박권(朴權)선생 묘갈, 윤곡 원천석 선생 묘갈, 사한 김창일 선생 묘갈, 이러한 탁본집은 정말 한부분이다.

하물며 남한강 유역의 문화재는 그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하여 정리한 것을 세상에 다 내놓는다는 일은 참으로 개인이나 한 기업에서의 한정적인 인력이나 재력으로 엄두도 못낼 일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자세로 본 반강고전연구소(半江古典研究所)에서는 평소 나름대로 조사하여 축적하여둔 때에 마침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에서 강원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유역의 강원도 쪽의 유물, 유적을 발굴하여 책으로 엮어 보자는 간곡한 뜻이 있었기에 서기 1994년 8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을 답사하고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약속을 하고 부족한 대로 집필한 원고 및 사진을 완성하여 해가 바뀐 6월에 서문을 쓰니 만감이 서리면서 하천연구소 이형석 소장과 여러 연구위원이 현지답사를 통하여 오대산 상원사 계곡의 「우통수」나 태백의 「검용소」보다 유장(流長)이 먼 「제당궁샘」이 한강의 발원지임을 확인한 일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河源唯長」이라고 한다. 한강의 발원지는 「제당궁샘」이다.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의 강원도를 알리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 경의를 보내고 이 사업의 진행에 전력하셨던 전임 이재토 지사장님과 연구소 식구들, 그리고 책자 발간을 맡은 대산기획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강호제현의 바른 가르침을 기다리며 서문에 가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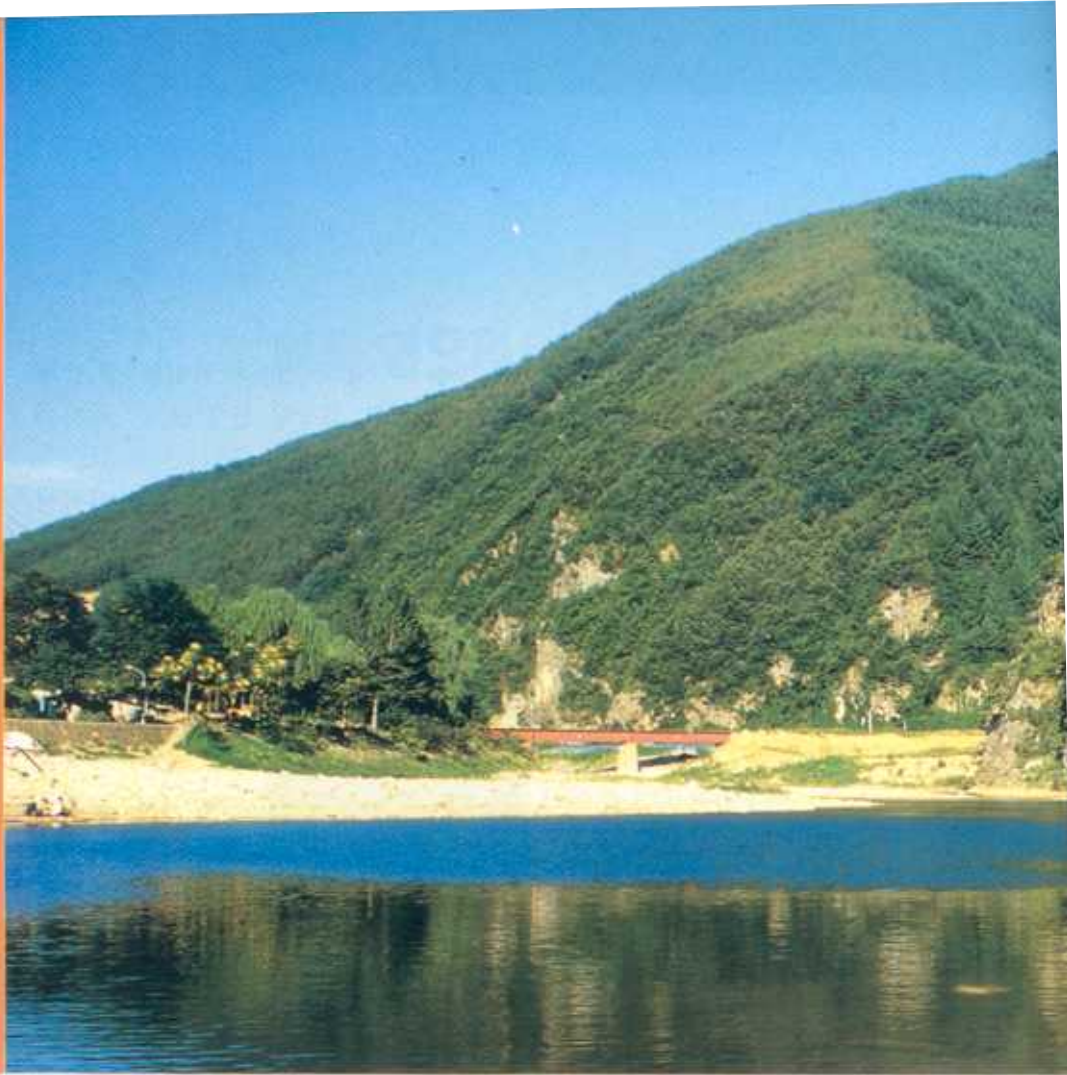
1995. 6

半江古典研究所 所長

김 호 길

김 호 길

# 목차



- 발간사/ 박창원
- 책을 엮으며/김호길

## 제 1 장 원주시

1. 원주시의 건치연혁/ 14
2. 원주시의 자연환경과  
유물·유적/ 16
3. 국보/ 17
4. 보물/ 24
5. 강원도 유형문화재/ 35
6. 문화재 자료/ 54
7. 강원도 기념물/ 64
8. 천연기념물/ 69
9. 사적/ 71
10. 인물/ 73
11. 기타/ 83

## 제 2 장 태백시

1. 태백시의 건치연혁/ 106
2. 태백시의 자연환경/ 107
3. 태백의 산봉/ 108
4. 태백의 영로/ 113
5. 태백의 천택/ 113
6. 동굴/ 117
7. 인물/ 120
8. 현장의 발차취/ 121
9. 전설/ 125
10. 명승/ 128
11. 특산물/ 131
12. 유적·유물/ 134
13. 전국 제1의 땅/ 145

## 제 3 장 정선군

1. 정선군의 건치연혁과  
자연환경/ 152
2. 아리랑의 고장, 정선/ 153
3. 정선, 오염되지 않은 땅/ 161
4. 정선의 자랑/ 166
5. 유서깊은 나무/ 172
6. 정선의 산성/ 174
7. 미래의 땅, 정선/ 175



#### 제 4 장 평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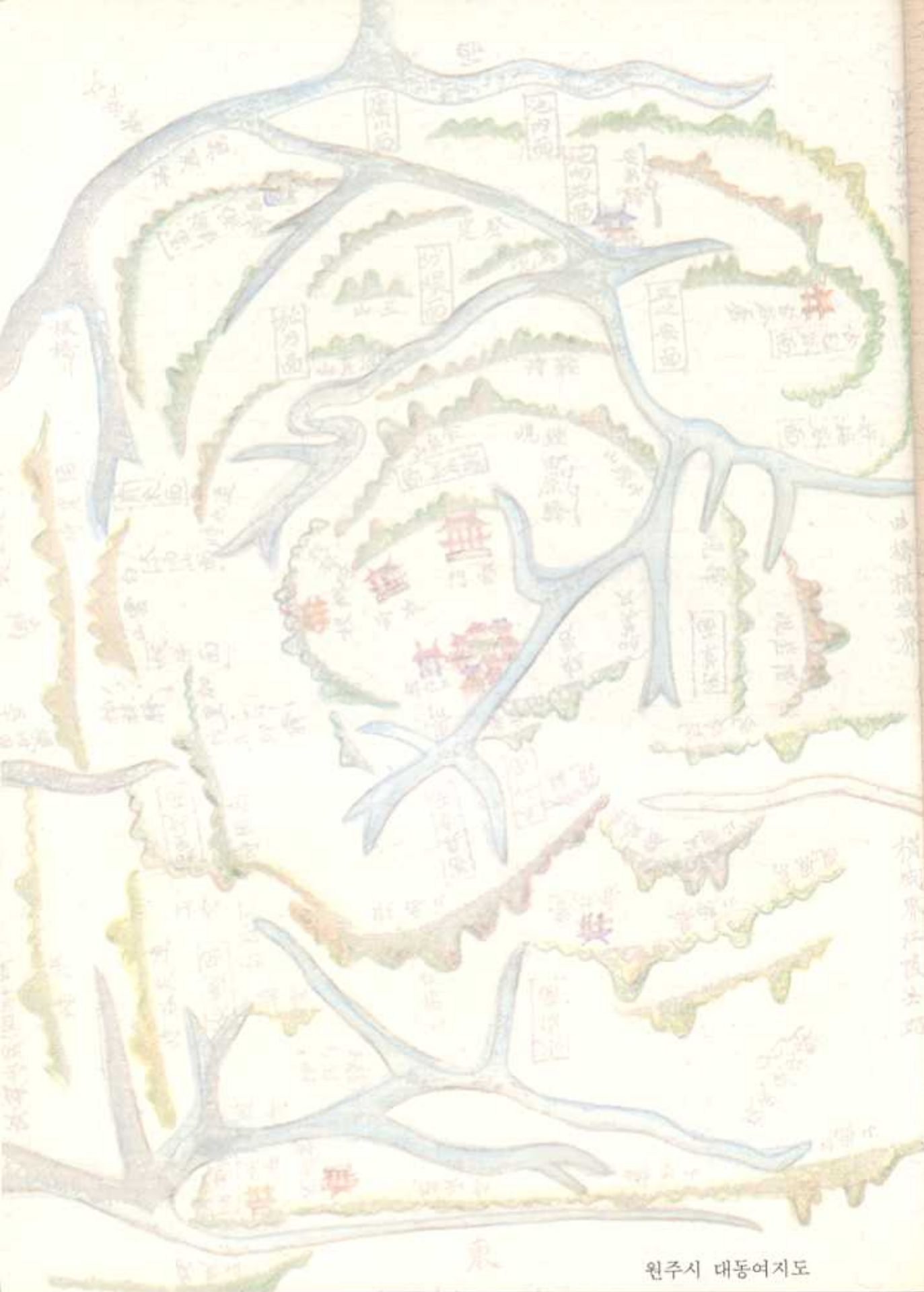
1. 평창군의 건치연혁/ 182
2. 평창군의 자연환경/ 183
3. 국보/ 184
4. 보물/ 188
5. 강원도 유형문화재/ 194
6. 문화재 자료/ 200
7. 강원도 기념물/ 205
8. 천연기념물/ 207
9. 사적/ 208
10. 중요 민속자료/ 210
11. 인물/ 211
12. 기타/ 212

#### 제 5 장 영월군

1. 영월군의 건치연혁/ 234
2. 영월군의 자연환경/ 235
3. 보물/ 236
4. 강원도 유형문화재/ 244
5. 문화재 자료/ 255
6. 강원도 기념물/ 267
7. 천연기념물/ 272
8. 사적/ 275
9. 인물/ 278
10. 기타/ 281

#### 제 6 장 횡성군

1. 횡성군의 건치연혁/ 288
2. 횡성군의 자연환경/ 288
3. 강원도 유형문화재/ 289
4. 문화재 자료/ 298
5. 천연기념물/ 301
6. 무형문화재/ 302
7. 인물/ 304
8. 전설/ 312
9. 기타/ 318



원주시 대동여지도

# 제1장 원주시편

이동전화  
이1  
이2

내고장 의미찾기/강원

남한강 천리물길 따라서  
남한강 천리물길



원주향교 대성전

## 1. 원주시의 건치연혁 • 14

## 2. 원주시의 자연환경과 유물 · 유적 • 16

## 3. 국보 • 17

- ①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 1    ②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 19  
 ③ 전홍법사지 염거화상탑 • 22

## 4. 보물 • 24

- ① 거둔사 원공 국사승묘탑비 • 24    ② 거둔사 원공 국사승묘탑 • 27  
 ③ 영전사 보체존자사리탑 • 28    ④ 홍법사 진공대사 탑부석관 • 30  
 ⑤ 홍법사 천공대사탑비귀부, 이수 • 32    ⑥ 홍법사 삼층석탑 • 33  
 ⑦ 거둔사 삼층석탑 • 34

## 5. 강원도 유형문화재 • 35

- ① 강원감영 [문루 및 선화당] • 35    ② 일산동 석불좌상 • 38  
 ③ 일산동 오층석탑 • 40    ④ 구룡사 대웅전 • 40  
 ⑤ 상원사 삼층석탑 및 광배 • 41    ⑥ 용운사지 석조비로사나불 좌상 • 43  
 ⑦ 용운사지 삼층석탑 • 45    ⑧ 봉산동 당간지주 • 45  
 ⑨ 왕녀복란태실비 • 46    ⑩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 47  
 ⑪ 봉산동 석불좌상 • 48    ⑫ 비두리 귀부 및 이수 • 48  
 ⑬ 김두한 가옥 • 49    ⑭ 박종옥 가옥 • 51    ⑮ 보문사 청석탑 • 52  
 ⑯ 용소막 성당 • 54

## 6. 문화재 자료 • 54

- ① 상원사 대웅전 • 54 ② 임석사 석탑 • 55 ③ 법천사지 당간지주 • 56  
④ 김제남신도바 • 57 ⑤ 주포리 미륵불 및 삼층석탑 • 58  
⑥ 홍법사지 • 59 ⑦ 원주향교 • 61

## 7. 강원도 기념물 • 64

- ① 영원산성 • 64 ② 학곡리 황장금표 • 65 ③ 법천사지 • 66

## 8. 천연기념물 • 69

- ① 성남리 성황림 • 69 ② 반계리 은행나무 • 69 ③ 대안리 느티나무 • 70

## 9. 사적 • 71

- ① 저문사지 • 71

## 10. 인물 • 73

- ① 원충갑 • 73 ② 원천석 • 74 ③ 김제갑 • 77 ④ 민궁호 • 79  
⑤ 이은찬 • 82

## 11. 기타 • 83

- ① 국형사 • 83 ② 영천사 • 86 ③ 강원감영 청운당 • 87  
④ 정충각 • 87 ⑤ 일산동 석탑재 • 88 ⑥ 진천왕사지출토 석탑재 • 89  
⑦ 국형사 진암당부도 • 90 ⑧ 구룡사 부도군 • 91  
⑨ 법천사지 석조물부재 • 92 ⑩ 홍법사지 진공대사탑비 비신 • 93  
⑪ 상원사증수비 • 98 ⑫ 국형사 동악제단 • 99 ⑬ 현충탑 • 101

# 1 원주시의 건치연혁

원주지역에서 구석기시대에 인류가 거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나 이곳과 인접한 횡성군 둔내면에서 1~2만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원주에서도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했을 가능성은 높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역에 속하였다가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여 백제의 영토에 속하였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정(南征)으로 고구려의 영토가 되면서 장수왕 57년(469)에 평원군(平原郡)이라 하였다. 신라 진흥왕 때 신라의 세력이 북상하면서 신라의 영토가 되면서文武왕 18년(678)에 북원소경(北原小京)이 설치되었고 경덕왕 16년(757)에 북원경(北原京)으로 되었다.

고려에 들어와서 태조 23년(940)에 원주로 개칭되었다. 성종 14년(995) 전국을 10도로 구획할 때 원주는 중원도(中原道)에 속하였고, 고종 45년(1258) 이 지역 사람 송필(松弼)의 반역사건으로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되었다가 원종 1년(1260) 지주사로 복구되었다. 1269년에는 임유무(林惟茂)의 외가고을이라 하여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되었고 충렬왕 17년(1291)에 합단적(哈丹賊)의 침입 때 향공진사 원충갑(元冲甲)이 적을 물리친 공으로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개칭되었다. 1308년에 원주목(原州牧)으로 개편되면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충선왕 2년(1310)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성안부(成安府)로 되었다가 공민왕 2년(1353)에 치악산에 왕자의 태(胎)를 봉안하고 원주목으로 복구되었다.

조선에 들어와 태조 4년(1395) 지방행정구역

을 정비할 때 원주목은 강원도에 귀속되었고 강원도 관찰부가 신설되면서 강원감영의 소재지로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1부(府)·3군(郡)·3현(縣)을 관할하였고 속현으로 주천현(酒泉縣)이 있었다. 숙종 9년(1683)에 이 고장의 여인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으로 인하여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92년 다시 원주목으로 복구되었다. 영조 4년(1728) 정무중(鄭茂重)의 모반사건으로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1737년에 원주목으로 복구되었다.

1895년 23부제를 실시할 때 충주부 원주군으로 개편되었고 1896년 전국을 13도제로 개편할 때 강원도 원주군이 되면서 강원도 도청이 춘천으로 이전하였다. 1910년 본부면이 원주면으로 개칭되었고 1913년에 행정구역 변동에 따라 강천면이 경기도 여주군에 이속되었고 서원면이 횡성군에, 주천면과 수주면이 영월군에 이속되면서 10개면으로 개편되었다. 1937년 원주면이 원주읍으로 승격되었다. 1955년 9월 1일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원성군(原城郡)으로 되었다. 1973년 7월 1일자로 호저면 가현리, 홍업면 무실리, 판부면 관설리·반곡리가 원주시로 이관되고 지정면 무장리가 호저면으로 편입되었다.

1983년 2월 15일 소초면 장양리의 일부가 원주시로 이관되고 횡성군 서원면 산현리·매호리·압곡리의 일부가 호저면에 편입되고, 원주시 관설동 일부가 판부면에 편입되어 9면 4출장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원성이라는 명칭은 원주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원래 원주목이었다가 조선 영조 때 원성현으로 강등시켰다는 데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원성'이라는 한글발음도 좋지 않다 하여 1989년 1월 군명칭을 원주군으로 변경하였고, 1995년 1월 1일부로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 원주시로 변경되었다.



## 2 원주시의 자연환경과 유물·유적

원주시가 통합되기 이전의 원주시는 시의 남동 경계에 차령산맥이 지나면서 향로봉이 솟아 있고 서쪽으로는 봉화산과 포북산, 남쪽에는 백운산이 있다. 원주천이 영랑천·단계천·홍양천 등의 지류가 합쳐져 시내를 흐르며 넓은 원주 분지를 발달시켰다.

분지인 관계로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기후의 특성을 나타내며 연평균기온 10.8℃, 1월 평균기온 -6.4℃, 8월 평균기온 25.9℃이며 연 강수량은 1,170mm이다.

현재까지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불교문화재로는 국형사·보문사·영천사 등이 남아 있다. 봉산동에 당간지주·석조보살입상·석불입상·천왕사지보살입상 등이 있다. 태장동에 영전사지에 있던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일산동 강원감영 자리에 오층석탑과 석불좌상이 남아 있다. 행구동의 보문사에는 청석탑이, 국형사에는 진암당부도가 남아 있다.

고건축물로는 강원감영의 문루와 선화당, 정충각·청운당·원주향교 등이 있으며, 분묘와 비석은 개운동의 선정비군과 김제감충렬비·이은찬추모비·왕녀복란태실비·원천석묘갈·민궁호비 등이 유존하고 있다.

본래 원주군의 지역은 차령산맥이 남동부를 지나며 비로봉·삼봉·남대봉 등의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루고, 북서부는 비교적 완경사로 덕고산·수래봉·당산·관모산 등이 솟아 있다. 원

주천이 그 지류인 홍양천을 합치면서 북서류하여 섬강에 유입하며, 섬강은 다시 사제천을 합치고 남서류하여 부론면 홍호리 부근에서 남한강에 유입한다. 이들 하천 유역에는 원주분지와 기름진 충적평야인 문막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의 특색을 나타내며 여름에는 펜현상으로 한발이 잦다. 연평균기온 10.8℃, 기온의 연교차가 32℃에 달하며, 연강수량은 1,170mm이다.

원주군 지역이었던 곳에 남아 있는 유물·유적을 보면 구석기시대의 유물·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문막면 궁촌리와 부론면 손곡리에서 간돌검·간돌화살촉·간돌칼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신석기·청동기시대에는 이곳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론면 법천리의 삼국시대고분에서는 쇠칼·청동초두·굽다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성으로는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판부면 금대리의 영원산성과 해미산성, 문막면에 후삼국시대의 견훤산성지 등이 있다.

불교문화재로는 부론면 정산리의 거둔사지에 거둔사 원국사승묘탑비, 거둔사지 삼층석탑 등이 있으며 거둔사 원공국사승묘탑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옮겨져 있다. 부론면 법천리의 법천사지에는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법천사 당간지주, 석조물 등이 있고,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은 국립 중앙박물관 경내에 옮겨졌다. 지정면 안창리의 홍법사지에는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 홍법사지 삼층석탑이 있고 홍법사 진공대사탑부석관과 비신은 국립박물관 경내 및 수장고에 옮겨져 있다. 이밖에 신림면 성남리의 상원사 석탑 및 광배·상원사 대웅전, 소초면 학곡리의 구룡사 대웅전·보광루·부도, 소초면 홍양리의 입석사 석탑·입석사 마애아미타여래좌상·부흥사지석탑, 문막면 동화리에 동화사지, 문막면 궁촌리의 염불암지, 문막면 비두리의 비두리귀부

및 이수, 귀래면 주포리의 주포리 미륵불 및 삼층석탑, 홍업면 대안리의 약사암지, 홍업면 매지리의 석조보살입상 등이 있다. 소초면 수암리에는 조선시대의 도요지가 있으며, 분묘로는 지정면 간현리에 조엄의 묘, 지정면 안창리 능골에 김제남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문막면 반계리의 충효사와 문막면 건동리의 김두한가옥, 홍업면 사제리의 박종옥가옥, 신림면 용암리의 용소막성당 등의 건축물이 있다. 부론면 홍호리의 홍원창지, 부론면 손곡리의 임경업출생지, 부론면 법천리의 한백겸출생지가 있고, 1217년 거란의 침입 때 관군을 이끌던 김취려가 적을 크게 이긴 법천리의 거란족격퇴지, 3.1 만세운동 때 소초면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던 소초면 평장리 부채고개 등의 유적이 있다. 천연기념물로는 고산식물에서 야산식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초식물이 있는 신림면 성남리의 성남리의 성황림, 문막면 반계리의 수령 800년 이상된 반계리 은행나무, 홍업면 대안리의 느티나무, 소초면 학곡리의 은행나무 등이 있다.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쌍용문

1.44m이며 재질은 화강암과 점판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한강 상류에 자리잡은 법천 부락에서는 1973년에 삼국시대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고분에서 토기·철제마구·양모양의 청자가 출토되어 이 지역이 꽤 오래된 주거지임을 말해 준다.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는 법천사지 비전(碑殿) 앞에 유존하고 있다. 이 비에 대하여 『大東金石書』에는 “法泉碑在原州鳴鳳山法泉碑智光禪師塔碑侍中安民厚書陰記失名鄭惟產文遼道光大安元年乙丑立宋紳宗元豐八年同時麗順宗三年也”라고 싣고 있으며, 또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6 원주목 불우조(佛宇條)에는 “法泉寺在鳴鳳山有高麗僧智光塔碑”라고 있어 1530년까지는 폐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광국사현묘탑비는 고려시대의 석비로서의

## 3 국보

### 1)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74-2에 위치한 지광국사현묘탑비는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59호로 지정되었다. 총고 5.54m, 비신고 3.07m, 폭

특징적인 양식을 보이는 걸작품으로 조각 또한 정교하다. 지광국사현묘탑은 원래 탑비의 우측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이전되어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있다. 전해지는 말로는 이 탑비도 탑이 이전될때 함께 옮기려고 했으나 매우 정묘한 조각인데다 치밀함이 대단한 걸작품이어서 파손의 우려를 염려하여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탑비는 오랜동안 풍마우세(風磨雨洗)와 뇌전 등의 삼재를 입어 파손된 곳이 많고 문자와 조각에 손상된 부분이 많다.

귀부(龜趺)는 넓은 지대석 위에 놓였고 밑부분은 구름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용두화(龍頭化)된 귀부의 목은 길게 빼어 정면을 향하고 목에는 어린(魚鱗)이 양각되었으며 머리는 입을 벌린 괴수의 형태로 치아가 벌어진 입술 사이로 보인다. 등에는 방형의 구획안에 따로 귀갑문(龜甲紋)을 새겼으며 그 내부에 '왕'자를 양각하였고, 등의 중앙에 간결한 복연(伏蓮)으로 비좌(碑座)를 마련하여 비신을 세웠다.

비신(碑身)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사선의 균열이 있고 하부에 다소의 손상을 입고 있어 보호의 절실함을 기다리고 있다. 비신의 재료는 검은 청색으로 윗쪽에는 수미산(須彌山) 부상수(扶桑樹) 등 불교십장생을 정밀하게 조각하였고, 바깥 둘레에 보상당초문(寶相唐草紋)을 조각하여 주회하였고 양 측면에는 여의주를 농주(弄珠)하고 있는 쌍룡문(雙龍紋)을 양각으로 새겨 주목된다.

이수(螭首)는 하늘로 활짝 벌려진 형태로서 일반적인 양식을 벗어났으며 네 귀퉁이의 전각이 뚜렷하고 귀꽃을 달고 있는데 전면에 문양이 새겨졌으며 그 중심에 상륜부를 두어 연화가 조각된 3층의 보주를 엮었다.

비문내용은 지광국사가 수도한 내력과 불교도덕의 진리를 통달하였다는 국사의 행장이 기술되었고, 비 뒷면에는 법천사의 내력과 탑비건립 당

시에 종사한 승려의 인원수 및 건립내역을 적고 있다.



지광국사 현묘탑 상단부

지광국사는 고려 성종 3년(984)에 태어났다. 속성은 원씨이고 이름은 해린(海麟)이다. 자는 거룡, 유명은 수몽(水夢)으로 길(吉)의 손자이며 휴(休)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이씨이다. 일찍이 어린나이에 이수점에게 수업하기를 청하였으나 이수점은 이를 이상히 여겼는데, 하루는 관상을 잘 보는 노구가 해린을 보고는 승이 되면 반드시 세상에 귀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뒤에 개경에 있는 해안사(海安寺) 준광(俊光)의 제자가 되어 삭발하고 출가수도 하였다. 목종 2년(999)에 16세의 나이로 용흥사(龍興寺) 관단(官壇)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18세인 목종 4년(1001)에는 승교사(崇敎寺)의 개창과 함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어 자운사(慈雲寺)의 법회에 참석한 뒤 관웅(寬雄)이 있던 법천사로 옮겨 수업하였다. 21세가 되던 목종 7년(1004)에 왕륜사(王輪寺)에서 실시된 대선에 급제하여 대덕이 되었다. 현종 2년(1011)에 본사인 법천사로 돌아가던 중 진조(眞肇)를 만나 역산법(曆算法)을 배웠고 이 해

에 대사가 되었다. 현종 12년(1021)에 평양 중흥사(重興寺)에서 하강(夏講)의 설사(說師)가 되어 강의하였고 후에 왕이 중대사를 더하였고 수다사(水多寺)의 주지가 되었다. 또 칙령을 받아 현종 21년(1030)에 다시 개경 해안사(海安寺)의 주지가 되었다. 덕종 때에는 삼중대사가 되어 법의·법호를 받고 특별히 탐현(探玄)·도심(道深)의 법칭을 더하였고 곧 수좌(首座)가 되었다. 정종 11년(1045)에는 승통(僧統)이 되었다. 문종 1년(1046)에 궁중에 초청되어 유심묘의(唯心妙義)를 강의하고 마납승가리(磨納僧伽梨)를 받았으며, 이듬해 이자연의 5자인 소현(韶顯)을 출가시켰다. 문종 8년(1054)에 칙령을 받아 현화사(玄化寺) 주지가 되어 절을 크게 중수하고 법상종 교단을 이끌었다. 문종 10년(1056)에 법복·향로를 받았고, 문종 11년(1057)에는 내제석원(內帝釋院)에 이르러 왕사에 제수되고 동왕 12년(1058)에는 봉은사(奉恩寺)에 친행하여 국사에 올라 극진한 예우를 받았으며 영통사주 승통난원(靈通寺主僧統爛員)에 봉해졌다. 동왕 13년(1059)에는 내전에서 개최된 백고좌(百高座)의 제일 설주(說主)가 되었다. 문종 21년(1067)에 법천사로 귀안할 것을 청하여 허락되어 이를 행하였다. 이해 9월 22일 현화사에 행차하여 함원승재(閤院僧齋)를 설치하였다. 본사인 법천사로 돌아와 머무르다가 이해 10월 23일에 입적하였다. 시호는 지광(智光), 탑호는 현묘(玄妙)이다.

지광국사현묘탑비는 고려 초에 문장이 뛰어나고 시를 잘 짓기로 유명한 이부상서(吏部尚書)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낸 정유산(鄭惟產)이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 글씨를 잘 쓰던 안민후(安民厚)가 비문과 음기(陰記)를 서명전(書并篆)하였으며 이영보(李英輔)와 장지춘(張子春)이 각자하였다. 표면에는 비명과 이면에는 음기가 있다. 비음에는 국사의 제

자 이름 및 인원수를 새기고 있는데, 그 숫자는 실로 1천 3백 7십여명에 달하였다. 자경(字經)은 표면이 2.1cm, 이면이 2.7cm이다. 글씨는 구양순체(歐陽詢體)를 기본으로 부드러움과 단아함을 추구하였다. 입비 연대는 비문의 말미에 '太安元年歲在乙丑仲秋月日樹'라고 있어 고려 선종 2년(1085)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석비의 비신이 금이 가 있어서 앞으로의 보존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지광국사현묘탑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있다. 국보 101호로 총고 6.1m의 화강암 재질의 석탑이다.

이 탑은 원래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법천사지에 있었는데 한일합방 후에 왜인이 훔쳐 갔던 것을 8.15후에 반환받아 일본에서 되돌아 왔으나 원위치로 오지 못하고 현재의 위치인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6.25 당시에 폭격으로 인하여 탑신부 이상의 각부재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1957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여 다시 복원되어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탑의 파손된 석재는 대소할 것 없이 약 1만2천여 조각이 되었는데 탑의 부재중 제거되는 파편 석재와 지방에서 채취해온 석재를 함께 분쇄하여 돌가루를 만들고 이를 땀질하고 고착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이 탑은 그러나 그 예를 달리 찾을 수 없는 설계와 조각 수법으로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걸작품이다.

탑의 구성은 부도탑 형식대로 기단부 위에 탑신부를 형성하고 그 위에 옥개석을 덮었으며 정상에 상륜부 장식하고 있다. 기단부는 여러 개의 장대석을 짜 맞추어 넓게 자리한 지대석 위에 구성하였는데, 지대석 상면에는 낮은 피임 1단을

마련하고 그 위의 부재(部材)를 받았다. 각 층의 부재에는 조각이 가득히 장식 되었고 상부로 가면서의 구성은 층층의 높이와 넓이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지대석의 네 귀퉁이에는 각각 길게 늘어져 지면에 닿아 있는 용의 발톱 모양의 조각이 마치 흙을 팍 깨물고 있는 듯한 강력한 밀착감을 느끼게 한다.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그리고 최상층의 갑석에는 화려한 장막이 4면

에 드리워져 있어 장엄함을 더하고 있다. 또한 각층의 각면에는 안상(眼象)과 운문(雲紋)·연화문(蓮華紋)·초화문(草花紋)·보탑(寶塔)·신선(神仙) 등이 가득히 조각되어 있어 각종 조각장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4면의 장식내용은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면은 전혀 다른 것이 있으니 각면을 하층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탑의 기단부를 보면 하층기단은 3단의 괴임단을 마련하고 위에 면석을 구성하고 갑석(甲石)을 놓았으며 그 위에 상층 기단면석과 갑석을 놓았다. 이 부도탑의 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남면은 지대석 바로 위의 괴임석 측면이 좁고 넓직한 7주의 탱주(撐柱)를 일정한 간격으로 모각하여 8등분하고 내면에 귀꽃문이 있는 소형안상을 1구씩 장식하였고 상면은 낮은 1단의 괴임을 마련하여 그 위의 괴임 1단석을 받고 있다. 두번째의 괴임단 측면에는 삼산형(三山形)과 같은 소형 귀꽃문을 2열로 엇갈리게 장식하고 상면에는 낮은 괴임으로서 그 윗단의 괴임단을 받고 있다. 세번째의 괴임단은 높직한데 측면은 양우주가 있고 2주의 넓직한 탱주로 3분한 간지(間地)에 만조한 장방형의 화문대(花紋帶)를 2구씩 장식하였으며 상면에는 괴임을 마련하여 하층기단면석을 받고 있다.

하층기단면석은 양우주와 1탱주가 각출되어 이들에게 좌우에 보조주(補助柱)가 이중으로 모각되어 있어 고려시대 석탑의 우주와 탱주를 연상케 한다. 1탱주로 양분한 각면에는 중심에 이중 원권(二重圓圈) 안에 보주를 두고 화염(火焰)과 화지(火枝)와도 같은 평행중선문(平行縱線紋)과 섬세한 연주문(蓮珠紋)으로 장식하였으며, 상면에는 3중의 복연문(伏蓮紋)을 조식한 위에 상단 기단면석을 받고 있다. 이 하층기단갑석 상면의 네 귀퉁이에는 큼직한 원공이 좌우에 마련되어 있어 이 네 귀퉁이에 사자가 1구씩 있

었으나 도난당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면석에는 보탑(寶塔)과 보련(寶輦)을 1좌씩 조각하였고 각기 주위에는 중상(衆像)이 이를 받들고 있다. 또 상기갑석(上基甲石)에는 측면에 화려한 장막을 장식하였는데 3곳의 매듭과 주름이 실제 비단 장막을 쳐놓은 듯 하다. 측면 상단에는 양연문을 3중으로 장식하였고 네 귀퉁이에 약간의 반전을 두었으며 상면에는 괴임대를 마련하여 탑신부를 받고 있다.

탑신부를 살펴보면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기 1석으로 조성되었는데 탑신석의 남면은 가운데 문비형(門扉形)이 있고 그 좌우와 상면간지에 창구형(窓口形) 연화문·화문·화지 등이 가득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4면의 조식이 같은 것으로 각면에 천개형(天蓋形)으로 장막이 늘어지고 사형의 전각부에도 불(佛)·보살 등이 조각되었으며 네 귀퉁이의 전각에는 크게 반전을 두고 봉황을 1좌씩 배치하였다. 층개상면은 석탑형으로 기왓골이 없는 낙수면이며 네 귀퉁이의 우동(隅棟)마루가 두툼하게 이루어졌다.

상륜부는 4면이 조식문양으로서 평형한 양화석(仰花石) 위에 복발·보륜·보개·보주 등의 각 부재가 층층히 올려져 있으며 그 전면에도 연화문·화문·안상·연주문 등의 문양이 가득히 장식되어 있다.

남면의 반대쪽 북면은 기단부에 있어서 하층기단 갑석까지는 시문의 내용이 같으나 상단기단면석에 있어서의 조각 내용은 남면과 전혀 다르다. 남면에서는 보탑과 보련이 있는 반면에 북면에는 운문(雲紋)과 산경, 수목문양의 조식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탑신부의 문비형과 주변의 각종 문양은 남면과 같으며 문비에 모각된 큼직한 자물통과 수십개의 둥근 철정(鐵釘) 등은 인상적이다.

탑의 측면에 해당되는 동면은 기단부에 있어서 하층기단 갑석까지는 모두 시문(施紋)이 남·북

면과 같으나 상층기단부에 있어서 면석의 조식이 전혀 같지 않다. 즉 길이로 장방형의 액(額)을 2구 만들고 그 안에 가득히 조각한 것은 같으나 1구에는 큼직한 운문 속에 목을 길게 빼고 동체를 일으켜 세운 용을 조각하였고 다른 한 곳에도 유려한 비운(飛雲) 위의 신선들이 서 있는 조각을 하였다.

탑신석(塔身石)에 있어서도 높직한 1매석의 괴임대에 12구의 소형안상(小形眼象)과 복련(伏蓮)을 가득 조각한 것은 같으나 탑신면에 조각한 것은 다르다. 정면인 남면에 문비형(門扉形)과 자물통이 있고 그 측면은 두개의 영창(櫺窓)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영창은 이색적인 페르시아풍으로 상연(上緣)의 굴곡과 길게 드리운 장막의 연주문(蓮珠紋) 등이 다른 어느 부도탑의 조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문양이다.

동면의 반대쪽 서면은 기단부에 있어서 하단기단 갑석까지는 시문(施紋)내용이 같으며 상층기단에 있어서도 운룡(雲龍)이나 운상계(雲上界)의 신선 등이 같으나 동면에서 주자(主者)의 종자(從者)가 3인인 반면에 서면에는 종자가 1인 밖에 보이지 않고 수인(手印)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탑신부에 있어서는 정면에 문비(門扉)와 자물통을 잠그고 그 좌우면이기 때문에 동면과 같이 영창을 두곳에 설치하고 있다. 역시 창 자체의 특이한 점은 물론이고 하단부의 벽면 처리와 주벽의 장식문양등이 실질적이고 다채롭다.

지광국사현묘탑은 각면 조각의 내용이나 전면에 가득 조각한 각양각색의 특이한 건조의장(建造意匠)은 어느 석조부도(石造浮屠)에도 비할 수 없을만큼 우수하고 기발하여 진실로 한국의 부도탑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탑신석 상단부의 소로받침이나 좌우 두공(料拱) 등은 목조건축을 번안한 것으로 건축의 의장을

엿볼 수 있으며 옥개석하면의 2중 양련받침이나 귀퉁이의 장식문양은 표면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조각한 것으로 그 설계에 또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도탑의 건조연대는 지광국사현묘탑비문에 고려 선종 2년(1085)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연대를 지광국사현묘탑의 건조연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전흥법사지 염거화상탑

염거화상탑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있으며 신라 문성왕 6년(844)에 건립되었다. 총고는 1.7m로 화강암의 석질이며 국보 104호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석조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로서 절대연대(844)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석조부도탑 양식의 계통을 세움에 있어 그 기점을 이루고 있다. 이후의 부도탑 대부분이 염거화상탑의 형식을 따라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삼아 건조되었으며, 단지 조형의 세부나 조각수법에 있어서 다소의 시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팔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팔각원당형 부도를 일반형이라 일컫고 있으며, 그의 정립은 역시 현존하는 여러 유품으로 미루어 미루어 9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염거화상은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제2대 조사(祖師)로 도의국사(道義國師)의 법을 이어 받았다. 도의국사가 진전사(陳田寺)에서 입적할 때 염거화상에 게 전심하여 선을 널리 펼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는 주로 설악산 역성사(億聖寺)에 머물면서 선법의 포교에 힘썼고 체징(體澄)에게 법맥을 전하여 가지산문을 대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입적하였다.

이 부도의 구조는 전부재의 평면이 8각으로서 기단부 위에 탑신을 놓고 그 위에 옥개석을 얹었

으며 정상에 상륜부를 형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상륜은 하나도 없다. 현재 하나의 판석으로 조성된 방형의 지대석 위에 건립되어 있으나 이 지대석이 본래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전흥법사지 염거화상탑

기단부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는데 하대석 각 측면에는 사자를 양각하고 상면에 3단의 각형괴임을 각출하여 중대를 받았으며, 중대석 각면에는 안상을 새기고 그 안에 향로 등의 제문양을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하면에 3단의 각형받침이 마련되어 상대상면의 괴임대와 대칭 되었으며 측면에는 단엽의 양연(仰蓮)을 3중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상면에는 주연을 따라 원형으로 낮은 각형괴임을 1단 돌리고 그 중앙에 8각으로 원호와 각형의 2단괴임을 조출하여 8각의 탑신괴임을 받고 있다. 탑신 괴임석은 별석으로 조성하여 끼운 것으로 각 측면에 통식의 안상을 1구씩 음각하고 그 내면에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천부상 1구씩을 조각하였다. 측면 상단은 갑석형을

이루었으나 부연(副椽)등의 받침단은 없으며, 상면에는 8각으로 원호와 각형의 2단괴임을 마련하여 8각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은 부도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으로 목조건축의 팔각당을 석조화하여 그 윗부분에서 목조가구의 형식을 많이 볼 수 있다. 각 면에는 양 우주를 세우고 전후면에는 문비형(門扉形)을 모각하여 내면에 자물쇠와 문고리 두개를 양각하였으며 상부에는 양쪽에 굴곡이 있는 호형내(弧形內)를 화문으로 장식하였다. 문비(門扉) 양쪽에는 각각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는데 각 상의 표현은 원형 두광과 무기·갑주(甲冑)·머리모양 등이 매우 사실적이다. 사천왕상이 조각되지 않은 면에는 양 우주 아래로 하방을 돌리고 상부에 인방과 평창방을 건너 지르고 있어 목조건물의 벽면을 표현하고 있다. 옥개석은 탑신 위에 놓이는 하면 부분에 얇은 1단의 각형 받침을 조출하고 호형(弧形)을 이룬 처마 부분에는 비천상(飛天像)을 1면씩 건너 4면에만 조각하였고, 추녀에 이르는 하면에는 각형의 연목을 모각 하였다.

옥개상면은 8면의 합각에 굽은 우동형(隅棟形)을 표시하고 낙수면에는 기왓골을 조각하였으며, 그 끝은 막새기와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추녀는 거의 수평으로 우각에 이르러 약간의 곡선을 보이며 각 전각에는 별다른 조식이 없다. 이와같이 옥개석은 연목과 기왓골, 암막새 기와형, 우동형의 모각과 잡상을 배치하여 목조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다.

옥개석 정면에는 8각으로 높다란 1단의 각형 괴임을 마련하여 상륜부를 받게 되어 있으나 현재 상륜부재는 하나도 놓여 있지 않다. 이 부도를 현 위치로 옮기기 이전에 촬영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권2, p460)의 사진에 의하면 옥개석 정상에는 복발(覆鉢) 1석과 보륜(寶輪) 2석, 3석의 상륜부재가 남아 있다. 복발은 거의 구형이며 하단에 단엽의 앙연(仰蓮)이 조

식되고 중간에는 원좌화문(圓座花紋)과 2조의 형태를 돌려 표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보륜 2석은 같은 형태로서 8각 모서리에 귀꽃을 조각하였다.

염거화상탑은 1914년경에 서울 탑골공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현재의 위치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탑골공원으로 옮기기 전의 위치는 불분명하여 아직도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조선미술사』와 『조선금석고』에서는 원위치를 흥법사지로 기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최근에 이 염거화상탑의 원 위치를 흥법사라고 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일본인들의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어 앞에 ‘전’자를 붙이게 되었다. 이로써 본다면 앞으로 흥법사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발굴이 요망된다.

이 부도가 서울로 옮겨질 때 금동제탑지(金銅製塔誌)가 발견되어 건립연대와 관계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전문은 「회창사년세차갑자계추지월양순구일천화염거화상탑거석가모니불입열반일천팔백사년의당차국경웅대왕지시(會昌四年歲次甲子季秋之月兩旬九日遷化廉居和尚塔去釋迦牟尼佛入涅槃一千八百四年矣當此國慶膺大王之時)」인데, 회창 4년 갑자년은 신라 문성왕 6년(844)에 해당되며 명문 가운데 ‘염거화상탑’이라고 지칭한 것과 ‘탑’의 용어가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 금동제탑지는 속인의 묘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서체는 해서로 쌍구문자(雙鉤文字)로 각하였다.

## 1)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거둔사 원공국사승묘탑비

원공국사승묘탑비는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거둔사지에 있는 탑비로서 1963년 1월 21일 보물 78호로 지정되었으며, 총고 5m의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된 탑비이다.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 있는 정산국민학교를 지나면 왼쪽으로 길이 50m, 높이 3.5m의 석축(石築)이 보이는데 이곳이 거둔사지이고 사지에서 동쪽으로 80m 떨어진 곳에 보물 제 79호로 지정된 원공국사승묘탑비가 서 있다.

이 탑비에 대하여 『大東金石名攷』에는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銘崔冲撰金巨雄書顯宗辛酉原州玄溪山」이라 하였고, 「新增東國輿地勝覽」卷 46 原州牧 佛宇條에는 「居頓寺在玄溪山有高麗崔冲所撰僧勝妙碑」라 하여, 오래 전부터 거둔사의 원공국사탑비가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거둔사는 사지에 전하고 있는 유적·유물로서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지의 중앙에는 이중기단상에 탑신을 받치고 있는 신라 일반형의 삼층석탑이 남아 있다.

승묘탑은 뒤쪽 언덕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옮겨져 한때는 일본인의 집에 있다가 광복 후에는 다시 경복궁으로 이전되었다. 고려시대 부도의 정형을 보이고 있는 승묘탑은 건립연대가 탑비가 세워진 현종 16년(1025)에 해당한다.

탑비란 유명한 승려의 사리탑(舍利塔) 옆에 그 고승의 행장을 기록한 비석으로서 신라 고려시대에 왕실에서 불교를 보호하고 민간에서 신앙이 왕성할 때에 세워졌으며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비신 외에 이것을 받치는 비좌(碑座)를 귀부로써 하였고 비신을 덮는 개석을 이수(螭首)로 하는 양식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탑비의 일종인 원공국사승묘탑비도 귀부, 비신, 이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탑비의 비문은 서문과 명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문은 원공국사의 생애를 기록한 행장이고 명문은 그의 공적을 찬양한 글이다. 비문을 통해 국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공국사의 이름은 지종(智宗), 자는 신칙(神則)이며 속성(俗姓)은 이(李)씨로 전주 사람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행순(行順)이고 어머니는 김씨이다. 어머니 김씨가 하루는 태몽을 꾸고 임신을 하니 오직 정성스럽게 불공을 드리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채소와 비린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태교를 닦았다. 이렇게 하여 아들을 낳으니 드러난 자태가 기의하고 타고난 품성이 영특기묘하였다. 나이 겨우 8세에 죽마(竹馬)와 같은 장난감을 버리고 불법의 탐구를 위하여 사라사(舍那寺)에 거처하고 있던 인도 승 홍범삼장(弘梵三藏)의 문하에 들어가 가르침을 빌어 낙발득도(落髮得道)하였다. 홍범삼장이 인도로 돌아가자 거처를 광화사(廣化寺)로 옮겨 경철화상(景哲和尚)에게서 수업을 계속하였으니 사람들이 일컫기를 이미 숙성하였다고 하였다.

개운(開運) 3년(946)에 영통사(靈通寺)에서 관단(官壇)을 갖추어 유리계(琉璃戒)를 행하였고 삼업은 이미 맑아 육진(六塵)에 물들기가 어려웠다. 광종이 왕위에 올라 법문을 숭상하여 승과를 설치하자 원공국사는 이에 합격하였다. 일찍이 원종대사가 “산에 오르지 않고 어찌 노(魯) 나라를 작다고 하며, 바다를 보지 않고 어찌 하천을 좁다고 하느냐. 어느 일이든 이와 같으니 너는 마땅히 가보아라”고 하니 깨달은 바가 있어 광종 6년(956)에 오월국(吳越國)으로 유학을 떠났다. 오월국에 도착한 원공국사는 먼저 영명사(永明寺)에 있던 연수선사(延壽禪師)를 배알하고 열심히 불법을 닦아 심인(心印)을 받았고 준풍(峻豐) 2년(961)에는 국청사(國淸寺)에 이르러 정광대사에게 막배(膜拜)하니 대사는 바로 허락하여 대정혜론(大定慧論)과 천태교(天台敎)를 배우게 되었다. 개보(開寶) 원년(968)에 승통(僧統) 찬녕(贊寧)과 천태현재(天台縣宰) 임식(任埴) 등이 원공국사의 혜인(慧刃)과 현기(玄機)가 날카롭고 높음을 알고 이구동성으로 전교원에서 대정혜론과 법화경을 강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이에 강의를 행하였다.

원공국사가 광종 21년(970)에 귀국하자 광종은 그를 우대하면서 금광선원(金光禪院)에서 거처하기를 요청하였다. 광종 말년에는 임금이 중대사(重大師)를 삼고 마납(磨納)과 가사(袈裟)

를 베푸니 대중들이 더욱 우러러 받들었다.

경종(景宗)은 원공국사를 삼중대사(三重大師)로 제수하고 수정염주를 하사하였다. 성종조(成宗朝)에는 적석사(積石寺)의 주지를 하면서 호를 혜월(慧月)이라 하였다. 목종(穆宗)은 선왕의 뜻을 계승하여 인연을 굳게 하였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광천(光天) 편소(遍炤) 지각(至覺) 지만(智滿) 원묵(圓默)의 호를 내리고 수놓은 방포(方袍)를 하사하였다.

현종(顯宗)은 원공국사를 숭상하여 대선사(大禪師)로 제수하고 광명사(廣明寺) 주지가 되기를 청하면서 법칭을 적연이라 하였다. 개태(開泰) 2년(1013)에 현종이 원공국사를 왕사로 삼으려 하니 군신들도 옳다고 하여 이상(亞相) 유방(庾方) · 밀사(密使) · 장연우(張延祐) · 집현(執憲) 이방(李昉) 등을 보내어 거듭 간청하였다. 이에 원공국사는 세번 사양하는 예를 하며 왕사의 자리를 한달이 넘도록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그 뜻을 받아 들였고 임금이 친히 예배하고 왕사로 삼았다. 3년이 넘지 않아 또 호를 제수받아 보화(普化)라 하였으니 이는 대덕자(大德者)가 반드시 얻는 명칭이었다. 이후 홀연히 깊은 병이 들어 천희(天禧) 2년(1018) 여름에 원주 현계산(玄溪山) 거둔사에 한가로이 안좌하기도 전에 입적하였으니 속세 나이 89세, 법랍이 72세였다. 현종은 이를 깊이 애도하여 원공국사를 국사로 추증하고 시호를 원공, 탑명을 승묘(勝妙)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원공국사의 활동을 살펴보면, 신라 하대부터 시작된 교 · 선종의 분열대립은 후삼국시대가 되면서 정치세력의 분열과도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더욱 복잡하게 되어 갔으니, 왕건은 후삼국의 통일전쟁중에 지방의 호족들의 통합정책과 상응하여 이들 불교계의 각파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교 · 선종 대립의 극복은 나말려초에 있어서의 사회적 전환에 상응

하는 것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전사상계의 분열, 정치세력의 분열을 해결하는 방안이었으니, 광종대에 와서 천태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이러한 당시 사상계의 현안이었던 교·선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사상체계를 얻고자 한 노력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한국에서 천태사상에 대한 이해는 일찍이 중국에서의 천태사상의 설립초인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화엄종이 발달한 신라에서 교·선의 대립이 격화되기 전까지는 이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 고려에 들어와 왕권의 안정과 강화가 일단 이루어지는 광종대에 와서 급진적인 정치개혁에 상응하는 사상적 통일이 긴급한 현실문제로서 제기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광종의 교·선합작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때에 중국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된 의통(義通)과 천태종의 기본교리서인 『天台四教儀』를 저술한 체관(諦觀)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중국의 불교계에서는 선종 방면에서도 그 유폐를 통론하면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흡수하는 사상체계를 수립하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리하여 교선일치의 사상체계를 얻고자 노력하던 광종은 송대 선종의 대표적인 저서인 『종경록(宗鏡錄)』 100권을 지은 연수의 저서를 읽고 크게 감명하여 고려승을 보내 그 문하에서 수업하게 하였으니, 광종의 후원으로 중국에 가서 연수의 심인을 받은 고려승이 원공국사 등 36인에 이르렀다.

원공국사는 선종 구산파(九山派) 중의 하나인 희양산파(曦陽山派)의 제4대 종주(宗主) 형초(迺超)의 사법제자로서 광종의 후원으로 오월국에 유학하여 영명사의 연수에게 가서 심인을 전수받고 이어 천태종의 본거인 국청사에 가서 정광에게 대정혜론(大定慧論)과 천태교학을 배웠다. 이리하여 원공국사는 천태교학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의통이 세운 전교원에서 대정혜론과

법화경을 강론하였고, 그가 귀국하자 광종은 중국에서 구마나십(鳩摩羅什)과 구엽마등(鳩葉摩騰)이 왔을때보다 열렬히 환영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에 대한 광종의 우대와 그 기대가 어떠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후 원공국사는 현종 9년 입적할 때까지 왕사가 되고, 또 당시 선종의 중심사찰인 광명사의 주지가 되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광종의 흥거로 인하여 교선합작(敎禪合作)의 사상체계로서의 범안종이나 천태학에는 별다른 업적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원공국사의 천태학에 있어서의 위치는 선봉사비(僊鳳寺碑)에는 물론 고려 후기에 백련결사(白蓮結社)를 일으켰던 원묘국사 요세(了世)의 비문에서도 특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실히 되며, 원공국사가 시적한 뒤 1101년에 천태종을 성립시키는 최초의 승과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심이 된 의천(義天)이 문집에 원공국사의 제문을 지었다는 것도 우연의 일은 아닌 것이다.

이제 탑비를 살펴보면 귀부는 높이가 1.2m의 화강암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용의 머리형을 하고 있으나 수두화(獸頭化)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중곽갑문(重廓甲文)은 정육각에 근사하여 내공(內空)에 '근'자와 보화문(寶花紋)을 교차하여 양각하였고 비좌 4면에는 안상(眼象)을 부조하고 있다. 비신은 높이가 245cm, 폭이 126cm로 상단부와 하단부에 당초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비문의 글자는 한 자의 결자도 없이 완전하다.

이수(麟首)에는 구름 위에 생동감 있는 용이 불꽃에 쌓인 보주(寶珠)를 다투어 물고자 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사실성 있게 조각하였다. 전반적으로 비의 조형은 신수두대(身廔頭大)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조형수법은 경화, 형식화된 고려비로서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 비의 자경은 1.82cm이다. 글은 현종의 명을 받아 최충(崔冲)이 찬(撰)하였으며, 개성 탄

현문(炭峴門) 밖의 귀법사제영석각(歸法寺題詠石刻)과 직산(稷山) 홍경사갈기(弘慶寺碣記)도 그의 소찬(所撰)이다. 글씨는 김거웅(金巨雄)이 썼는데, 서체는 구양순(歐陽詢)·구양통(歐陽通) 부자의 서법이 어우러진 것이다.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에 거둔사비(居頓寺碑)는 노공체(魯公體)라 하였는데 이는 틀린 평이며, 『서청(書鯖)』에 승묘탑은 자못 전형이라 하였고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에는 해서로 구양순을 체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자 김거웅의 행장은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비석 가운데서도 최일급이라 할 수 있는 뛰어난 글씨를 남겼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며, 서예사적으로도 중국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 매우 값진 자료이다.

이 탑비의 건립 연대에 대하여는 비문의 끝에 「태평기력세재전몽적분약추칠월이십칠일수(太平紀曆歲在旆蒙赤奮若秋七月二十七日樹)」라 하였으니 태평은 요(遼) 성종의 연호(1021~1030)이고 전몽적분약(旆蒙赤奮若)은 고갑자(古甲子)로 을축(乙丑)이므로 현종 16년(1025)에 해당된다. 이는 원공국사가 시적(示寂)한지 7년 후에 건립된 것이다. 또한 비문 끝에서 승(僧) 정원(貞元)·계상(契相)·혜명(惠明)·전보(專保)·득래(得來) 등이 각자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다.

## 2) 거둔사 원공 국사승묘탑

원공국사승묘탑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있다. 보물 190호로 지정되었으며 높이 2.68m의 화강암 석질로 된 탑이다.

이 부도탑은 원공국사승묘탑비와 같이 고려 현종 16년(1025)에 건조되었는데 원래는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거둔사지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에 일본인 화전염(和田稔)이 자기집에 가져다 놓았던 것을 1948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경내로 옮겨졌다.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지

원공국사승묘탑의 지대석은 거둔사지에 두쪽이 남아 있고 현재는 지대석이 없이 지면에 기반 하대석부터 놓여 있다. 하대석은 8각으로 각면에는 일반적인 안상이 1구씩 있고 그 안에 화형(花形)이 양각되어 있다. 상면에는 갑석형(甲石形)을 각출하고 16엽의 복판연화문(複瓣蓮花紋)이 있는 가운데 3단의 물당이 있어 중대석을 받고 있다. 중대석 또한 8각으로 상하에 테를 돌리고 각면의 좌우에 1단의 굴곡을 둔 간략한 안상을 두고 그 안에 전면에 걸쳐 팔부중상(八部衆像)이 1구씩 양각되어 있다. 상대석은 판내(瓣內)에 화형을 나타낸 단판연화문(單瓣蓮花紋) 16엽을 상하 2중으로 돌려 양연(仰蓮)을 삼았고 상면에는 호형(弧形)을 중심으로 그 상하에 각형(角形)을 안배하여 8각 3단의 괴임을 마련하였다.

탑신(塔身)은 8각으로 우각(隅角)에는 주형이 있되 화문대(花紋帶)로 장식되었고 각면에는 전후 양면에 문비형(門扉形)과 문약형(門鑰形)을, 그리고 좌우양면에는 창호형(窓戶形)

을, 남은 4면에는 사천왕입상을 양각하였다. 옥개석 역시 8각으로 탑신과 접하는 곳에 4단받침을 표출하고 그 위에 각형의 연목(椽木)을 모각(模刻)하였다. 추녀는 얇고 우각에는 반전이 뚜렷하다. 옥개상면에도 8조 우동형(隅棟形)이 곡선을 그리며 흐르다가 전각에 이르러 화형을 달았고 낙수면에는 기와꼴을 모각하였으며 추녀에 이르러 암막새·숫막새를 각출하여 상하 모두 목조건축의 지붕을 충실히 모방하였다. 상륜부(相輪部)는 정상에 8각형의 보개(寶蓋)가 얹혀 있을 뿐이다. 이 탑은 조각수법이 평판적이고 섬세하여 웅혼한 맛은 다소 결여된 듯하나 조형의 비례가 정제되고 중후한 품격을 풍기는 우수한 작품으로 전면의 조각이 상엄하여 한층 화려하게 보인다.

### 3)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경내로 옮겨져 있는 보제존자사리탑(보물 제358호) 2기는 본래 원주시내 영전사지에 있던 것을 1915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운 것이다.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은 2기로 높이는 각각 3.92m, 4.12m이며 승려의 묘탑으로는 특이하게 2층의 기단에 3층의 탑신의 형식을 취한 유일한 예이다.

하층기단은 지대석 위에 중석이 놓였고, 중석에는 우주(隅柱)·탱주(撐柱) 1주가 있으며 하단에는 1단을 턱을 낸 신라 말기 이후의 양식을 하고 있다. 갑석은 상면에 약간의 경사가 있고 중앙에는 얇은 편이 있다. 상층기단 중석에는 우주·탱주 1주씩이 있고 갑석은 밑에 부연이 있으며 상면에는 경사가 있는 가운데 비교적 높은 편이 있다. 이 편 위에 별석의 옥신편이 삽입되었는데 밑은 내만곡선을 그리면서 깎았고 위에는 다시 얇은 층단을 만들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

한 별석편의 삽입은 고려시대 불탑양식의 특색으로 이 사리탑의 별석양식은 성주사지 삼층석탑 아래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탑신부는 옥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석씩으로 옥신석에는 우주가 있으며 옥개석은 불탑 옥개석과 같은 형식이어서 각층 4단씩의 받침이 있다. 2기 가운데 1기의 초층 옥개석은 양식상 차이가 있어 원래 이 탑의 것인지는 의문이다.

상륜부는 2기 모두 불완전하며 하나는 노반·복발·보륜 등이 남아 있고, 다른 하나는 복발과 보륜만 남았다. 이 탑은 승려의 묘탑으로서는 이례에 속하며 더욱이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2기가 건립된 것 또한 특이한 형식이다.

이 사리탑을 옮길 당시 탑 속에서 각각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가 발견, 조사되었고 그 가운데 주탑에서는 방형의 납석제지석(蠟石製誌石)이 나왔다. 이 탑지의 앞·뒷면에는 자경 1.2cm의 해서명문(楷書銘文)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道人覺修

王師普濟尊者舍利一枚主塔

安邀比丘尼妙寬同舍利一枚

東塔安邀

大功德主奉翊大夫徐允賢

法名覺喜

妻氏丹山郡人張氏法

名妙然(이상 앞면)

石手道人覺訓

爐冶道人覺清

勸化比丘覺如

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日誌

牧使姜隱(이상 뒷면)

이 탑지의 명문에 의하면, 이 사리탑의 주인공이 고려말의 왕사 보제존자 나옹화상(懶翁和尚)임을 알 수 있고, 당시에 2기의 사리탑을 건조하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

여 각기 1매씩의 사리를 봉안하고 주탑(主塔)과 동탑(東塔)이라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사가 원주목사 강은(姜隱) 재임기인 홍무(洪武) 21년 戊辰(고려 우왕 14년 : 1388)에 이루어져 이 양탑의 건립시기를 알려 준다. 그리고 보제존자는 여주군 신흥사(神勸寺)에서 우왕 2년(1376)에 입적하여 우왕 5년(1379)에 부도탑이 건조되었으니 영전사의 보제존자사리탑은 신흥사에서 분사리(分舍利)한 2매의 사리를 인도해서 1매씩 봉안하여 12년 뒤인 1388년에 건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흥법사 진공대사 탑부석관

흥법사 진공대사탑 및 석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있으며, 재질은 화강암으로 탑의 높이는 2.91m, 석관의 높이는 0.48m이다. 1960년 6월 2일 보물 365호로 지정되었다.

흥법사지 진공대사탑의 원래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흥법사지였으나 1931년에 서울 경복궁 뜰에 옮겨졌다.

부도와 석관은 신라말 고려초의 고승으로 특히 고려 태조의 두터운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진공대사의 것으로 부도는 방형 지대석 위에 세워져

있고, 석관은 그 옆에 별도로 놓여 있다.

한국 석조부도의 기본형은 8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의 기단부와 그 위에 놓이는 탑신과 임대·탑신부·옥개석·상륜부까지 모두 8각으로 조성되어 층층이 쌓은 것으로 전체적인 평면이 8각인데 이러한 형식을 이른바 팔각원당형부도라고 한다. 이러한 일반형 부도는 고려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니 그 중의 하나가 홍법사지 진공대사탑이다. 여러 장의 돌로 짜여 있으며 윗면에 8각의 2단 물덩이 마련되어 있는 지대석위에 기단부·탑신부·상륜부가 놓여 있다.



홍법사 진공대사 탑부석관

기단부는 상·중·하 대로 구성되었는데 하대석은 연화대(蓮花臺)로 이루어져 있고 8각 하대의 각 측면에 세장한 안상(眼象) 안에 화문이 있

고 상면에는 16판 복엽의 복엽이 조각되었으며 우각에는 나지막한 귀꽃을 장식하였다. 8각의 모서리를 모죽임하여 거의 원형에 가까운 중대석은 고복형(鼓腹形)으로 전면에 운(雲)·용(龍)이 웅장하게 조각되었다. 용의 눈·코·입·비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승천하는 용의 장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양연(仰蓮)으로 이루어진 상대석은 복엽 16판으로 하대와 대칭적이나 하대와는 달리 귀꽃이 장식되어 있지 않다.

8각으로 된 탑신은 한 장의 돌로 만들어진 각 우각에 주형을 마련하였는데, 기둥 내부의 가운데 부분과 위 아래의 부분에 꽃무늬가 장식된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후 양면에는 호형(戶形)이 조각되었다. 탑신 위에 놓인 옥개석은 8각의 1석으로 하면에 3단의 옥개받침과 이중으로 된 연목을 세각하였고, 경사가 완만한 옥개의 낙수면에는 8조의 우동이 굽게 표현되고 전각의 반전이 심한 각 모서리에는 귀꽃이 높게 솟아 있다. 옥개석 상면은 굽은 각 우동이 흐르다가 전각에 이르러 높직한 귀꽃이 표현되었고 그 사이에 기왓골과 암막새·숫막새를 상세하게 조각하여 하면의 서까래와 함께 당시 목조건축의 일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상륜부는 옥개석 정상에 보개만이 남아 있을 뿐 모두 결실되어 그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다.

이 진공대사탑은 신라시대의 양식수법을 잘 계승하고 있으면서 신라하대의 퇴화된 작품에 비하면 고려 초기에 있어서의 신흥의 패기가 넘치는 수작이다.

부도의 왼쪽에 놓여있는 석관은 경문과 함께 그와 관련이 있는 유물을 봉안하는 돌로 만든 상자로서 뚜껑까지 완전하게 온화한 품위를 나타내고 있다. 구연 뒷쪽 일부가 깨진 신부는 넓은 횡대의 띠를 둘러서 상·하 2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중 하단부에는 앞·뒤에 각 1좌씩, 좌우

로 각 2좌씩 6좌의 안상이 새겨져 있다. 안상의 조각수법은 부도 기반부의 하대석에 마련된 안상과 동일하지만 부도와는 달리 내부에 아무런 조식이 없다. 이 부도와 석관의 조성연대는 진공대사탑비의 건립과 같은 고려 태조 23년(940)경으로 추정된다.

## 5) 흥법사 진공대사탑비 귀부, 이수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는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흥법사지에 있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건립되었으며 1968년 7월 5일 보물 463호로 지정되었다.

진공대사탑비는 신라말 고승인 진공대사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고려 태조의 왕사가 되어 태조 23년(940)에 입적하니 태조가 비문을 짓고 당 태종의 글씨를 집자하여 세운 비이다.

귀부와 이수는 현 위치에 있으나 비신석은 단석 4개로 파손되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고려사』세가 태조 23년조에 「추칠월왕사충담사수탑우원주영봉산흥법사친제비문(秋七月王師忠湛死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親製碑文)」이라는 구절이 있어 태조 때에 이미 흥법사라는 절이 있었다 함은 신라때 세워진 사찰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진공국사(眞空國師)는 신라의 승려로 속성은 경주 김씨며 이름은 충담(忠湛)이라 했으며 고려 태조의 왕사이다. 신라 경문왕(景文王) 9년(869) 정월 1일에 태어나서 고려 태조 23년(940) 11월 18일에 입적하였다. 장순선사(長純禪師)에게서 승려가 되고 신라 진성여왕 3년(889)에 무주(武州)의 영신사(靈神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경률론(經律論) 삼장



흥법사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을 부지런히 연구하였다. 일납의 초로(草廬)를 방문하는가 하면 설악에 가서 해동조사(海東祖師)의 유적을 답사하여 영탑(靈塔)에 참배하며 참선차 다니다가 어머니에게 귀관(歸觀)하였다.

서방의 김해에 이르러 초은(招隱)이 있던 곳을 수리하여 주거하며 학자들이 운집하였다. 입당(入唐)하여 정원(淨圓)에게서 수도하고 효공왕(孝恭王)의 왕사가 되어 돌아왔다. 소백산사에 있을 때에 고려 태조가 남방으로 원정(遠征)하는 길에 그 법덕(法德)을 흠망하여 찾아 보았고 태조가 삼한을 통일한 때에 서울에 가서 하례를 올렸다. 태조 23년(940)에 원주 흥법사에서 시적(示寂)하였다.

대사의 학덕이 도고하고 자비스러운가는 고려 태조가 친히 비문을 찬하였고 당시 명필인 최광윤(崔光胤)이 당 태종의 서법을 그대로 집자한 것만 보아도 알만하다. 동비(同碑)는 대사 멸후

태조가 친히 세웠다.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귀부의 활달한 조각과 깊게 새긴 이수의 운룡(雲龍)이 화려하다. 귀부의 머리는 직립한 용두형(龍頭形)으로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으며, 목은 짧고 용린(龍鱗)이 있으며, 네 발은 대석을 힘있게 딛고 있다. 귀갑문은 거둔사 원공국사승묘탑비와 같은 중곽갑문으로 정육각형에 가깝고 귀갑문내에는 만(卍)자와 꽃모양을 서로 교차되게 양각하였다. 이수는 전면 중앙의 전액(篆額)을 감싸고 용 네마리가 용트림을 하였는데, 용 두마리는 전액을 사이에 두고 무섭게 노려 보고 있고 또 두마리는 양쪽 귀통이에서 측면을 쳐다보고 있으며, 뒷면에도 4마리의 용이 사방을 주시하고 있다. 전액에는 「진공대사」의 4자를 2행 2자씩 쓰고 있다.

고려의 대학자인 익제 이제현이 글이나 글씨가 천하의 보물이라고 극구 칭찬한 글이 「신승동국여지승람」에 있다. 귀부와 이수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 6) 흥법사 삼층석탑

흥법사 삼층석탑은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흥법사지에 있으며 1968년 7월 5일 보물 464호로 지정되었다. 재질은 화강암이며 총고 3.69m, 지대석은 2.2m이다.

흥법사지 삼층석탑은 2층 기단위에 3층 탑신을 쌓은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이다. 삼층석탑은 발가운데 서 있는데 경작하는 과정에서 지대석이 일부 드러났다. 지대석 위에는 하대석과 중대석을 하나의 돌로 만들어 4석으로 구성한 하층 기단이 있다. 이 기단의 사면에는 우주와 탕주의 모각이 없이 각면 3구획의 안상이 있고 안상안에는 지선에서 꽃모양이 솟아 있어 고려시대의 특



진공대사 탑비 이수의 전액

정을 보이고 있다. 2장으로 된 갑석은 넓이가 좁은 편이고 밑에 부연이 없으며 상면에는 심한 경사가 있음이 특이하다. 가운데는 3층기단을 받치기 위한 얇은 1단의 괴임이 있어 약화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 상층기단의 중석은 여러 장의 넓직한 돌로 불규칙하게 구성하였고, 그 규모는 장대하며 폭이 좁은 우주와 탕주가 있다. 2장으로 덮은 갑석은 얇은 편으로 하층기단 갑석과 같이 부연이 없고 상면에는 경사가 있으며 중앙에 네모진 3단의 받침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탑신부는 기단에 비하여 갑자기 줄어들어 넓이는 절반으로 줄었고 높이는 약 2/3로 줄었으며 1층 옥신에 비하여 2층 이상의 옥신은 높이가 또 1/3로 줄었다. 각층의 옥신에는 가느다란 우주형이 모각되었을 뿐 다른 조각은 없다.

옥개석은 추녀 부분에 손상이 많은 편으로 하

면의 받침은 각층 4단이고 얇은 받침에 비하여 낙수면은 두꺼워서 경사가 심하고 추녀 밑은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이고 있으니 모두 고려시대의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옥개석위에는 상층 옥신을 받기 위한 1단의 각형받침이 있고 상륜부에는 노반 1석이 있으나 손상이 많다.

홍법사지 삼층석탑은 규모도 작고 기단부와 탑신부의 비례가 불균형하며 석재의 구성이나 표면의 조각수법이 나약해 보이나 웬일인지 치장하지 않은 소박한 고려 여인의 자태를 보는 것만 같다.

## 7) 거둔사 삼층석탑

거둔사지 삼층석탑은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8의 거둔사지에 있다. 높이는 4.5m로 석질은



홍법사 삼층석탑



거둔사 삼층석탑

화강암이며, 1983년 12월 27일자로 보물 750호로 지정되었다.

신라말에서 고려초기에 크게 융성했던 거돈사지 내에 있는 높이 4.5m의 2층 기단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이다. 다른 석탑과 달리 상단을 마련하고 3단의 장대석을 가지런히 쌓아 방단을 만든 위에 탑을 세운 점이 특이하다. 방단의 남쪽면에는 돌계단을 만들었고 그 위에 흙을 둔덕지게 쌓아 지대석을 놓았다.

4장의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결구하고 그 위에 상층기단 하대석 또한 4장의 판석을 동일형식으로 쌓았으나 지대석과는 방향이 다르다. 하층기단의 구성은 판석 사이에 장방형 판석을 끼워 놓고 우주와 탕주를 새겼다. 하대중석 또한 4장으로서 각면의 중앙부에 접합시켰다. 그 상부 낙수면 위로는 중석받침과 1단의 탑신받침이 있다. 상층 기단 중대면석은 남북쪽에 양 우주가 표현되게 장면을 대고 동서면에 탕주만 새긴 면석을 끼워 맞춘 방식이다. 수평한 낙수면을 가진 상대갑석은 위로는 사분원과 각형의 탑신받침이 있다.

탑신부는 각층마다의 옥신·옥개석이 각각 1석으로 구성되었고 각층 옥신에는 양 우주를 모각하였다. 옥개부의 낙수면은 두꺼우면서도 끝부분을 살짝 반전시켰고, 옥개받침은 각 5단씩이다. 옥개석의 윗면에는 각형 2단의 괴임으로 위층 옥신석을 받쳤고, 각 옥개석마다 전각부에 풍탁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상륜부는 현재 노반 위에 복발만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초층탑신이 기단부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 왜소한 느낌을 주며, 옥개가 반전하면서도 전각을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마무리한 점 등은 통일신라 후기의 석탑 형식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그러나 탑신 자체에 별다른 장식이 없고 옥개받침이 5단인 점 등은 통일신라 초기의 석탑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 5 강원도 유형문화재

### 1 강원감영 [문루 및 선화당]

강원감영의 문루와 선화당은 원주시 일산동 54-2에 위치하며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3호로 지정되었다.

선화당은 각 도의 관찰사가 집무하는 정당으로 지금의 강원도백이 집정하던 도청의 본관이다.

『文化遺蹟總覽』에 의하면 선화당은 고려 성종 4년(985)에 초창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현종 때(1660~1674) 원주목사 이후산(李後山)이 중건하였고 문루(門樓)는 고려 충숙왕(1314~1330) 때 건립하여 조선 태조 4년(1395) 선화당을 감영청사로 하면서 문루는 강원감영 문루로 쓰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985년에 전국에 12주를 설치할 때 원주는 충주목사 관할하에 있었고 995년 전국행정구역을 12목10도도 개편할 때 중원도(中原道)에 속한 군으로 주지사가 배치되었으므로 선화당은 군치를 관장하던 관아의 한 중심정청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중기 이후에 원주는 몇 차례 지방편제상의 승격이 이루어져 충숙왕 34년(1308) 전국에 목을 둘 때 원주목으로 승격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조 4년(1395) 6월 13일 전국의 행정구역이 정비되면서 정식으로 “강원도”란 명칭이 제정되면서 관찰사가 파견되는 강원감영이 설치되었다. 이 때에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붙게 되었다.

감영이 설치된 당시의 관아와 당우의 형태는 『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이숙감(李淑減)의 기문에 의하면,

“원주는 관동지방의 계수(界首)이다. 치악의 한자리가 서쪽으로 잇달아 백여리를 달려와서 주의 진산(鎭山)이 되었으니 모든 공관(公館)과 창고와 검각(鈴閣)이 다 여기에 자리잡았다.”

라고 하였고, 동서 원주목 궁실조 서거정(徐巨正)이 쓴 「客館重新記」에는 당시 감영의 영건 상황(營建狀況)을 살필 수 있다.

… 중류 이상의 집들이 힘써 집을 영조(營造)하여 마루가 넓은 집과 누와 아름다운 정자가 간 곳마다 수두룩하다. 그런데 홀로 어찌하여 이와 같이 크고 부유한 고을로서 관아의 건물은 누추하고 좁아서 초라함이 이와 같은가. 그것을 창건한 연대를 물으니 원나라 延祐年間(1314~1320)에 지은 것이라 하니 지금부터 계산하면 백수십년이 된다. 그동안 주의 수령된 자들이 이력저력 지내기 좋아하여 수리하는데 힘쓰지 않으니 이것이 주의 큰 결점이다. 성화

(成化) 경자년(1480)에 철성(鐵城) 이후(李後)가 주의 목사로 와서 통판(通判) 전성(全城)과 모의하여 중수를 꾀하니 감사 권륜(權綸) 또한 비용을 도와癸卯年(1483) 봄에 공사를 일으켰다. 곧 옛터에다가 그 재도를 더하고 넓혀서 먼저 대청(大廳) 3칸을 세우고 앞뒤 익랑(翼廊)을 붙였고 동헌(東軒)도 같게 하였다. 크고 트이고 넓고 시원하매 높고 빛난다. 옛날에 좁았던 것이 지금은 너그럽고 옛날에 누추하던 것이 지금은

시원하여 보는 자가 모두 아름답게 여겼다.”

이에 의하면 고려때부터 전해온 정청(正廳)은 조선초에 중수 또는 중창되었으며 객관은 이들 청사의 초창보다 약 330여년 뒤에 창건되었다.

이때 건조된 관아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니, 현종때 목사 이후산(李後山)에 의해 선화당이 재건(再建)되었음이 『輿地圖書』 강원감영조(江原監營條)에 잘 나타나 있다.

“예전에는 별달리 감영으로 지은 건물은 없었고 현종 6년(1665)에 감사 이만영(李晩榮)이 새로 영사를 객관 서쪽에 지었는데 선화당으로 완

성하지는 못하였고 후임 감사 이후산(李後山)이 현종 8년(1667)에 완공하였다. … 관풍각은 선화당 동쪽에 있고 포정루는 선화당 제2門 위에 있다.

또 이 당시에 감영내에 영조된 공해(公廩)와 누(樓)·고(庫)·방지(方池) 등이 소개되고 소속된

군병들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강원감영과 원주목이 사용하던 관아와 정청에 뚜렷한 구분은 없지만 읍지에 나타난 전각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宣化堂(30間 또는 31間)·客館(70間)·衙舍(42間)·戴恩堂(38間)·親民堂(15間)·喚仙亭(4間)·蓬萊閣(6間)·浮萍閣(6間)·淸陰堂(12間)·布政樓(12間)·鄉廳(26間) 등이 있었고 중군(中軍)에 소속된 건물로 中營(15間)·裨將庁(20廳)·執事廳(16



강원감영 문루 (포정루)

間) · 營吏廳(20間) · 營衙前廳(16間) · 營奴房(15間) · 使令廳(6間) · 軍率房(5間) 등 많은 건물들로 관아를 이루고 있었다. 이밖에도 창고건물(倉庫建物)로 營倉(45間) · 營庫(20間) · 營繕庫(3間) · 補膳庫(17間) · 補營庫(9間) · 雇馬庫(3間) · 軍需庫(62間) · 工房庫(12間) · 永賴庫(11間) · 補蓼庫(12間)과 東門(水明間) · 西門(翠滴間) · 南門(鎭南門) · 北門(拱北門)이 각 1間씩 있었다.

여기에 수록된 관아내의 여러 건물에 관한 내력을 보면, 임진왜란을 맞아 왜적이 7개월 동안 객사를 점령하고 있다가 후퇴하면서 방화하여 선화당을 비롯한 70여칸에 이르는 관아 전체가 소진되었다. 이후 인조 9년(1631) 이배원(李培元) 목사가 객관 10여칸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충주목으로 전임하고 그 후임인 이증길목사가 준공하였다. 이는 육방의 관원들이 집무하는 청사로서 그 이름을 '신월헌(新月軒)'이라 하였다. 그후 관찰사 강홍중(姜弘重)이 동헌(東軒) · 서헌(西軒)을 차례로 세웠고 이로부터 30여년 후인 현종 6년(1665) 이만영(李晩榮)이 객사 서쪽에 선화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강원감영의 공해(公廨)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영조때까지 강원감영에는 제은당(戴恩堂) 등 16棟 280여칸의 공해(公廨)와 그 부속으로 영창(營倉) · 영고(營庫) 등 200여칸의 창고가 건립되었다.

예전의 원주군 청사와 선화당 뒷편에는 넓은 연지(蓮池)가 있어 배를 타고 선유(船遊)하기에 마땅하여 숙종 10년(1684) 감사 신완(申玩)이 연못가운데 작은 섬에 봉래각(蓬萊閣)을 세웠고, 영조 22년(1746)에는 감사 김상성(金尙星)이 봉래각 옆에 환선정(喚仙亭)을 세웠다. 그후 정조 20년(1796)에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이 봉래각 북쪽에 관풍각을 지어 1799년에 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이 수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

이렇게 많은 관원과 군역을 거느리고 500년 동안 존속되던 강원감영은 고종 32년(1895) 지방행정 구역 조정이 있었을 때 강원감영은 폐지되고 원주 일대는 충주 관찰부에 소속된 군으로 개편되었다. 다시 1896년 전국을 13道로 분할 재개편 하였을때 원주군은 강원도에 소속되었지만 그 수부의 자리는 춘천으로 옮겨졌다.

현재 선화당 주변에는 북측으로 청운대만이 남아 있고 도로변에는 포정루가 있다. 이 문은 방형장 초석 위에 민흘림기둥을 세운 正面 3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2층으로 된 총 12칸의 문으로 감영에 들어가는 첫번째 관문이며 증문과 내삼문을 거쳐 선화당에 이르게 되었었다. 포정루가 언제 건축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문화재연구소에서 「포정루의 건축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인조 12년(1634) 객사가 세워질 때 즈음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17세기 전반에 건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는 강원감영의 공해(公廨)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1667년 선화당을 건립하면서부터 건축되기 시작하였으니 포정루도 이 시기에 건축되었을 것이다. 그 이외의 건물들은 193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퇴락되어 단계적으로 철거되기도 하였으며 6·25을 맞아 소실되었다.

선화당은 국민학교 교실 또는 원주군청으로 사용되던 중 6·25 중에는 강원도청이 임시로 옮겨졌었고, 그후로는 원주군의 청사 · 도서관 · 향토관으로 활용되면서 내부구조가 일부 변경되고 창호 등 외벽이 완전 개조되었다.

1979년 국고지원에 의해 보수 복원이 이루어져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현 선화당 건물은 당우의 구조양식이나 세부기법으로 보아 현종대에 증건된 당시의 건물로 보기 어려우니, 공포재(棋包材)의 초각형식과 가구재 치목수법 등으로 보아 18세기 이후에 증수되거나 한번 개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원감영 선화당

강원감영 선화당은 다른 지방의 선화당 건물이 원형대로 남아 있지 않은데 비하여 비교적 잘 보존되었고, 근래의 보수로 인하여 잘 단장되어 있다.

건물의 평면구조는 정면 7칸, 측면 4칸이며, 정면과 측면의 주문설정의 검토결과 팔작지붕 형식이 입주시부터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포 형식(棋包形式)은 조선 후기의 양식임이 익공(翼工)의 초각문양에서 볼 수 있고 가구방식(架構方式)도 흔히 사용되는 이고주칠량가(二高柱七樑架)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지붕 마루의 양성바르기는 관아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용마루의 양끝에 설치된 용두와 사래끝의 토수 등도 일반민가나 사찰건물에서 볼 수 없는 양

식이다. 전체적인 구조·양식 등에 의해 강원감영 선화당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후기에 건립된 건물로 추정된다.

## 2) 일산동 석불좌상

원주시 일산동 옛 강원감영의 터 잔디밭에 보존된 불상으로 본래는 중앙동(하동리)에 있던 것을 일정 때 일본인들이 남산 추월대로 옮겨 오랫동안 동산에 안치되었고 1962년 5월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의 자리로 옮길 때 이미 불두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여 불신 위에 올려 놓았다.

이곳에는 5층석탑은 중심으로 좌우에 똑같은



일산동 석불좌상



일산동 오층석탑

모습의 불상 2구가 안치되어 있다. 우측의 불상은 전고 2.25m, 좌상 높이 1.1m의 규모이며 좌측의 불상은 전고 2.2m, 좌상 높이 1.1m로 높직한 좌대 위에 봉안되었고 오층석탑의 좌측에 있는 좌상도 지권인(智拳印)을 취하였으므로 비로사나불이며 머리의 모양은 손실되어 알 수 없고 목부분도 볼 수 없다. 법의는 통견(通肩)하여 유려하게 흘렀으나 각부에서 형식화된 점이 보인다. 왼손과 오른손이 살짝 들려 가슴에 모아지고 있었음을 보아 지권인을 결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으나 오른손은 손목에서 없어지고 왼손은 손목 윗부분에서 깨어져 없다.

이 불상에서 주목되는 것도 좌대로 하대의 측면석에는 8각마다 안상안에 사자를 1좌씩 양각하였고 그 위에 복연석(伏蓮石)을 놓았다. 8각 중대석에는 양우주가 있고 1구씩의 각상을 조각 배

치하였다. 상대석은 원형으로 큼직한 앙연(仰蓮)을 그중으로 돌렸다.

5층석탑의 우측에 있는 불상은 대좌는 완전하나 광배는 이미 없어졌으며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으나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불신은 넓은 양 어깨에 통견의(通肩衣)가 걸쳐 있으며 법의는 얇아서 몸체의 윤곽이 잘 나타나 있으나 옷주름은 복잡하게 많아 온몸을 감싸 무릎까지 덮었다. 왼손과 오른손을 가슴에 모아 지도록 살짝 들었으나 두손 두 손목부분에서 깨어져 손과 손가락 모습은 알 수 없으며 지권인을 하고 있어 비로사나불임을 알 수 있다. 무릎의 폭은 결가부좌하여 넓은 편으로 팍찬 느낌을 준다.

대좌는 전형적인 8각형으로 상대에는 장식된 단판의 앙연을 2중으로 조각하고 중대에는 8연

각각에 우주를 조각한 안에 불보살을 좌상 또는 입상으로 조각하였다. 하대에는 중대를 받치는 괴임 밑에 넓은 복판복연 8엽이 조각되었고 그 밑을 받치는 넓직한 8각 주형의 지대석 각 면에는 안상을 음각하고 그 내부에 사자와 모란 등을 장식하였다. 지대석 밑에는 이상의 모든 석재를 받치기 위해 3매의 장대석으로 기초 삼았다

머리를 새로 만들어 놓아 동체와 잘 어울리지는 않으나 원형을 찾아본 의미에서는 그런대로 주의를 끈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이 좌상에서 대좌가 완전하므로 고려초기 불상좌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석불좌상은 1971년 12월 16일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깨진 불루는 춘천의 강원도 향토관으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 3) 일산동 오층석탑

이 석탑도 원주군청이었던 옛 강원감영 내에 불상 2구와 함께 나란히 안치되어 있다.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었다. 본래는 중앙동(하동리) 절터에 있었던 것을 일정에 남산으로 옮겨졌다가 1962년 5월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형성한 일반형 석탑으로 높이 3.7m의 중형석탑이다. 2매의 판석으로 지대를 삼고, 이것이 하대갑석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그 중앙에 중석받침이 각형으로 2단이 있어 4매로 된 중석을 받치고 있다. 중석의 4면에는 중앙의 탕주와 네귀통이에 우주를 조출하였다. 1매로 된 갑석 중앙에 각형의 탑신받침이 있고 윗면은 얇은 경사를 두었다.

탑신은 신(身)·개(蓋)가 각 1석씩으로 각층 탑신에는 양우주가 모각되고 옥신의 높이와 폭이 서서히 체감되어 무리한 것이 없으며 옥개의 체감현상도 마찬가지로 정돈되어 있다. 옥개는 모

두 얇은 편으로 옥개석의 받침은 각형으로 3단씩이다. 윗면 중앙에는 옥신괴임이 각형 2단으로 조출되었다.

상륜부는 노반부터 없어졌으나 근년에 새로 만들어 올려 놓았다. 처마의 선과 아랫선은 수평이나 윗선은 전각 부분에서 서서히 반전하는데 심하지 않다. 옥개부분은 거의 모두가 깨어져 완전한 미를 많이 잃고 있으나 우아하고 섬세한 솜씨를 엿볼 수 있고 필요이상의 장식을 하지 않아 아주 소박한 인상을 준다.

이 탑은 그 양식이나 수법으로 볼때 고려시대의 조형물로 추정된다.

## 4 구룡사 대웅전

구룡사 대웅전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2리 1029에 있는 구룡사 경내에 있으며, 1971년 12월 16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되었다.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6년(666)에 창건한 사찰로 대웅전 자리에 9마리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구룡사라 하였으나 조선 중기에 거북바위 설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명칭인 구룡사로 개칭하였다고 하며 숙종 32년(1706)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한편 『치악산구룡사사적기』에 의하면 신라말의 고승 도선국사(道詵國師)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또한 '강희(康熙) 45년'명(銘)의 외당이 출토되어 숙종 32년(1706)에 중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룡사의 모든 건물은 숙종대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근자에 이루어진 중수에 대해서는 태허당(太虛堂) 종영사(宗泳師)가 황폐된 사원 전모를 중신하여 1966년에 현 보광루를 해체복원하여 단청을 마쳤고 1968년에는 심검당(尋劍堂) 및 요사(寮舍)를 보수하였다. 1971년에는 삼성각을 보수단청하였으며 1986년 부임한 정휴주지 스님에 의해 국립공원에 걸맞게 말끔히

단장하였다.

대웅전은 조선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특히 불상위에 있는 보개는 중층되어 특이하다. 전면의 중앙간은 좀 넓고 사분합문(四分閤門)을 달았는데 중앙 2개의 문짝은 빗살문이며 나머지 2짝은 정(井)자살문을 달았다.

전장의 중앙부는 우물천장을 둘레에는 빗천장을 가설하였으며 연꽃과 봉황, 운문, 비천상 등을 채화하여 금단청과 함께 매우 화려하고 장엄하다. 지붕은 한식 골기와이며 용마루에 치미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자연석으로 쌓은 축대위에 세워져 있는데, 자연석 초석위에 배흘림 없는 원주를 썼고 그 위에 주심포(柱心包)를 두고 주심포 사이에도 공간포(空間包)를 2조씩 배치한 다포계양식이며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공포의 외부 제공은 앙설형(仰舌形)이 중첩되었고 앙설 윗몸에는 각각 연꽃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내부 제공은 하나로 연결하여 당초무늬를 조각하여 붙여 있고 네 귀퉁이에 풍경이 달려 있다. 대웅전을 오르는 계단은 8단으로 각단에는 2개의 자연석이 놓여있다. 제1단 양 옆 마당에는 커다란 불화 걸이대 지대석이 있어 그 옛날의 영화를 말해 주는듯 하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바로 눈앞에 보광루가 나타난다.

조선 후기의 건물이나 장중한 형태임에 주의를 끈다. 이 불전은 공포 내·외부의 장식적인 조각 솜씨 및 구조수법 등으로 보아 1900년대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6년에 보수·단청되었다.

대웅전 내의 닛집은 이곳 주변에서 보기도문 **화려하고도** 장중한 것이며, 대웅전 건물자체도



구룡사 원통문

이 일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조선후기의 건물이다.

대웅전 앞 좌우에는 90여평의 심검당·설선당의 승사가 있고 심검당의 뒤에 서가원과 설선당 뒤에 요사채가 있다. 정면에는 보광루가 있는데 38평으로 내부 전체를 짚으로 만든 우리 고유의 명석을 깔았다. 이밖에도 삼성각·범종각·원통문·국사단·사천왕문·웅진전 등이 있다.

절 입구에는 조선시대의 부도군(浮屠群)이 있고 또 구룡사의 전설을 말해주는 거북바위와 용폭과 폭포 아래에 용소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세운 '황장금표(黃腸禁標)'가 있는데, 이것은 치악산 일대의 송림에 대한 무단 벌채를 금하는 표시이다.

## 5) 상원사 삼층석탑 및 광배

상원사 삼층석탑 및 광배는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81의 상원사에 있다. 석탑의 총고는 2.9m



이며 1971년 12월 16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25호 지정되었다.

상원사 대웅전 앞에 있는 석탑은 법당 앞 좌우로 1기씩 2기의 쌍탑이다. 해발 1,100m의 높은 고지에 사찰이 경영된 것도 주목되려니와 또한 이러한 고지대에 쌍탑이 있는 것도 특이한 일이다. 쌍탑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1964년의 보수로 인해 거의 완전할 정도로 보존되어 있다.

두 탑의 형식은 비슷하며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상륜부의 일부가 남아 있다. 몇 장의 지대석을 놓고 이중기단을 구성하였는데 하대중석에는 우주를 조출하였으며 4매로 된 하대갑석의 상면에는 중석받침이 있다. 2매로 된 하대갑석의 낙수면은 완만한데 위에는 4분원의 탑신피임을 두어 탑신을 받았다.

1, 2, 3층의 옥신에는 우주가 있으며 각 층의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처마는 윗선과 아랫선이 평행이다가 전각에서 약간 반전되어 경쾌한 기분을 주고 있다.

옥신 높이의 체감은 2, 3층이 1층의 1/3정도이며, 옥개는 체감율이 적은 편이나 기단부 보다 탑신부가 왜소하게 보여 균형미를 잃은 듯하다. 특히 옥개석 받침은 모두 1단으로 처리하여 탑의 전체적인 불균형을 더해준다. 상륜부는 좌탑이 노반·보륜의 일부가 남아 있고 우탑이 보개·수연의 일부가 남아 있어 대부분이 손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탑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옥개받침이 없이 사형으로 처리된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고려 전반기에서도 후기로 떨어지는 것이다.

1964년 석탑 보수 때 우탑의 탑신에서 관음보살좌상·인왕상·아미타불입상·석가여래입상의 금동불 4구가 발견되었는데, 관음보살좌상은 화관을 썼으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손을 그 위에 얹었으며 오른쪽 발 옆에는 정병을 놓았다. 인왕상은 두광이 있고 오른쪽 손에는 무기

를 들었으며 아미타불입상은 그 크기가 가장 크고 연대에 주형광배를 갖고 있고, 석가여래입상은 연대 위에 직립하고 있다.

삼층석탑과 함께 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배는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불상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광배와 대좌에서도 하대석의 일부만 우탑앞에 남아 있다.

광배는 주형거신광(舟形擧身光)인데 2조 융기선(隆起線)으로 두광(頭光)과 신광을 그렸으며 두광 중심에 원을 새기고 그 주위에 8엽의 연화를 돌렸으며 그밖에 당초문을 조각하고 두광, 신광 외부에는 사실적으로 화염문을 양각하였다. 그러나 신광 부분은 깨져 결손되었고 우측의 대부분이 망실되었다.

대좌는 상대석과 중대석이 없고 하대석의 일부가 남아 8각형의 대좌였음을 짐작케 하며 복판복엽의 8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동탑 앞에 놓여 있다. 광배 또한 삼층석탑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6) 용운사지 석조비로사나불좌상

용운사지 석조비로사나불좌상은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120에 위치하며 총고 1.65m의 화강암으로 조성된 고려초기의 불좌상으로 1973년 7월 31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4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상용곡 부락의 넓직한 경작지 일대가 옛 절터인데 현재도 이곳에는 옛 기와편과 자기편이 산재해 있다. 용운사지 3층석탑과 함께 비로자나불좌상이 위치한 곳에서 '용운사'라는 명문와당이 출토되어 사찰명을 알게 되었으며 주위에는 축대 등이 남아 있다.

좌대는 각 부분이 깨어진 상태로 광배는 없다. 방형의 좌대 위에는 좌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전



용운사지 석조비로사나불좌상

고 1.65m, 좌상 높이는 0.94m의 중형불상이다. 불두의 머리 부분은 손상되었으며 목이 완전히 금이 간 것으로 보아 절단되었던 불두를 제자리에 올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머리는 나발(螺髻)이 크나 육계(肉髻)는 없으며 귀는 다른 불상보다 작은 편이고 얼굴은 통통한데 광대뼈가 나왔다. 코 끝은 깨졌고 입의 크기는 알맞으며 전체적인 인상은 근엄하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이 보이고 넓은 어깨에는 통견의(通肩衣)를 걸쳤다. 법의는 얇아서 비대한 불신의 윤곽이 잘 나타나고 있는 반면, 옷주

름은 도식화되어 흘러내린 옷자락이 무거운 인상을 주고 있다.

가슴의 손은 좀 통통한 편이며 지권인(智拳印)을 결하여 비로사나 불임을 알 수 있다. 앉은 모습은 결과부좌하였는데 어색함이 없다.

좌대는 앞뒷면의 폭이 옆면보다 긴 방형으로서 상대에는 복판양면 12엽을 한점으로 조각하고 밑면 중앙에는 부연이 있다. 중대는 장방형으로 앞뒷면이 넓으며 각 4면에 안상을 음각하였다. 하대에는 중대를 받치는 각형 괴임을 조출하고 그 밑에 큰 복판복면 16엽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불상의 특징은 대부분의 불상이 8각형의 좌대에 원형의 상대석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비하여 결과부좌한 부처의 무릎 폭보다 조금 큰 장방형의 상대석을 마련하고 또 중대석과 하대석도 모두 장방형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형의 좌대는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유행한 양식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고 제작수법에 있어서도 뛰어나지 않으나 우아한 느낌을 주는 불상이다.

## 7) 용운사지 삼층석탑

용운사지 삼층석탑은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120에 위치하며 총고 4.8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고려 중기의 석탑으로 1973년 7월 31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43호로 지정되었다.

상용곡 부락 발 가운데 석탑과 석불이 남향하여 일선상에 남아 있는데 '용운사'라는 명문와당이 출토되어 사찰명이 알려지게 되었다.

탑은 단층기단으로 하대중석에는 탱주 1주가 각출되었고 중대갑석 윗면에는 2단의 괴임을 두어 상대중석을 받고 있다. 상대중석은 4매로 구성되었고 중앙에는 탱주 1주가 있다. 상대갑석에는 부연이 없고 윗면에 낮은 2단과 높은 1단의 괴임을 두었으며 그 위에 다시 양연을 조각한 별석을 두어 초층의 탑신을 받고 있다. 별석은 두께 15cm, 1변 72.5cm의 방형에 16판의 양연을 돌렸는데 그 연판조각이 풍려하다.

탑신부는 신(身)·개(蓋) 각 1석씩으로 조성하였다. 각층 옥신에 내우주를 각출하였고 1층 옥신에 비해 2,3층 옥신은 1/4정도로 체감되어 안정감을 보인다. 옥개석은 받침이 4단이며 네 귀퉁이의 전각에는 풍경을 달았던 소공이 있다.

낙수면은 경사가 급하지 않으며 추녀는 직선을 이루다가 전각에서 살짝 반전되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옥개석 윗면에는 2단의 각형 받침으로 그 위의 옥신을 받고 있다. 상륜부에는

찰주공(擦柱孔)이 있고 노반과 복발, 보륵이 남아 있다.

이 탑에서 특이한 것은 1층 탑신을 바치고 있는 양연이 새겨진 연화별석(蓮花別石)의 괴임석으로, 이러한 예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전대보다 유행된 것이다.

## 8) 봉산동 당간지주

원주시 봉산 2동 1146번지에 있는 당간지주로 높이는 4.3m이다. 1976년 6월 17일 강원도 유



용운사지 삼층석탑



봉산동 당간지주

형문화재 49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의 지명은 「구정(龜亭)」이라 하는데, 현재는 냇물이 약 100m 나가 있지만 70여년 전까지만 해도 냇물이 당간지주가 서있는 밀벼랑으로 돌아나갔고 그 벼랑에 거북이와 같은 넓은 바위가 있어 구정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당간지주가 서 있는 곳은 전하는 말에는 신라 시대 말기에 천왕사가 있었다고 한다. 6.25 때 한쪽 지주가 절단된 것을 1980년 4월 30일에 복원되었다.

서로 마주보는 안쪽 면과 다른 3면에도 장식이 없는 간소한 지주양식으로 지주 사이에는 방형의 간대석을 놓고 그 중앙에 둥근 간좌(竿座)를 설치하였다. 당간을 받는 간대석은 1.8×0.75m로 자연암의 양쪽을 지주 밑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파내고 지주석을 끼웠으며 그 윗면 가운데에는 간좌를 조출하였는데 둥근받침으로 동그랗게

테를 둘러 간(竿)을 끼워세울 수 있도록 둥근 구멍을 파놓았다. 두 지주의 단면은 한 변이 55cm의 정사각형이나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록 폭이 좁아져서 가운데가 뽕족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정상이 4분원형인 당간지주와는 다르다. 지주는 방형 석주형이나 모를 죽여 날카로운 감을 없애고 부드럽게 하였다.

봉산동 당간지주는 신라시대 이래의 일반형 당간지주로 간대나 지주의 형식과 조성수법으로 보아 고려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간대에서 1단의 원형괴임과 또 하나의 넓직한 괴임이 있고 두드러진 원형괴임이 각출되어 있어 정연한 간대임에 주목된다.

## 9) 왕녀복란태실비

원주시 태장 2동 우성 2차 아파트 자리에 있던 태실비로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태봉이 없어지면서 옮겨졌다. 1982년 11월 3일에 유형문화재 66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명산을 찾아 그곳에 태를 묻었으니, 이를 태봉이라 한다.

태실비는 전면에 「王女福蘭胎室碑」라 쓰고



왕녀복란태실비

뒷면에는 「成化貳拾貳年拾貳月貳拾玖日立」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 조선 성종의 딸인 복란공주(福蘭公主)의 태실비(胎室碑)임과 성종 17년(1486) 12월 29일에 세워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태실비는 비대(碑臺)·비신(碑身)·비두(碑頭)를 일석으로 만들었으며 비두에는 하엽(荷葉)을 씌워 장식하고 중앙에는 보주를 올렸다. 규모는 대석이 63×33×15cm, 비석이 53×22×94cm, 비두고가 39cm로 총고는 166cm이다.

비가 있던 원위치에 대한 개발로 인해 1992년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태실은 비석 뒷편 3m지점에 화강암의 풍화암반을 파고 화강암재 석함을 안치했으며 석함은 반구형의 뚜껑이 덮힌 원통형으로 총고 150cm, 경 90cm였다.

석함의 안에는 태를 담은 태호(胎壺)과 태지가 있었는데 이 유물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태지(胎誌)의 내용은 「皇明成化貳拾貳年拾月拾參日辰時生王女福蘭胎成化貳拾貳年拾貳月貳拾玖日藏」이다. 또한 석함 주변에는 백자호(白磁壺)와 토기호(土器壺)들이 2중으로 배치, 매설되어 있어 당시 왕가에서 태실의 조영에 매우 큰 힘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전하는 전설에 옛날 공주 보기가 소원인 임금이 공주를 낳게 되자 크게 기뻐하며 이곳에 태를 묻게 되어 마을 이름이 태

장이 되었다고 한다.

## 10)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원주시 봉산 1동 산 6-1번지 미륵암 있는 불상으로 1982년 11월 3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67호로 지정되었다. 바로 왼쪽의 천왕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나 출토 여부는 확실치 않다.

화강암 1석으로 조성한 보살상으로 목이 절단된 것을 보수해 놓았다. 머리 위에는 높직한 보관을 썼고 원만한 상호의 각부는 정제되었다. 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봉산동 석불좌상

도가 있어 자비스러우면서도 근엄한 인상을 하고 있다. 천의는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으며 옷주름은 두 발에 각기 5개의 U자문양으로 표시했다.

수인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은 배에 두었으나 신체에 비해서 팔은 가늘고 손은 작아 조화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보관이 익선관 형태인 점과 천의가 양쪽 무릎에서 각기 원호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며, 전체적으로 직립이면서도 뒤로 약간 제쳐진 동체를 하고 있다.

전고 1.95m의 중형석상으로 각 부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 11) 봉산동 석불좌상

원주시 봉산 2동 산 46-6에 있는 불상으로, 전하는 말에는 땅속에서 출토된 미륵불로 옛부터

영험이 많았다 한다. 1982년 11월 3일 유형문화재 68호로 지정되었다.

8각대좌와 광배를 갖춘 석불좌상으로 좌대 밑 부분이 묻혀있어 중대석 이상의 부분부터 확인 가능하다. 중대는 8각으로 각 면에 1구씩 팔부중상과 우주를 양각하였으며, 상대는 원형으로 그 중의 양련이 돌려져 있다.

광배는 주형거신광으로 꼭지로 갈수록 날씬하게 처리되었다. 두광은 일조의 양각된 원형의 선상에 5개의 연화를 배치하고 선내에는 화문을 두 줄로 장식하였다. 광배의 주연에는 화염문이 조각되었다.

좌상은 머리와 손이 많이 파손되었으나 동체는 완전하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둥글며 가슴도 비교적 넓고 앉아있는 모습 또한 안정되어 균형잡힌 형태를 보여준다. 팔이나 다리 등 신체 각부의 양감도 적당하며 탄력감까지 느낄 수 있어 통일신라 석불상의 특징이 잘 계승되고 있다.

통견(通肩)의 불의는 옷주름이 촘촘하면서 일률적으로 평행된 평행밀집의문(平行密集衣紋)으로 통일신라 말에 유행된 특징과 유사하지만 다소 형식화 되었다. 왼쪽 어깨에 가사를 고정시킨 고리장식이 있어 특이함을 보여준다.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왼손은 강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했던 것 같고 오른손은 가슴높이로 들었는데 수인이 확실치 않다.

이 불상은 광배가 완형이며 좌대의 상대석 양련이 도식적인 점에서 주목되며, 석불의 법의가 유려하나 부분적으로 심약해져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 석불좌상은 높이 1.75m의 중형으로, 각부의 조각으로 보아 신라 하대의 석불 특징을 계승한 고려초기의 석불상으로 추정된다.

## 12) 비두리 귀부 및 이수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959-6에 있는 귀부와 이



비두리 귀부 및 이수

수로 크기는 귀부가  $1.79 \times 1.53 \times 0.78\text{m}$ , 이수는  $1.46 \times 0.74 \times 0.7\text{m}$ 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1982년 11월 3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70호로 지정되었다.

이 조각품은 비신이 없이 귀부 및 이수만 남아 있다. 처음에는 문막면 후용리 용바위골에 있었으나 잠시 원주군 학성동 군부대 법당인 법웅사 앞에 옮겨 졌다가 1976년에 비두리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후용리 남쪽 2km되는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

귀부는 귀두가 왼쪽 뒤를 돌아보고 있고 등에는 6각형의 귀갑문을 조각하였으며 중앙에는 높은 비좌가 마련되어 있다. 이수는 밑부분에 양연을 조각하여 테를 둘렀으며 구름속에 몸이 뒤엉

킨 용 두마리가 서로 노려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섬세한 조각솜씨를 볼 수 있으며, 특히 귀두를 뒤로 돌려 몸에 붙인 모양이 특이하다. 비신이 없어 누구의 비석인지는 알 수 없다.

속칭 비두네미라 부르는 이곳은 옛날부터 질 좋은 화강암이 많이 나와 지금도 석조물의 산지이다. 거돈사지 승묘탑비를 세울 때에도 이곳의 석재를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 13) 김두한 가옥

김두한 가옥은 원주시 문막읍 건동리 252-4에 위치하며 1985년 1월 17일자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86호로 지정되었다.

이 가옥은 원주목사와 남원부사를 지낸 김탄행(1714~1774)선생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묘막이다. 이 가옥은 ㄱ자형의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ㄷ자형을 이루고 그 맞은편에 사랑채와 대문을 사이에 두고 수장 공간인 헛간 창고와 일부 방들이 ㄴ자형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는 ㄹ자형을 이루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주로 남자가 이용하는 사랑채의 공간과 여자가 이용하는 안채의 공간이 구성되어 전체의 가옥형태를 이루는데, 이 가옥에서는 사랑채의 주요 공간인 사랑방, 편문이 있는 대청 뒷마루가 있는 큰 사랑방이 안채의 부엌 전면에 접하여 있는 것이 특이한 평면 구성이라 하겠다.

바깥 마당에서 볼때 사랑채는 90cm 정도 높이의 잘 다듬어진 3단의 장대석 기단위에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60cm 정도 높이의 방형 주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워 건립된 홑처마 기와집이다.

정면에서는 3칸으로 좌측 1칸은 4짝 띠살문이 있는 마루방이고 우측 2칸은 방으로 구성되었으며, 마루방 후면으로는 사방 1칸인 온돌방을 배치하고 이 방 뒷면으로는 안채의 부엌과 접하고 있다. 또한 사랑채의 정면으로는 반칸폭으로 마루를 놓아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과의 완충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는 1단의 장대석 기단위에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1칸폭으로 옷방, 안방, 부



김두한 가옥

엍이 배치되고 이곳에서 사랑채와 접하고 ㄷ자형의 평면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붕은 팔작지붕에 홑처마이다.

건립연대는 약 240여년전이라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1936년에 크게 보수하였다고 하며 현재의 가옥주는 9대손이라고 한다.

## 14) 박종옥 가옥

박종옥 가옥은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641에 있으며 1985년 1월 17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87호로 지정되었다.

이 가옥은 주인의 말을 빌면 사랑채, 안채, 광채 등이 구성되어 ㄷ자형의 평면형태를 취한 가

옥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안채와 광채가 있고 외양간 등의 부속건물이 있다.

전체적으로 대지의 환경은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이 있고 그 후면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산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마을과 농토가 펼쳐져 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후방의 높은 위치에 자리잡은 좋은 집터라 할 수 있다.

안채는 40cm정도 높이의 2단 장대석 기단위에 방형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워 건립한 팔작기와집인데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2칸의 건너방을 배치하였다. 대청과 건너방 전면에는 90cm 폭으로 빗마루를 놓았는데 2칸의 대청 전면에는 각각 4짝 띠살문으로 들문을 달았다.

대청의 좌측으로는 전후면으로 길게 옷방, 안



박종옥 가옥

방, 부엌 등이 배치되어 전체가옥의 형태는 ㄱ자형을 하고 있는 5량집으로 옷방과 안방의 바깥편으로는 90cm폭으로 뿔마루를 두어 외부공간인 후정과의 연결공간을 놓았다.

이러한 형태의 가옥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안채의 좌측에는 전면 3칸, 측면 1칸으로 모임지붕을 한 광채가 있다.

이 가옥의 건립년대는 미상으로 건물의 배치와 맞춤구멍의 노출로 보아 이축한 건물로 집주인 박종옥씨의 말에 의하면 자재 자체는 200여년 이상 되었으나 60여년 전에 이곳에 이축하였다고 한다.

## 15) 보문사 청석탑

보문사 청석탑은 원주시 행구동 106번지 보문사(주지: 法性) 경내에 있다. 1985년 9월 13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103호로 지정되었다.

청석탑은 점판암을 탑재로 하였으니, 이와같은 석탑축조수법은 신라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유행한 것이다. 이 탑은 보문사지라고 전해오던 절터 위에 1970년경 현재의 절을 신축하던 중 땅속에서 출토되어 복원한 것으로, 현재는 탑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이 높이 1.2m정도의 화강암 기단을 만들어 그 위에 탑을 올려 놓았다.

탑은 현재 발견된 것 만으로는 5층으로 1~5층의 옥개석과 2·3·4층의 옥신, 상대갑석·하대갑석은 원래의 것이나 그밖에 나머지는 최근에 새로 만들어 복원한 것이다.

1~5층의 옥개석과 상·하갑석의 두께는 8cm 정도이며, 1층 옥개석의 너비는 47cm이고 5층 옥개석은 29cm로서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면서 알맞게 줄어들도록 하였다. 상대갑석과 하대갑석의 뒷면에는 면 모두 복련이 조각되었고, 그 중심에는 옥신받침이 있어 탑신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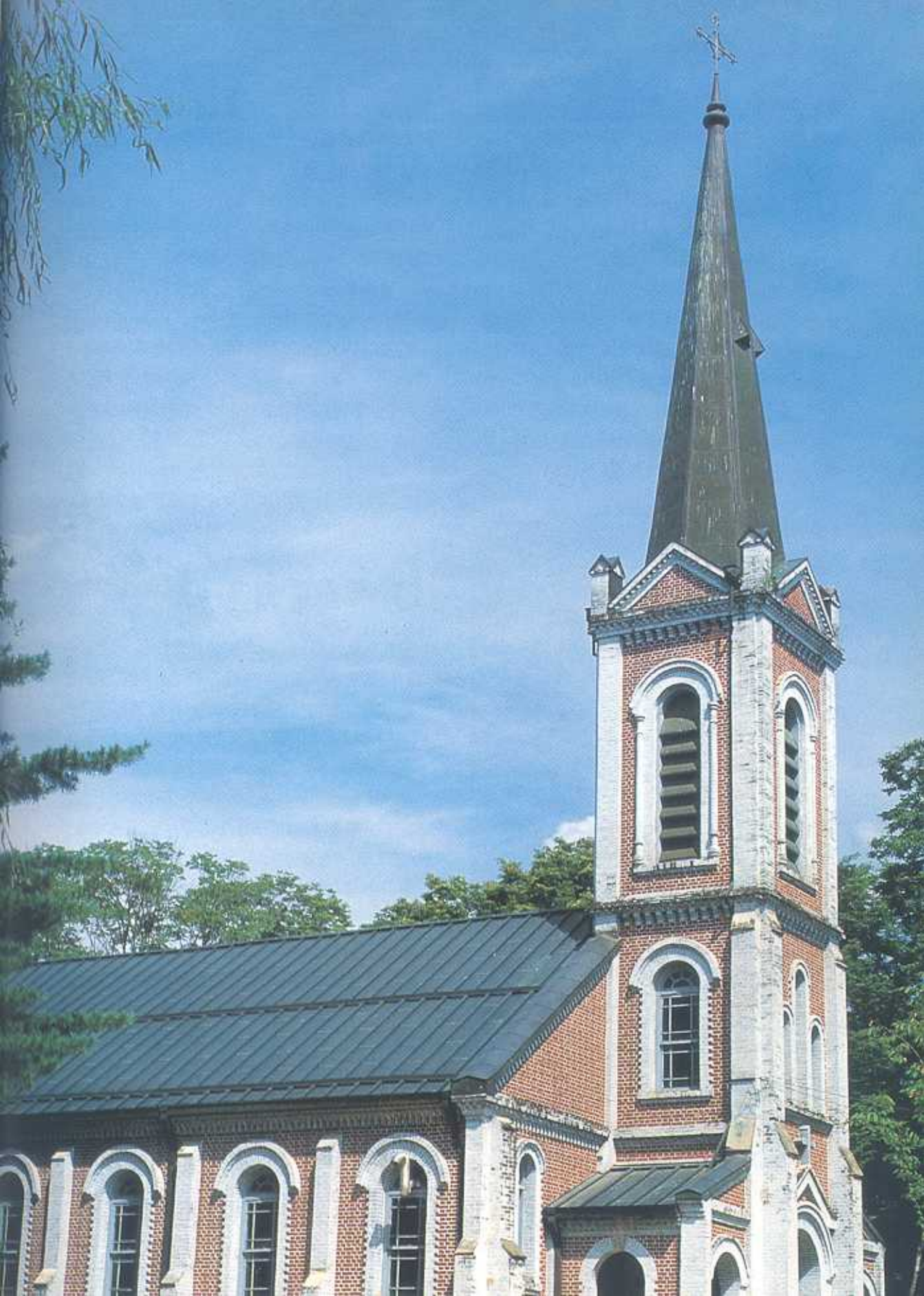
옥개석은 평박(平薄)하고 추녀 밑은 반전되었으며 받침 수는 각층 3단씩이다. 2·3·4층의 옥신은 두께 6cm정도로 4면에 범어가 2자씩 음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옥신에도 범어가 새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석탑은 마모가 심하고 파손된 부분이 많으며 상대갑석은 두 조각으로 깨져 있으나 고려시대의 청석탑 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탑이며, 이와 같은 청석탑으로는 해인사원당암다층석탑(海印寺願堂庵多層石塔) (보물 제 518호)과 금산사육각다층석탑(金山寺六角多層石塔) (보물 제 27호)이 있어 비교된다.

보문사는 치악산 국형사로부터 동남쪽 약 2km 위에 위치한 사찰로서, '보문'이란 뜻은 본래 석가여래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보문시현(普門示現) 원



보문사 청석탑



력홍심(願力弘深) 대자대비(大慈大悲)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라 했듯이 일체에 두루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보문이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관세음이라 했다. 그러므로 보문사는 불교에서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을 봉안한 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보문사는 옛날에 보문연사(普門蓮社)라 했으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 인근지역의 사찰에서 시주한 금액이 명기되어 있다.

현재는 옛 절터에 신축된 대웅전·산신각·범종각·용왕각·요사체가 있으며, 대웅전 앞에 청석탑이 세워져 있다. 또한 사중에는 옛부터 전해오던 보문암창기(普門庵創記)가 있다.

## 16) 용소막 성당

용소막 성당은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719-3에 1986년 5월 23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106호로 지정된 성당이다. 이 성당은 1915년에 건립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부홀골, 풍수원, 원주에 이어 네번째로 건립된 성당이다.

이곳에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은 제천(堤川)인 최석완으로 횡성 풍수원성당의 “루메루” 신부로부터 선교를 받고 용소막에 정착, 포교를 하며 1904년 4월 초가 10여간의 성당건물을 지었다.

그후 3대 신부인 프랑스인 자지레(Petrue Chijallet)에 의해 설계와 감독이 이루어져 중국인 기술자를 고용, 1915년 봄에 착공하여 그해 가을에 완공 하였다.

건물의 평면은 삼광식으로 목조 열주에 의해 본당 회중석(Nave)과 측랑(Aisle)이 구획되며 정면 중앙에 종탑부가 붙어 있고 그 하부는 개방된 입구(Porch)로써 제대부는 5각형으로 돌출되어 있다.

구조는 적벽돌 조적조로서 벽체에는 상부가 반원형인 개구부를 설치하고 창과 창 사이에는 부

벽을 붙여 세웠는데 부벽과 창 의 테두리는 회색 벽돌로 되어 있다. 본 건물은 이 시대의 성당건축의 일반적인 구조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첨탑의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내부의 천장은 회중석 부분은 반원형 아치이고, 측랑부는 평천장인데 기둥이 있는 부분마다 벽돌 줄눈을 표현한 목재골을 붙였다. 바닥은 널마루이며 벽은 회벽으로 마감하였다.

본 건물은 6.25때 일부 파손된 것을 후에 보수하였다.

# 6 문화재 자료

## 1 상원사 대웅전

상원사는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81번지에 있으며 대웅전은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18호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사찰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상원사는 치악산의 남쪽 남태봉 중턱인 해발 1,100m에 자리잡고 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과 신라말 경순왕의 왕사였던 무착선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도하던 중 문수보살에게 기도하여 관법으로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창건 이후 고려 말에 나옹이 중창하였고, 월봉(月峯)·위학(偉學)·정암(靜巖)·해봉(海峯)·삼공(三空)·축념(竺念)등의 선사

들이 이곳에서 수도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여러 왕들은 이 절에서 국태민안을 기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6.25 때 전소되어 폐허화 되었던 것을 1968년 당시 주지인 송문영법사(宋文永法師)와 의성보살(義成菩薩)에 의하여 중신복구되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과 심우당·심검당·범종각·산신각 등이 있으며, 대웅전은 전면 3칸(8.4m), 측면 2칸(5.3m)의 겹처마 팔작 지붕에 다포(多包) 집이다. 법당의 불상은 새로 봉안한 것이고, 석가래와 기둥 등은 모두 정연하며 두공부(料拱部)에 용두조각을 배치하여 주목을 끈다. 근년의 건축물로는 드물게 보이는 질서 있는 건축물이라 하겠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나란히 쌍탑이 있는데, 이러한 쌍탑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삼국통일후로서 왕성한 국력에 의하여 전국도처에 유행하게 되었다. 이 석탑은 신라 석탑의 정형을 따른 2중기단 위에 3층옥개를 형성하였으며, 상부 상륜부는 둥글게 연꽃봉우리 모양을 새겨 일반 탑에서 보기 어려운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대웅전의 좌측 탑의 바로 앞에는 화염문을 보이는 불상광배와 연화대석이 보여 본래 이곳에 석불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나 현재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절 뒤쪽 2백m 지점에는 높이 1m의 지극히 단조로우나 매우 오래된 부도가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무착선사가 수도중에 큰 뱀에게 잡아 먹히게 된 꿩을 구해 주었더니 한밤중에 종이 울리지 않으면 무착선사가 죽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꿩이 은혜를 갚기 위해 자기 몸을 부딪쳐 종을 울리고 죽으므로 생명을 구하였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꿩이 자기 몸을 내던져 울린 종소리가 후에 전국사리에서 울리는 기침법의 시초가 되었다는 얘기와 이런 연유로 산의 명칭도 본시 적악산이던 것을 꿩치(雉)자를 써서

치악산이라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2) 입석사 석탑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84에 있는 석탑으로 총고 2.2m이며 재질은 화강암과 점판암이다.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19호로 지정되었다.

입석사 석탑은 청석탑이라고도 하며, 조선 태종이 즉위한 후 어린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을 여러번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치악산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며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태종이 스승을 생각하며



입석사 석탑

세운 탑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이 탑은 입석사의 입석대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탑부재를 모아 입석대의 큼직한 암반위에 세워 놓았다. 현재의 각 부재로 보아 화강암부재와 점판암부재가 있으므로 2기의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탑의 높이는 약 2.2m로서 원형이 아니며 폐탑을 모아 쌓았으므로 부재가 결실되어 있다. 기단은 탑 면석으로 보이는 탑재들이 포개져 있고 그 위에 연화문을 새긴 점판암의 옥개석이 놓여 있다. 옥개석은 모두 5매로서 아랫쪽 3매에만 연화문을 새겼고 상부 2매는 일반 석탑에서와 같이

소문의 낙수면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 연화문 조각을 중간에 가진 옥개석의 하단부 1석은 일반탑에서 기단면석을 덮고 있는 갑석으로 조영된 듯하며 놓여 있는 하강석의 옥신석은 귀퉁이 기둥을 나타내는 우주를 모각하였는데 위의 2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입석사석탑이 탑의 원형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입석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조각을 갖춘 청석탑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연화문이나 탑신석들의 치석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특히 이 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3매의 청석탑 부재인데 고려시대에 이르러 유행을 보게 된 청석탑의 일례를 이곳에서 볼 수 있다.

### 3) 법천사지 당간지주

법천사지 당간지주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74-92에 있다. 총고 3.9m의 화강암 석질로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20호로 지정되었다.

법천사지는 완촌부락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간지주는 부락의 남쪽에 건립되어 있다. 주변 일대는 밭으로 변해져 있으며 이 당간지주는 석축을 쌓은 넓직한 대지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절에서 의식을 행할 때에 절 마당에 부처와 보살의 행적을 그린 당번을 높은 깃대에 다는데 이 깃대를 고정시켜 주는 지춥돌을 당간지주라 한다. 이 당간지주는 양 지주가 서로 마주보며 동서로 서 있는데 높이가 3.9m로 중형에 속한다.

표면에는 별다른 조식이 없으며 상단의 내측에는 당간을 고정시켰던 장방형의 간구가 있고 그 외면은 부드러운 호형을 이루고 있다. 당간을 받치던 원형의 간대가 원 위치인 양지주 사이에 잘 남아 있어 주목되며 그 중심에는 돌기가 있어 당



법천사지 당간지주



의민공사우

간을 놓도록 되어 있다. 건립연대는 고려 전반기로 추정된다.

이 당간지주에서 주목되는 것은 양주 상단의 부드러운 곡선과 돌기로 이루어진 간대이다. 보존상태는 좋으며 원형을 갖추고 원위치에 남아 있어 귀중한 문화재이다. 또한 지광국사현묘탑비와의 거리를 보면 법천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4) 김제남신도비

김제남 신도비는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413번지에 위치하며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21호로 지정되었다.

김제남은 (명종17년~광해군 5년)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 자는 공언이다. 아버지는



김제남 신도비

증영의정 오(禔)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상(常)의 따님이다. 선조 18년(1585) 사마시에 합격하고 선조 27년(1594) 의금부도사, 공조좌랑(工曹佐郎)을 거쳐 선조 29년(1596) 연천현감을 지냈다. 1597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601년 정언(正言), 헌납(獻納), 지평(持平)을 거쳐서 이조좌랑이 되었다. 선조 35년(1602) 둘째딸이 선조의 계비(인목왕후)로 뽑힘으로써 돈녕도정(敦寧都正)이 되고 책비(冊妃)되자 영돈녕부사에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임진왜란 때는 선조를 호종하고 의주로 가다가 충도에서 병으로 남았다가 의병을 모집하여 평양성 탈환에 기여하였다. 1613년 이이첨(李爾瞻) 등에 의해 인목왕후 소생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했다는 공격을 받아 서소문밖 자택에서 사약을 받았으며 광해군 8년(1616)에 폐모론이 일어나면서 다시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아들 셋도 화를 입었고, 부인과 어린 손자 천석(天錫)과 군석(君錫)만이 화를 모면하여 부인은 제주도에 위리안치(圍離安置)되었으며 천석과 군석은 숨어 살았다. 1623년 인조반정 뒤에 관직이 복구되고 왕명으로 사당이 세워졌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의민(懿愍)이다. 묘는 복위된 후인 인조 2년(1624) 양주의 서산에서 지금의 안창리로 이장되었는데 신도비도 당시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원주에서 여주가는 길목에 문막면 동화리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이어지는 396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안창리 능골에 이르러 흥법사지가는 길 약 60m 지점의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이수 97cm×110cm×44cm, 비신 90cm×167cm×30cm, 귀부 85cm×215cm로 되어 있다.

귀부의 거북이 목을 우측 뒤로 돌려 비신을 보고 있는 것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며 거북 귀갑문을 새기고, 등 한복판에 비석을 세울

수 있게 획을 파고 그 획 언저리에는 복연문을 새겼다. 신도비 맞은편 길 건너에 「의민공사우(懿愍公祠宇)」라는 편액이 붙어있는 사당이 있고 사당 뒷산에 묘소가 있다. 신도비문(神道碑文)은 신흠(申欽)이 찬하고 심열(沈悅)이 썼으며 전액(篆額)은 김상용(金尙容)이 썼다.

## 5) 주포리 미륵불 및 삼층석탑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 산25-2에 있는 불교유물로 1984년 6월 2일에 강원도 문화재 자료 22호로 지정되었다.

황산사(黃山寺)는 신라 경애왕대(924~926) 건립된 사찰로 전해지며, 삼층석탑은 황산사 경내에 흐트러져 있던 탑재석을 모아 1970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원위치에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전고 2.8m의 소형탑으로 기단부는 없어져 자연암반을 이용하고 있다. 2매의 판석으로 짜여진 지대석 위에 별석으로 조성한 각형 2단의 괴임석을 놓고 3층의 탑신을 형성하였다. 3층의 탑신부는 각층의 옥신에 4우주가 조출되어 있고 탑신위에 두꺼운 옥개석이 올려져 있으며 옥개받침은 3단으로 높직하게 조출되었다. 낙수면은 평박하고 탑신받침이 약화되었으며 옥개석에 비해서 탑신이 세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부에는 아무런 괴임대도 없다. 각부의 양식으로 보아 건립연대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기단부가 생략된 점이 특이하며 옥개받침이 높직한 것도 주의를 끈다.

삼층석탑에서 1km쯤 미륵산을 오르면 정상에 동향(東向)한 암벽을 이용하여 거대한 마애불 1구가 조각되어 있으며 불상 바로 밑에 황산사가 보이고 주변 일대가 눈 아래로 굽어보여 운상계임을 느끼게 한다.

불상은 전고 약 10m인데 화사한 양연으로 겹겹이 중첩된 연봉형으로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좌상이다. 중심부에는 마멸로 인하여 조각이 희미하고 좌우 양단부만이 뚜렷하다.

상부의 얼굴과 어깨는 양각으로 소발의 머리 위에는 낮은 육계(肉髻)가 있고 네모진 얼굴에 눈, 코, 입, 귀 등을 크고 토속적으로 묘사하였다. 양쪽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두 귀는 길다랗고 목에는 삼도가 돌려져서 위엄이 있어 보인다. 법의는 통견인데 오른쪽 어깨부분의 암벽에 금이 가있고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동체부분에 두꺼운 청태가 끼고 마멸이 심하다. 결가부좌를 하고 왼손을 무릎 위에서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였는데 오른 손을 위로 올려 오른 뺨에 가볍게 대고 있다. 좌대도 조각이 된 것 같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전반기로 추정되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규모가 거대한 점과 화사한 연화좌이다. 상호 각 부가 큼직큼직하게 조각된 것은 불상 자체의 크기가 거대하기 때문이다.

## 6) 흥법사지

흥법사지는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있는 사지로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45호로 지정되었다.

흥법사지는 『고려사』 세가 태조 23년조에 「추칠월 왕사충담사(王師忠湛死) 수탑우원주영봉산흥법사(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 왕친제비



주포리 미륵불

문(王親製碑文)」이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 태조 23년(940)에 이미 홍법사라는 절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고 이는 홍법사가 신라때에 세워진 사찰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46 원주목 불우조에는 「홍법사는 건등산(建登山)에 있다. 절에 고비가 있는데 고려 태조가 친히 글을 짓고 최광운(崔光胤)에게 명하여 당 태종의 글씨를 모아서 모각하였다」라 하였고, 조선 초의 문장가인 서거정(徐巨正)의 시에는 「법천정하시제탑

(法泉庭下詩題塔) 홍법대 전묵타비(興法臺前墨打碑)」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홍법사는 신라때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거찰이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조선 성종 11년(1480)까지는 폐사되지 않았고 진공대

사탑비도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법사 폐사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폐사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약 만여평에 달하는 사지에는 삼층석탑 1기와 진공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이 있고 금당지로 보이는 대상에는 민가가 있어 축대석과 많은 유구(遺構)들이 흩어져 있다. 보물 제463호로 지정된 진공대사탑비 귀부와 이수는 사지의 서북쪽에

인접해 있으며 이수에는 「진공대사」라는 4자의 전액이 있어 진공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임을 알게 된다. 탑비의 비신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비문은 고려 태조가 짓고 최광운에게 명하여 당 태종의 글씨를 모아서 조각한 행서체의 집자비이다. 진공대사탑은 석관과 함께 보물 제36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31년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 경내로 이전되어 있다.

또한 홍법사지 중앙에 있는 삼층석탑은 높이가

3.69m, 지대석 폭 2.15m로 2중기단에 방형 삼층을 유지하고 옥개석의 받침은 4단으로 낙수면은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 그밖에 높이 약 3m, 길이 약 60m의 석축(石築)을 비롯하여 삼층석탑에서 약 10m 정면에 4기의 주초석이 장



홍법사지 석동부재

방형을 유지하고 있어 이곳이 본래 중문지(中門址)로 추측된다. 이곳 중문지에서는 정교한 용문, 연화문, 당초문 와당 등이 출토되었다고 하며, 그외에도 삼존불 와당도 출토되었다고 한다. 또 상당수에 달하는 소형의 말, 코끼리, 사자 등의 토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석탑의 서쪽 약 100m 지점에는 속칭 중샘 3개가 있고 이곳에 길이 150m 가량되는 하수구가 있다. 이 하수구는 사지를 가로질러 뚫려 있어 당시 거대하였던 홍

법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한편 흥법사지에서 옮겨졌다고 하는 염거화상탑(廉居和尚塔)이 있는데 이는 원소재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흥법사지염거화상탑(傳興法寺址廉居和尚塔)'으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국립박물관 경내에 있다.

## 7) 원주향교

원주시 명륜동 225번지에 있는 원주향교는 1985년 1월 17일에 문화재자료 98호로 지정되었다. 고려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오나 고증할 자료는 없고 다만 창건된 터는 현재의 향교터로 추정되고 있다.

『東國輿地勝覽』 원주목 학교조에는

“향교는 주의 서쪽 3리에 있으며 청풍루가 있다. 건문 4년에 목사 신호(申浩)가 세우고 유사눌(柳思訥)이 기를 지었다.”라고 하였으니, 건문(建文) 4년인 조선 태종(太宗) 2년(1402)에 향교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성균관의 대성전보다는 4년 뒤에 지은 것이나 지방의 향교로는 빠른 시기에 건축된 시설이다.

이후 선조 36년(1603)에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향교를 목사 이택(李澤)이 대성전을 중건하였다. 광해군 1년(1609)에 임취정(任就正)이 명륜당(明倫堂)을 중건하였으니, 상량은 이해 3월 19일에 했고, 이 공사의 목수는 최득지(崔得志), 김억지(金億只), 김명손(金名孫), 한신



원주향교 명륜당

(韓信), 조경환(趙敬歡), 채일이(蔡一二), 장만신(張萬臣), 문막내(文莫乃) 등이었다. 인조 9년(1631) 이배원(李培元) 목사가 중수를 시작하여 3년 후에 관찰사 이민구(李敏求)가 중수기를 썼으며, 1668년에 진사 윤억(尹億)이 유림 가운데 사리에 밝은 젊은이 10여명을 동원하여 명륜당과 동서재 등 부대건물을 착공 5개월 만에 준공하였다. 영조 10년(1734)에 원주목사 이우신(李雨臣)에 의해 대성전의 중건이 이루어졌고, 영조 25년(1749)에 명륜당이 중수되었으니, 상량은 이해 1월 20일이며 색리(色吏)는 김려한(金麗漢), 대목(大木)은 승 2인과 속인 4인이며 치장(治匠)은 조만흥(曹晩興), 우복(宇僕)은 이이천(李以天)·서영선(徐永善), 고직(庫直)

은 김시만(金時晩)·이담사리(李淡沙里)였다.

현종 5년(1839)에는 목사 홍치규(洪稴圭)가 대성전을 중건하니, 원주향교의 조사서(調查書)에는 홍치규(洪稴圭)가 통판(通判) 김후(金候)와 협의하여 제생들이 재물을 내어 성전(聖殿)과 양무(兩廡), 강당(講堂), 재사(齋舍)를 보수하여 새롭게 했고 정문(正門)은 새로 창건하였다고 되어 있다. 1923년에 원주 군수 이동진(李東鎭)의 「원주군문묘중수기(原州郡文廟重修記)」에 의하면 고종 9년(1872)에 판관 심영경(沈英慶)이 향교를 중수하였다고 하나, 그 공사의 규모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1905년의 향교 중수 또한 공사 규모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원주향교 대성전

「원주향교연혁(原州鄕校沿革)」에는 1923년에 원주군수 이동진(李東鎭)과 군속(郡屬) 최양오(崔養吾)가 명륜당 중수에 힘썼고 이때 고병국(高炳國), 신규선(申圭善)이 협조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동진(李東鎭)이 찬한 「원주군문묘중수기(原州郡文廟重修記)」에 의하면 1920년 가을에 원주 군수로 부임해 온 신규선(申圭善)이 부임 3일만에 문묘를 배알하고 그 퇴락함을 보고 중수한 것을 결의하고 군내에서 비용을 모아 1년만에 착공하고 그뒤 5개월이 지나도록 준공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자 그 후임으로 온 군수 이동진(李東鎭)이 원주 선비 고병국(高炳國)의 5천금의 희사를 얻어 1923년에 미완성된 명륜당의 중수를 마쳤다.

1970년에는 6·25때 퇴락된 향교를 김용운(金龍雲) 원주시장에게 50만원의 보조를 받아 권봉수전교(權鳳洙典校)가 이승춘(李承春) 총무장의(總務掌議)의 협조로 서무(西廡)와 원장(垣牆)의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1971년에 국비 150만원으로 대성전의 단청과 번외공사가 실시되었다. 1986년 이승춘전교(李承春典校)가 김영진지사(金榮珍知事)와 조성운시장(趙誠雲市長)의 협조로 지방비 3,200만원으로 대성전이 중수되었고, 1987년에 지방비 6,600만원으로 명륜당을 중수하고 서무(西廡)를 복원하였다.

현재 원주향교에는大成殿(1棟, 26坪), 明倫堂(1棟, 21坪), 東西廡(2棟, 22坪), 東齋(1棟, 13坪), 西齋(1棟, 3坪), 外三門(1棟, 4坪), 守僕室(1棟, 10坪)이 있다. 건물의 배치는 맨 안쪽 중앙에 대성전, 그 좌우에 동서무(東西廡)를 배치하고, 대성전 앞에 명륜당을 두고, 이 앞의 좌우에 동서재를 두었다. 수복실은 동재 옆에 있으며, 외삼문은 명륜당 앞쪽에 세웠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정위(正位)로 한 증자(曾子), 안자(顔子), 자사(子思), 맹자(孟子)의 5聖位와 송조 6賢인 주자, 정자와 우리나라의 18

賢을 봉안하고 있다.

원주향교에 전해지는 문류는 5종으로, 「상량문(上樑文)」은 「萬曆三十七年 己酉三月十九日庚子上樑」이라는 기록과 대목(大木) 최득지(崔得志), 김억지(金億只), 전명손(全名孫), 한신(韓信), 조경환(趙敬歡), 채일이(蔡一二), 장만신(張萬臣), 문막내(文莫乃)로 기록되어 있을 뿐 상량문의 본문은 없다.

「明倫堂上樑文」은 「崇禎甲申後再己巳正月二十日己巳丁卯口上樑重建」이라는 기록과 색리(色吏) 김려한(金麗漢), 대목(大木) 승지는(僧智恩), 김선보(金善保), 승담성(僧淡成), 조수성(趙守成), 심천기(沈天起), 정철석(鄭喆碩), 치장(治匠) 조만홍(曹晩興), 수복(守僕) 이이천(李以天), 서영선(徐永善), 고직(庫直) 김시만(金時萬), 이담사리(李淡沙里)로 당시 명륜당 중건에 참여한 목수나 장인들의 이름만이 보일 뿐 상량문 본문은 없다.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는 1839년에 향교를 중수하고 쓴 중수기, 본문중에 「余於按節之後祗謁聖廟」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강원도 관찰사 홍치규(洪耜圭)의 글이다.

홍치규(洪耜圭)가 처음 부임하여 문묘배알을 마치고 향교를 돌아보니 퇴락이 심하기에 중수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제생들이 한결같이 경비가 없음을 말하였다.

이때 통판(通判) 김후(金候)가 재물을 내니 제생들도 각기 힘을 합하여 중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착공한 지 몇 달 아니되어 준공을 보게 되었고, 이때의 공사로는 대성전과 동서무, 명륜당, 재사를 중수하고 정문을 새로 창건하였다.

「原州郡文廟重修記」는 한문중수기문(漢文重修記文)으로 1923년에 원주군수 이동진(李東鎭)이 짓고 원주군속 최양오(崔養吾)가 쓴 기문이다.

# 7 강원도 기념물

이 기문에 의하면 원주군수 신규선(申圭善)이 1920년에 원주 부임하여 향교를 중수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 1년이 되어 겨우 얼마간의 경비가 마련되어 공사를 시작하여 대성전과 동서무, 원장까지는 깨끗히 마치었으나 명륜당 일부의 중수를 마치지 못하고 전임하였다.

그뒤 이동진(李東鎭)이 후임 군수로 와서 남은 공사를 완결하려 했으나 경비가 부족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원주 선비 고병국(高炳國)이 5천금을 내어 이 공사를 마치고 아울러 향교의 제기, 제복 등의 비품도 함께 만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原州鄕校重修記」는 1987년에 향교 총무장의(總務掌議) 김동설(金東肅)이 찬하고 재무장의(財務掌議) 이병구(李秉九)가 쓴 기문으로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다. 이 기문에 의하면 원주향교는 6·25때 동서재와 동무가 병화로 소지되었고 대성전과 명륜당은 회진은 면했으나 전란 중에 훼손이 심하였고 이들 건물은 전란 중에 피난민 수용소로 쓰였다.

그동안 몇번의 중수를 한 끝에 전교(典校) 이승춘(李承春)이 시장 조성운(趙誠雲), 지사 김영진(金榮珍)의 협조로 1986년 국비 3,200만원으로 보수를 시작한 이래 연차적으로 국비 6,600만원을 들여 중수를 마친 내력을 적고 있다.

최근에는 행해지는 석전제에는 초헌관(初獻官)에는 그 지역 시장이나 군수가 되고 아헌관(亞獻官)에는 직원이, 종헌관(終獻官)에는 원로유림이 맡은 전례에 따라 원주 향교에서도 시장과 군수가 윤번으로 초헌관이 된다.

## 1 영원산성

영원산성은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산 50-2에 위치한 산성으로 1979년 5월 30일에 강원도 기념물 27호로 지정되었다.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조에 「…… 경복 원년임자(景福元年壬子) 투조원적양길(投兆原賊梁吉) 길선우지위임이사(吉善遇之委任以事) 수분병사동략지(遂分兵使東略地) 어시출숙치악 산석남사(於是出宿雉岳山石南寺) 행습주천내성 울조어진동현개강지(行襲酒泉柰城鬱鳥御珍等懸皆降之)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삼국시대에 궁예가 이 성을 근거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려 충렬왕 17년(1291)에 함단이 침입해 왔을때 원주의 향공진사(鄉貢進士) 원충갑(元冲甲)이 10여차례에 걸쳐 적을 무찔러 이 성을 지켰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는 원주목사 김제갑(金梯甲)이 이 성에서 왜장 길성중강(吉盛重降)의 군대를 맞아 격전분투 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어 아들 시백(時伯), 부인 이씨와 함께 순절하였다고 한다. 이 성에 대한 명칭은 '영원'이라고 하는 한글 발음은 같으나 한자표기가 「영원(靈原)」(세종실록지리지), 「영원(鵠原)」(여지도서), 「영원(鈴原)」(연려실기술), 「영원」(중원문화권유적정밀조사보고서) 등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

영원산성은 영원사 뒷편의 산능선을 따라 석축된 성이다. 이곳은 영원사 옆에 있는 작은 계곡천을 건너 능선을 따라 약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도착하는데 성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약 120m

정도 더 가면 완전히 남아 있는 성곽이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남동쪽으로 멀리 남대봉이 바라다 보이며 북쪽으로는 향로봉이 위치하고 있다. 성은 대략 해발 700m~900m에 이르는 높은 곳에 축성되었는데 『여지도서』를 비롯한 기타의 문헌에 주위가 3,749척(약1,136m)으로 나와 있으나 현재는 동쪽 성축이 약 900m, 서쪽 축성이 1,020, 북쪽 연성축이 60m로 총 1,980m의 축성이 남아 있다.

영원산성은 중앙부에 작은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계곡 양편 산록이 험준하여 축성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성곽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편성축이 끝나는 곳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바로 반대편의 동편성축이 시

작되는 지점으로 지형이 매우 험준한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46 원주군 고적조에 성내에 우물 1개소와 샘이 5개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성의 인쪽은 성곽 바깥쪽이 험지인 것과는 달리 비교적 넓은 완만한 경사지가 발달해 있어서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영원산성은 금대산성과는 달리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축성한 것이 특징이며 금대산성이

원주와 제천간의 길목에 위치하면서 전투적인 이용목적에 비중을 두고 축성한 성이라고 한다면 영원산성은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열세의 전력으로 적군에 대항하기 위한 피란목적에 비중을 두고 축성된 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학곡리 황장금표

황장금표는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산34에 있는

구룡사 입구에 있으며 1979년 5월 30일에 강원도 기념물 30호로 지정된 표석이다.

이 금표는 황장목 봉산(封山)(널판지로 사용하는 품질 좋은 큰 소나무가 있는 국가지정 보호 국유림)의 경제표지로서 황장목 금양을 위



학곡리 황장금표

하여 일반인의 도벌을 금지하는 경고표시로 설치된 것이다.

옛부터 왕실에서 소요되는 각종의 필수품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가운데 가장 양질의 것을 진상케 하였는데 황장목도 그 중의 하나이다. 황장목이란 나무의 수심 부분에 색이 누렇게 몸이 단단한 질이 좋은 소나무로서 그 용도는 다양하나 여기서는 주로 궁에서 신관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목을 말한다. 일종의 보호림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금표제도는 「왕조실록」·「속대전」형 전 금표조 등에 의하면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특히 강원도에 관한 기사를 보면 영동지방이 영서지방보다 적지인 것 같으나 아직 영동지방에서는 황장금표에 관한 흔적이 없다.

치악산은 질 좋은 소나무가 많을 뿐 아니라 강원도영이 가까와 관리에 유리하며, 한강 상류에 자리하여 뗏목으로 한양까지의 운반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조선초기에는 전국 60개소의 황장목 봉산 가운데서도 이름난 곳의 하나였다. 종래에 원주지역의 황장금표는 치악산 구룡사로 들어가는 입구(매표소) 왼쪽의 바위에 새겨진 것만이 알려져 왔으나 1993년 7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조사한 강원향토사연구회 조사단(단장 원영환)에 의해 한곳이 더 발견되었다.

즉 구룡사 입구에 주차장에서 도로를 따라 100여미터 아래로 내려오다 좌측 언덕 아래로 비포장 구로가 있는데 이 도로옆에 1개가 더 있다. 원래의 금표는 폭 110cm, 높이 47cm, 둘레 270cm 크기의 자연석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장금표'라 새겨져 있는데, 각자의 크기는 대략 가로 11cm, 세로 14cm이다. 새로 발견된 금표는 흙속에 일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고 24cm×25cm의 공간에 "황장금표"라 새겨져 있다.

### 3) 법천사지

법천사지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 70에 있는 사지로, 면적은 1,500m<sup>2</sup>이며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기념물 48호로 지정되었다.

법천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져 고려시대에 크게 융성한 사찰로서 고려중기 불교의 양대교단(兩大敎團)이었던 법상종과 화엄종 가운데 법상종 유식종계의 사찰이었으며 현재는 폐사된 채로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명봉산에 자리잡고 있다.



법천사지

법천사는 고려 문종 때 지광국사가 머물면서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조선 초기에는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이 머물면서 강학하였는데, 이때 한명회(韓明澮)·서거정(徐居正)·



권람(權攄)·강효문(康孝文) 등이 수학하였다.  
그 뒤의 역사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으나 임진왜  
란 때 전소된 뒤 중창되지 못했다고 한다.

사지에는 사찰 등이 건물은 남아 있지 않고 석

조물로 고려 선종 2년(1085)에 건립된 지광국사  
현묘탑 1기와 당간지주 그리고 1965년 발굴에 의  
해 출토된 불상광배·불두·파불·배례석·연화  
문대석·용두·석탑재 기타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조물 등이 탑비전지 옆 요사지에 놓여 있다.

옛 법천사 경내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주변 일대에는 민가가 들어섰고 대부분이 농경지로 변했으며 부락의 민가안에는 장대석의 석축과 탑의 부재 등을 볼 수 있다.

아늑한 야산에 자리잡은 탑비전지는 약 4m의 축대를 쌓아 올리고 100여평의 대지에 대석과 주초가 완존해 있어 중앙에 본전과 좌우에 요사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본전은 주초석으로 보아 전면 3만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앞마당에 화강석재의 판석이 놓여 있어 바닥에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전 앞에는 지광국사현묘탑비가 섬세한 조각을 지닌 채 귀부의 위에 서 있다.

이 비는 현재 국보 제5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려 선종 2년(1085)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정유산(鄭惟産)이 찬하였고 안민후(安民厚)가 글씨를 썼다. 사실적으로 조각된 귀부의 귀두는 정면을 향하였고 등에는 중곽갑문(重廓甲文)이 정육각에 가까우며 내공에 '왕'자를 양각했다. 귀부와 비두(이수)가 화강석임에 비해 비신은 점판암으로 되었고 비면에는 정간을 넣어 명문이 더욱 정제되었다.

또 비면 주위에는 아름다운 화문을 돌렸고 좌우측면에 각각 두 마리의 비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모습을 양각하였다.

이 탑비와 동형의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는 경기도 개풍군(開豐郡) 영남면(嶺南面)의 현화사비(玄化寺碑)와 경기도 안성군의 칠장사 혜소국사비가 있다. 이들은 시대적으로 앞서고 있으나 조각에서는 단연 지광국사현묘탑비가 우수하여 11세기를 대표하는 정점에 도달한 수작이라 할 수 있다.

탑비 옆에는 국보 제101호로 지정된 지광국사현묘탑이 있었으나 1915년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져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있다.

이 부도는 조각양식 등이 우수하여 일제강점기에 일본 대판까지 반출되었다가 국내 여론에 의해 반환되었으며 6·25때는 포탄에 피해를 입어 1957년에 보수되는 등 원위치를 떠난 이후 많은 수난을 겪었다. 이 부도의 독특한 점은 일반형의 부도양식인 8각원형의 기본형태에서 벗어나 평면방형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을 이룩하여 한국 묘탑 가운데 최대의 걸작을 이룩했다는 점에 있다.

탑의 각부에는 조식이 가득하고 특히 지대석 네 귀퉁이에 용의 발톱모양을 조각하여 지면에 밀착된 점은 탑의 견고성과 안정을 더해주고 있다.

상층갑석에는 화려한 장막형이 4면에 드리워져 장엄하게 표현되었고, 또 각면에 안상·운문·연화문·초화문·보탑 등이 빈틈 없이 조각되었다.

옥개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불·보살·봉황 등이 복잡하게 조각되었고 상륜부도 복발·보륜·보개·보주가 층층이 조각되어 고려시대 탑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대 최고의 걸작이다.

법천사지에서 남쪽의 경작지 한 가운데는 화강암으로 된 원형의 당간지주가 서 있는데, 이는 당시의 법천사의 규모를 대변하는 유물이다.

이 당간의 양식은 대체적으로 둔중하고 우람한 모습으로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인다.



# 8 천연기념물

## 1 성남리 성황림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 191에 있으며 1962년 12월 3일자로 천연기념물 9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성황림은 치악산 남대봉의 남동쪽 큰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림면 소재지에서 6km 동북방 성남계곡의 도로변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온대낙엽수림이다.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하계에 편재해 있으나 온도 변화가 비교적 명백하여 계절변동을 잘 나타냄으로써 식물의 종류 조성도 풍부하며 동계와 하계의 경관격차가 큰 편이다.

이러한 온대낙엽수림은 옛날에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추어 찾아 볼 수 없다.

이 지역이 특징있는 숲으로 남은 것은 성황림으로서 부락의 수호신을 모시는데서 비롯돼 왔다 고 본다.

이곳의 주요 수종은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이며 그중에도 복자기가 우점종으로 돼 있다.

읍나무, 졸참나무, 층층나무, 피나무, 가래나무, 쪽동백나무, 들메나무, 소나무, 야광나무, 귀룽나무, 옻나무, 산돌배나무, 박쥐나무, 느릅나무, 산딸나무, 개암나무, 고로쇠나무, 오갈피나무, 팥대거리, 난티나무, 고추나무, 두릅나무, 복분자딸기, 찔레, 산초나무, 보리수나무, 으름덩굴, 노박덩굴, 사위질방, 신나무, 누리장

나무, 올피불나무, 신갈나무, 조록싸리, 개머루, 각씨피불나무, 큰꽃으아리 등이 4.5ha의 넓이에 흩어져 있다.

이 지역의 양쪽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습기를 공급하고 있어 식물의 생육조건에 적절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 부락 사람들은 마음의 지주로 치악산의 성황신을 수호신으로 삼고 100여년간 내려 오며 매년 음력으로 4월 8일, 9월 9일에 정기적으로 성황신 제제를 지내왔다.

최근에 와서는 제제관습은 사라졌으나 동민들의 단합과 사라져가는 수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의 입장에서 수호하고 있다.

## 2) 반계리 은행나무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1495, 1497에 있는 은행나무로 1964년 1월 31 천연기념물 167호로 지정되었다.

이 은행나무는 문막면 반계리 반계국민학교 부근의 42번 국도상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33m, 둘레 14.4m, 면적 100평의 수령 80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나무이다.

이 나무는 옛날 한 도사가 이곳에 이르러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는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쫓아 놓고 간 것이 성장한 것이라고 전하며, 전설에는 이 나무속에 백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있어 아무도 나무를 다치지 못하는 신목으로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다.

1929년 조선 총독부에서 현지 조사후 거목대장에 등재하고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했다.

용문사 은행나무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는 이 나무는 예전부터 나무가 일시에 단풍이 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전해지는데 현재까지도 이를 믿는 사람이 많으며 또 서리가 내리며 나뭇잎이

언제 어떻게 지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시에 떨어져 신기함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약 200년전 화재를 당했었으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 3) 대안리 느티나무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303에 있는 느티나무 1982년 11월 4일에 천연기념물 279호로 지정되었다.

이 나무는 대안리 거무산마을의 전답지에 위치하고 있다.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지가 원산지다. 키

는 약 25m정도 자라며 잎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길이 2~13cm이다.

내한성이 강하며 성장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고 몸집이 크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의 외부 윤곽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수관 폭이 넓어서 정자목, 녹음수로 이용되며 가을이 되면 황적색의 단풍으로 더욱 아름답다.

이 흥업면의 느티나무는 수령 350년, 수고 22m, 가슴둘레 7.6m에 이르는 원주군내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의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대안리 느티나무

# 9 사적

## 1 거둔사지

거둔사지는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59에 있으며 규모는 약 7,500여평으로 11966년 12월 19일 사적 168호로 지정되었다.

거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이 시대 사찰로서는 보기 드문 일탑식 가람배치(伽藍配置)를 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원주목 불우조에 「거둔사재현계산유고려최충소찬승승묘비(居頓寺在玄溪山有高麗崔冲所撰僧勝妙碑)」라는 기록이 있어 거둔사가 위치한 산명이 현계산(玄溪山)임을 알 수 있고, 가람이 건립이 신라시대였음을 사지에 남아있는 삼층석탑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폐사된 연기는 불명이고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는 기록으로 보아 1530년까지는 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지는 산간 작은 골짜기를 끼고 펼쳐진 정산리 일대 약 7,500여평으로 사지내의 중앙부에는 중문지가 있으며 중문 앞에 축대가 있고 중문 좌우에 회랑지가 동서로 나아가 다시 북으로 꺾여 강당지 기단과 연결된다. 중문지 북쪽에는 신라석탑의 전형양식으로 된 삼층석탑이 있고 탑 북쪽에 금당지가 있으며 그 뒤에는 강당지가 있다.

금당지에는 전면 6줄, 측면 5줄의 주초석이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20여칸의 대법당이였으며 중앙에는 높이 약 2m의 화강석 불좌대가 있다. 좌대의 높이로 보아 금당에 봉안되었던 불상은 좌불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당지 앞에는 훌륭한 석탑 1기가 있어 당시 사격을 갖춘 명찰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삼층석탑은 이중기단에 우주와 탱주를 보이며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5단이며 상륜부는 노반과 양연이 조각된 1석이 보인다. 금당지의 좌측 옆에는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크기는 135×58cm의 판석으로 전면에 3개, 측면에 하나씩의 안상을 조각했고 상부 중앙에는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삼층석탑으로부터 동쪽 약 80m 지점에 원공국사승묘탑비가 있다. 이 탑비는 보물 제7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문은 고려 문종때 대학자로서 해동공자라고 불리웠던 최충(崔冲)이 지었고, 글씨는 김거웅(金巨雄)이 썼다. 귀부의 중곽갑문(重廓甲文)은 정육각에 근사하며 내공에 만(卍)자와 화문을 교호하여 양각했고 비좌 4면에 안상을 부조하였다.

원공국사는 고려 태조 13년(930)에 출생하여 현종 9년(1018)에 거둔사에서 입적한 고려 초기의 고승으로서 휘(諱)는 지종(智宗), 자는 신칙(神則)이며, 속성은 이씨로서 전주인이다. 8세 때 사나사(舍那寺)의 홍범삼장(弘梵三藏)에게 낙발득도(落髮得度)하였고, 홍범삼장이 돌아가자 광화사의 경철화상(景哲和尚)에게 수업했다. 정종 원년(946)에 영통사의 관단에서 구족계를 받고 광종 4년(953)에 희양산(曦陽山) 초선사(超禪師)에게 선을 참구하였으며, 광종 6년(955)에는 중국 오월(吳越)에 가서 영명사(永明寺)의 연수선사(延壽禪師)를 배알하고 심인을 받았다. 또 961년에 국청사 정광국사에게 대정혜론·천태교를 배웠다. 962년 본국에 돌아오자 광종은 대사를 금광선원에 있게 하고 뒤에 중대사로 삼아 마납가사(磨衲袈裟)를 내렸다. 경종 때에는 삼중대사가 되어 수정염주(水精念珠)를 내렸고, 성종 때에는 적석사(積石寺)에 주석하면서 호를 혜월(慧月)이라 했다. 성종 11년(992)에는 궁중에서 불법의 묘한 이치를 설하기

도 하였고, 현종 때에는 대선사로 삼아 광명사에 머물게 했으며 현종 4년(1013)에는 왕사가 되었다. 현종 9년(1018)에 현계산 거둔사에서 입적하니 세수가 89세, 법랍이 72세였다. 시호를 원공(圓空), 탑호를 승묘(勝妙)라 하였다. 이 탑신는 대사가 입적한 지 7년 후인 현종 16년(1025)에 건립되었고, 이와 동시에 건립된 대사의 비가 개성 광명사에도 있다고 하나 현황은 알 수 없다.

원공국사승묘탑은 탑비의 뒷쪽 기슭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이전되어 한때 일본인 화전염(和田稔)의 집에 있다가 1948년에 현 위치인 국립중앙박물관 경내로 옮겼으며 보물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팔각원당의 기단에는

16엽의 복연을 새겼고, 탑신 또한 8면이나 4면에 각각 사천왕상을 조각하고 그 사이에는 문호형을 부조하였다.

상부 옥개는 목조건물을 충실히 모방하여 연목이나 기와골과 더불어 기와까지 조출하여 고려시대 부도의 정형을 보이고 있다. 이 부도의 건립 또한 탑신기 건립되었던 현종 16년(1025)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지의 밑에 있는 정산국민학교 운동장에 길이 960cm, 폭 80cm, 두께 57cm의 거대한 미완성의 당간지주가 있다. 거둔사의 종풍을 찬양하기 위해 세우려던 것이었으니 그 옛날 거둔사의 영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920여년의 세월을 엮드려 있다.



거둔사지

# 10 인물

## 1) 원충감

원충감(1250~1321)은 고려의 무신으로 본관은 원주이다.

향공진사로 원주의 별초에 들어가 있다가 충렬왕 17년(1291) 합단적이 침입하여 원주성을 포위하자 전후 10차례에 걸쳐 적을 크게 무찔러 예봉을 꺾음으로써 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까지 무명을 떨쳤다.

중랑장·장군 등 여러 벼슬을 거쳐 삼사우윤(三司右尹)에 올랐다. 당시에 간신 오기(吳祈)가 충렬왕 부자를 이간하고 어진 신하를 모해하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원나라 사신인 단사관(斷事官) 침목아불화(帖木兒不花)에게 그의 처벌을 호소하였다. 1303년에 홍자번(洪子藩)과 함께 오기(吳祈)를 잡아 원나라에 압송하였으며, 충선왕 때 웅양군(鷹揚軍) 상호군(上護軍)이 되었다. 합단적을 물린친 공으로 충숙왕 6년(1319) 推誠奮勇定亂匡國功臣이 되었으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高麗史』 열전(列傳) 제17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원충감은 원주사람으로 체구가 짧달막하되 정력이 넘쳐 날쌔으며 눈동자가 번개처럼 빛났고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자기 일신을 돌보지 않았다.

그는 향공진사로서 원주의 별초(別抄)에 소속되어 있었다. 충렬왕 때에 합단(哈丹)의 침략군이 철령을 넘어 함부로 침입하게 되었는데 여러

고을에서는 그들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 모두 도망하였으므로 아무도 항쟁하는 자가 없었다. 적들은 원주에 와서 주둔하였는데 적들 중 50여명의 기병이 치악성 아래에 와서 노략질을 하였다. 원충감이 보병 6명을 인솔하고 가서 그들을 구축하고 적의 말 8필을 빼앗아서 돌아왔다.

적들은 도라도(都刺闍)·독어내(禿於乃)·발란(李蘭) 등의 인솔하에 군사 400명으로 다시 성 밑에 와서 녹전미(祿轉米)를 가져 가려고 하였다. 원충감이 결사대 중산(仲山) 등 7명과 함께 적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는데 중산이 먼저 적들 속으로 뛰어들어 한놈을 베고 형문(荊門) 밖까지 추격해 가니 적들이 안장 없는 말들을 버리고 달아났다. 방호별감(防護別監) 변규(卞奎)가 크게 기뻐하여 붙잡아 왔던 말 25필을 모두 그들에게 주었다.

적이 다시 와서 기치를 많이 펴 들고 성을 몇 겹이나 둘러싼 후 사절 한명을 보내어 글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라고 권고하였다. 원충감이 돌진해 나가서 사신을 쳐 죽이고 돌을 머리예다 매어 던지니 적들이 퇴각하여 공성도구를 많이 만드므로 성 안에서는 공포에 떨게 되었다.

적들이 또 포로되었던 여자 2명을 내세워 항복을 권고하였으나 원충감은 또 그들을 베어 버렸다. 적들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공해와서 모든 술책을 다하여 성을 공격하니 화살이 빗발치듯 하였고 성이 거의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에 흥원창(興元倉) 판관(判官) 조신(曹愼)이 성 밖에 나가서 적들과 싸웠으며 원충감은 급히 동쪽 봉우리에 달려 올라가 한놈의 목을 베었다. 그리하여 적들이 약간 문란해지자 별장 강백송(康伯松) 등 30여 명이 그를 협조하여 나섰으며 원주 아전 원현(元玄)·부행란(傅行蘭)·원종수(元鍾秀) 및 국학생(國學生) 안수정(安守貞) 등 100여명이 서쪽 봉우리로 내려가서 협공하게 되었다.

조신이 북을 칠 때에 화살이 그의 바른 팔꿈치를 꺾어 뚫었으나 북소리는 낮아지지 않았다. 적군의 선봉이 약간 뒤로 물러서자 뒤에 선 자들은 저 희끼리 짓밟으면서 퇴각하였다. 주병(州兵)의 힘을 합쳐 공격하니 그 소리는 산을 울렸으며 전투 후 10회의 전투에서 적들을 크게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도라도 등 68명을 베어 죽였으며 쏘아 죽인 적군의 수는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적들은 예봉을 꺾이었고 감히 공격과 노략질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여러 고을들에서도 굳게 방어하게 되어 비로소 적들을 경시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것은 모두 원충감에게서 얻은 힘인 것이었다.

원충감은 공로로 인하여 여섯번 전임하여 삼사우윤(三司右尹)으로 되었다. 당시에 오기(吳祈)는 간사하게 참소질을 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왕의 부자간을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충직하고 현량한 사람들을 모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면서 미워하였으나 모두 화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원충감이 50여명을 데리고 오기의 죄악을 심각하게 논하고 그를 원나라에 잡아 보내게 하였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오기의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충선왕 때에 웅양군(鷹揚軍) 상호군(上護軍)으로 임명되었으며 충숙왕 6년에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요청하기를 그에게 상을 주어 다른 사람들을 장려하도록 하자고 하였으므로 그에게推誠奮勇定亂匡國 공신의 칭호를 주었다.

그후 2년이 지나서 죽으니 나이는 72세였다. 그는 원대명(元大明)·원대재(元大材)·원대기(元大器)의 세 아들을 두었다.」

원충감의 묘소는 원주군 지정면 간현리에 있으며 정필(鄭弼)·설장수(薛長壽)가 그의 원주전투를 찬양한 시가 전해오고 있다.

怒虎雷鳴動地行  
北原遮斷萬民生

雷勵風飛號令行  
州民療得保餘生  
雄威獨掃千入陣  
長策能全百雉城

지축을 흔들은 성난 호랑이  
원주 백성을 다 살리었네.

우뢰같은 호령소리 바람에 날려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 내도다.  
무서운 위풍으로 전진을 휩쓸어  
백성을 길이 지켰도다.

## 2) 원천석

원천석(1330~?)은 고려말 조선초의 은사로 본관은 원주, 자는 자정(子正), 호는 운곡(耘谷)이다. 고려말에 정용별장(精勇別將)을 지낸 열(悅)의 손자이며 종부시령(宗簿寺令)을 지낸 윤적(允迪)의 아들로 원주원씨의 중시조이다.

어릴 때부터 재명이 있었으며 문장이 여유있고 학문이 해박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고려말의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개탄하면서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살았다. 이때 이름이 군적에 등록됨을 알고 부득이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지만 벼슬을 즐겨워하지 않고 이색(李穡) 등과 더불어 왕래교분하면서 세상을 개탄하며 살았다.

일찍이 조선 태종을 왕자 시절에 가르친 바 있어 기용하려고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태종이 그의 집을 찾아갔으나 미리 소문을 듣고 산속으로 피하였다. 왕은 계석에 올라 집 지키는 할머니를 불러 선물을 후히 주고 아들 형에게 기



원천석 묘소



원천석 묘갈

천현감(基川縣監)으로 임명하였으며 이 바위를 태종대라 한다.

그는 많은 시문과 시조를 남겼으니 시조로는 망한 고려왕조를 회고한 회고가와 충절가가 대표적이다.

홍망이 우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5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눈마저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던고  
굽은 절이면 눈속에 푸르르라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시문들은 뒤에 『耘谷詩史』라는 문집으로 모아져 전해온다. 이 문집에는 <전총재육도도통사최영(前冢宰六道都統使崔瑩)>이라는 시와 <왕부

교자이위신돈자손폐위서인(王父子以爲辛旽子孫廢位庶人)>이라는 시가 유명하다. 그의 현실 사상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대토지겸병으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탄식한 시가 있다.

波屋鳥相呼	허물어진 집터에 까마귀떼 까악 까악
民逃吏亦無	백성이 달아난 후 아전 또한 없구나
每年加弊瘼	해마다 민폐로 더해만 가니
何日得歡娛	언제 다시 즐거움 얻으랴
田屬權豪宅	문전옥답 모두 권세가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門連暴惡徒	대문마다 포악한 무리 늘어섰구나
子遺殊可惜	차마 어린 것을 가엾어라
辛苦竟何辜	괴롭고 애태로움이 무슨 죄일까.

그는 또 만년에 야사 6권을 저술하였으나 후대에 국사와 저축됨이 많아 화가 두려워 불살라졌다고 전한다. 원주의 칠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원천석묘소에는 ‘고려국자진사원천석지묘(高麗國子進士元天錫之墓)’라 쓴 비석이 있으며, 그 아래쪽에 허목(許穆)이 찬한 묘갈(墓碣)이 세워져 있다. 이 묘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은 원주인으로 성은 원(元)씨요 휘(諱)는 천석(天錫), 자는 자정(子正)이요, 고려국자진사이다. 고려 정치의 어려움을 당하여 은거해서 홀로 도를 행하면서 호를 운곡(耘谷)이라 하였다. 선생은 마침내 고려가 망함에 이르러 치악산에 들어가 종신토록 나오지 않았다. 태종이 여러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임금(元)은 그 의로움을 고상하게 여겨 일찍이 동유(東遊)할 때 그의 거처로 찾아갔으나 선생은 피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태종이 내려서 계석 위에 올라 거처를 지키는 노파를 불러 후사하고 선생의 아들 형에게 기천현감(基川縣監) 벼슬을 주었다. 후인들이 그 계석을 이름하여 태종대라 하였다. 태종대는 치악산 각립사 근방에 있고, 지금의 원주 동쪽 10리 돌개이에 운곡선생 묘가 있으며 또 그 앞에 있는 하나의 묘는 부인을 장사 지낸 곳이라고 한다. 애초에 선생에게 장서(藏書) 6권이 있었는데 이는 망국의 고사를 기록한 것이다. 자손들에게 경계하여 함부로 열지 말도록 하였다. 전해지기를 여러 대가 지난 다음 어떤 후손 한 사람이 몰래 열어보고 크게 두려워 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족의 일이다”하고 이를 들어 불살라 버려 그 책은 전하지 않는다. 오직 남아 있는 시집이 있었으니 소위 이른바 시사이다. 내가 들은바 군자는 은둔하여도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하였는데 선생도 비록 세상을 피해 스스로 숨어 살았으니 세상을 잊지 아니하고 도를 지켜 변하지 않고 그 몸을 깨끗이 한 것이다. 백이의 말에 “옛날의 선

비가 치세를 만나면 그 소임을 피하지 아니하고 난세를 만나면 구차히 살지 않는다 하였으니 지금 천하가 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니 이것을 피해 나를 깨끗이 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그 전하는 말에 “날이 추운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게 시들어 짐을 알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청백한 선비를 알아 볼 수 있다.”고 했으며, 맹자가 이르기를 “백이는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고 치세인 즉은 나아가고 난세인 즉은 물러났으니 백이는 성인으로 청렴한 분이다.” 하였으니 선생은 백이와 견줄만한 분이다.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니 사당은 원주 북쪽 30리 칠봉에 있다. 그 족보를 상고하면 그 시조는 호장(戶長)인 극부(克富)이고 극부는 종유(宗儒)를 낳았고 종유는 창정(倉正)인 시준(時俊)을 낳았고 시준은 정용별장(精勇別莊)인 열(悅)을 낳았고 열은 종부시령(宗簿寺令)인 윤적(允迪)을 낳았고 윤적은 천상(天常), 천석(天錫), 천우(天祐)를 낳았으니, 천상은 진사(進士)이다. 혹 이르기를 조선에 와서 벼슬하여 현달하였다고 하나 상고할 길이 없고 천우는 현령이고 부인은 원(元)씨이니 종부령(宗簿令)인 광명(廣明)의 딸이다. 같은 원씨가 아니니 원주에 두 원씨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장남인 지(止)는 직장동정(直長同正)이고 차남인 형은 기천현감(基川縣監)이다. 선생의 후세 자손은 매우 많으나 기천현감(基川縣監)의 후예가 가장 많다. 찬하여 말하기를, 엄혈(嚴穴)에 사는 선비도 나아가고 물러남이 때가 있다. 끝내 세상에 참여하지 않으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몸이 욕되지 않았으니 가르침을 후세에 세운 것은 특 우(禹) · 직(稷) · 백이(伯夷) · 숙제(叔齊)와 한결 같으니 선생은 백대의 스승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전행사헌부(前行司憲府) 장령(掌令)인 양천(陽川) 허목(許穆)이 글

을 짓고 아울러 전액(篆額)을 쓰다. 외후손(外後孫)인 완산후인(完山後人) 이명은(李命殷)이 글씨를 쓰다.」

### 3) 김제갑

金悌甲(1525~1592)은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순초(順初). 호는 의재(毅齋)이다. 고려의 명장 방경(方慶)의 후손이며 진사 석(錫)의 아들이다.

명종 8년(1553)에 별시문과에 병과를 급제하여 명종 10년(1555)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가 되고 병좌좌랑·정언(正言)을 거쳐 선조 14년(1581)에 충청동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583년

에 우승지로 있으면서 도승지 박근원(朴謹元) 등과 함께 이이(李珥)·박순(朴淳)을 탄핵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났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장 삼길성(森吉成)이 거느린 왜군이 관동지방을 점령한 뒤 원주지방을 침공해 오자 원주목사로 있었던 김제갑(金悌甲)은 가족과 주민을 이끌고 영원산성(鵝原山城)으로 들어가 항전하였으나 왜군의 공격으로 결국 성이 함락되자 부인 이씨와 아들 시백(時伯)이 함께 순절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충절을 기려 1592년에 이조판서 겸 경연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의금부성균관 춘추관사로 추증하였고, 원주의 충열사와 괴산 화암서원에 제향되었다. 숙종 37년(1711)



김제갑 충열비

에 문숙(文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조선 현종 11년(1670)에 김제감 목사의 총열비가 세워졌으니,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력 임진년의 난리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흉적들이 향하는 곳마다 여리고울이 그 기세만 바라보고도 무너져서 능히 막아낼 자가 없었다. 그때에 공이 원주목사로서 의리에 분발하여 눈물을 씻고 군사와 식량을 모아서 영원산성에 근거하여 죽음으로써 지킬 계획을 세우고 충성과 의리로써 선비와 백성들에게 권유하였다. 정씨 성을 가진 선비가 본래 날래고 용맹스럽다고 하기에 공께서 함께 일을 하자고 권하니 정씨가 대답하기를 적의 형세가 심히 날카로우니 마땅히 나가서 피하였다가 기회를 보아서 도모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거늘 공께서 꾸짖어가로대, '너 같은 놈하고는 죽히 더붙어 피하지 못하겠다.'하고 뿌리치고 나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가로대, '나는 한번 죽기로 철심하였다.'하였다. 이에 지키고 싸울 준비를 더욱 갖추면서 주야로 성안을 몸소 순찰하니, 이때에 성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었다. 적이 멀리서도 공이 굳게 지키고 있음을 알고 먼저 한 사람의 사자를 보내어 항복하라고 유혹하고 또 협박하기에 공이 즉시 그 사자의 목을 베어 군중에 돌려서 보이니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내일에는 반드시 적이 크게 몰려와서 그 분풀이를 할 것이니 피하는 것만 같지 못하나 하거늘 공께서, '나라를 지키는 관리가 간다면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감히 피하자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베겠다.'고 하니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드디어 싸우자는 방향으로 정하여졌다. 이튿날 아침에 적이 과연 사방으로 크게 밀려와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하였다. 성안에서 또한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해가 한낮을 지나서는 화살도 떨어지고 힘도 다하여

성이 드디어 함락되니 군관 오항(吳杭)이라는 사람은 힘이 장사라 공을 등에 업고 피하고자 하니 공께서, '내 평생에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어 오다가 국난을 당하여 어찌 차마 사는 것을 흠치겠는가. 너희들이 피하는 것은 또한 옳다.'고 하였다. 드디어 조복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으니 화살이 날아와 등에 꽂혔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적이 다가와서 공을 잡고 절을 하라고 협박하였으나 공은 꼳꼳이 서서 굽히지 않고 꾸짖기를 그치지 않다가 드디어 해를 당하였다. 작은 아들 시백(時伯)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 곁을 떠나지 않다가 공과 함께 죽고 그 뒤를 따라서 부인 이씨도 또한 칼에 얹어져 죽었는데 그때 임신중이었다고 한다.

오항(吳杭) 등이 밤을 틈타 성안에 들어가 세분의 시신을 거두어 고현(高峴)이란 선비와 같이 주천 고울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다가 적이 몰려간 뒤에 비로서 여주에 정식으로 장사를 지냈다가 뒤에 다시 충주(忠州) 복성동(福城洞)으로 이장하였다. 성이 함락되기 20일 전에 큰아들 시현(時獻)에게 보낸 글월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다시 무엇을 하겠는가. 다만 커다란 절개를 잃지 않기를 기약할 따름이다.'라 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보니 과연 그 글과 같았다. 처음에 영원성을 지킬때 판서 이기(李璽)가 호소사(號召使)로서 원주 서쪽 지경에 있으면서 공에게 글을 보내 가로대, '비록 나라를 죽음으로 지켜 직분을 다 하고자 하나 성은 외롭고 형세는 급하니 어찌하겠는가. 모름지기 이곳으로 와서 나와 같이 함께 일을 하다가 여주와 원주지경에 형세를 보아서 나아가던가 물러나온 것이 옳다.'고 하였다. 공이 다시 답서를 보내 대의를 말하여 반드시 죽더라도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겠음을 보이니 이공(李公)이 다른 사람에 말하기를, '이 사람의 충성심과 분노가 이와 같으니 어찌 남이 바꾸어 놓겠는가. 아깝도다 그 죽음이어.'하고 탄식하여

마지 않았다. 한준겸(韓浚謙)이 원주목사를 임시로 대리하면서 관찰사에게 아뢰기를, '제가 생각해보니 변란이 일어난 후로 한 사람도 죽음으로써 국토를 지킨 이가 없었으나 오직 전에 목사로 있던 김공이 죽음으로써 성을 지키다가 온 집안이 해를 입었으나 그 뜻을 옮기지 않았었으므로 조정에서는 그 충절을 가상히 여겨서 이미 정경의 직첩을 주었으니 장사를 지낼 때에도 마땅히 우대를 해주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조정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아, 슬프도다. 공이 스스로의 지킴이 확실함은 아들에게 보낸 글에서 볼 수 있고 공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은 것은 이공의 말에서 아졌고 공의 절의가 높은 것은 한공의 보고서에서 증험할 수 있다. 한 성안에서 하루 사이에 아버지는 충성에 죽고 아들은 효도에 죽고 부인은 절개에 죽었으니 이것은 중국 송나라 조양발(趙昂發) 부부의 쌍절개와 중국 진(晉)나라 변호(卞壺) 부자가 함께 죽은 것을 겹했다고 하겠다. 목숨을 버려도 달라지지 아니하여 만대가 되도록 삼강의 표준이 되었으니 아마도 큰 절개에 임하여는 빼앗지 못한다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아내를 본받게 하고 집안을 다스린다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 차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만력 戊申年(1608)에 옛 정승 완평(完平)·백사(白沙)·일송(一松) 여러 공께서 출생한 마을에 정표문려(旌表門閭)를 세우도록 건의를 하여 이제 그 마을에 충신, 효자, 열녀의 정문이 서 있고 원주사람들이 또 그 분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니 이제 나라에서 충열사라는 호를 내리고 예관(禮官)을 보내 제사토록 하였다.

공의 휘는 제갑(梯甲)이요 자는 순초(順初)며 성은 김씨니 안동사람이다. 사람됨이 원철하고 큰 절개가 있으며 말이 적고 과묵하며 책 읽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호를 의재(毅齋)라 하였다. 문과에 올라서 청요직을 역임하고 세번씩이나 양도(兩道)의 안렴사(按廉使)가 되었고 원주목사가 된 것은 임금의 특별 명령을 받는 보외수령을 스스로 구한 것이다. 참관 시헌(時獻)은 그의 맏아들인데 후사가 없고 현재 영월군수 상중(尙重)은 곧 시백(時伯)의 손자이니 둘째아들의 맏이다. 지금 좌의정 허적(許積)과 목사 허질(許秩)은 그 분의 외손이다. 허질(許秩)이 또 원주목사가 되어서 그가 끼친 교화를 이으니 선비와 백성들이 생각하여 새겨 가로대,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곳에 죽기가 어렵도다. 오직 군자라야 생명을 버리고 의리를 취할 수 있으며 위급함을 당하여서도 보통으로 보며 충성심을 가다듬기를 시종 옮기지 않으니 신하는 충성에 죽고 부인은 정절에 죽고 아들은 효도에 죽어 만고에 삼강과 오류를 심었도다. 치악산이 동쪽에 우뚝 솟고 봉천이 서쪽으로 흐르니 선생의 이름과 함께 길이 갈 것이다.

원주사람 생원 정□형(鄭□衡)은 삼가 옛 어른들이 전하는 바를 모아서 그 전말을 기록하여 경건하게 쓴다. 숭정(崇禎) 병자년(丙子年) 뒤 35년 庚戌(1670) 3월에 세우다.」

1966년 6월 29일에 원주애국애족부활위원회에 의해 원주 역전에 김제갑(金梯甲) 목사(牧使) 충열탑(忠烈塔)이 충열비(忠烈碑) 옆에 세워졌으니, 높이는 5.8m의 화강암으로 19층 계단식으로 쌓았고 탑비문에는 김제갑목사의 충절을 기리는 박종화의 글이 새겨져 있다.

#### 4) 민공호

閔肯鎬(?~1908)는 한말의 의병장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서울 태생이다.

1897년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의 정교(正校)

를 지내고, 뒤에 춘천분견대로 전입하였다. 1901년에는 특무정교(特務正校)가 되고 원주 진위대에 전입되었다.

민공호는 사람됨이 강직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부하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공사가 분명하여 군대 통솔에 질서가 바르고 정연하여 따른 사람이 많았다. 사병이 군기를 어기면 의로써 다스려 다시는 어기는 자가 없었으며 가는 곳마다 민중을 모아서 애국의 강의를 하였으니 그 비장하고 무거운 태도에 감복치 않은 사람이 없었고 듣는 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인격과 덕망이 높았다. 그가 속해 있던 원주 진위대는 제5대대로 본대는 251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릉에 별도로 50명의 분견대를

배치하고 본대의 일부 병력은 여주에 배치되어 있었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일제침략을 총지휘하던 이등박문은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침략을 더 한층 굳히는 한편으로 비밀협약을 맺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려 하였다.

이해 8월 일제가 원주수비대를 해산하려 하자 8월 5일에 의병봉기를 하였다. 당시 대대장인 삼령(參領) 홍유성(洪裕聲)이 해산지시를 받으러 서울로 간 뒤 대대장 대리인 김덕제(金德濟) 정위(正尉)와 특무장교 민공호는 사병들과 함께 항전할 것을 계획하고 원주의 지방의병들과 연락하였다. 이윽고 8월 5일에 1천 6백정의 소총과 4



민공호 묘소

만말의 탄환을 일반 의병에게 나누어 주면서 봉기하니 원주 우편소, 군청, 경찰서 그리고 일본인과 그들의 가택을 부수면서 원주시내를 장악하였다. 이에 여주에 파견나간 파견병들도 합세하여 항일전선을 형성하니 당시 진위대 군인은 수백명에 불과했으나 원주시민들이 합세하여 600여명의 의병부대로 발전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서울 주재 보병 제47연대 소속의 2개 중대와 기관총 4문, 공병 1개 소대로 조직된 군대를 원주로 급파하여 의병진압에 나섰으나 기세를 막지 못하였다.

그뒤 의병부대를 많은 소단위의 의병부대로 편성하며 제천·죽산·장호원·여주·홍천 등지에서 유격전으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한 허준(許俊)·이경삼(李京三)·김만군(金萬軍)·고석이(高石伊)·김군필(金君必)·이한창(李韓昌)·한기석(韓基錫)·한갑복(韓甲復)·윤기영(尹起榮)·이강년(李康年)·변학기(邊鶴基)·조인환(曹仁煥)의 의병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였으며, 그 가운데 이강년의 부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었다.

1907년 8월 12일 약 200명으로 편성된 부대로 여주를 기습하여 경무부전소를 포위 공격한 뒤 이곳의 일본경찰과 가족들을 처단하였다. 이때 많은 지방민이 의병부대로 지원하여 수천명으로 되었으며, 연이어 이천·양근 일대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8월 중순 이강년과 같이 충주공략을 계획하여 22일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23일에는 충주를 공격하여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으나 점령하지 못하고 장호원으로 후퇴하였다. 9월 17일에는 약 600명을 2개 부대로 나누어 홍천을 습격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9월 10일에도 약 200명의 의병으로 재차 홍천을 기습하였다. 20일에는 춘천 남방의 정족(鼎足) 부근에서 약 300명의 의

병들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고, 23일에는 횡성 봉북사에서 약 350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격전 큰 타격을 입혔다. 그뒤 10월 26일에는 횡성 둔촌, 11월 27일에는 홍천 서남 양덕원, 12월 8일에는 원주 동북 작곡에서 결전을 벌여 맹위를 떨쳤다.

1908년 2월 29일에 일본군과 접전하였으나 의병 20여명이 사살되고 그도 사로잡혀 강림으로 호송되었다. 그날 밤 부하 60여명이 강림을 습격하여 탈출하다가 사살되었다.

민궁호가 거느린 의병부대는 당시 강원도 일대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의병부대로 강원도·충청도·경상도를 무대로 모두 100여회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962년에 건국 공로훈장 복장이 추서되었다.

민특무공 충혼탑은 원주시 봉산 1동 산 5번에



민궁호 충혼탑

있다. 1954년 당시 북부지구 경비사령관 권준장군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높이 5.5m의 4각 기둥식으로 되어 있다. 탑 전면 상층부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로 「民族英雄義兵隊長閔特務肯鎬公之墓碑」라 쓰여 있으며 후면에는 민공영전이라 하여 그의 애국정신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탑비 옆에 묘소가 있다.

## 5) 이은찬

이은찬(李殷贊) (1878~1909)은 한말의 의병장으로, 본관은 전주이며 일명 언찬(諺贊)·헌찬(憲贊)이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활발하며 지력이 뛰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원주 출신으로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

산을 계기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이해 9월 이구재(李九載)와 함께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해산된 군인 80명을 포함한 500명의 의병을 모아 문경으로 이인영(李麟榮)을 찾아가 대장으로 추대한 뒤 사방으로 격문을 보내 의병모집에 전력하였다.

그뒤 원주를 떠나 황성·지평·춘천 등지를 돌며 의병규합에 전력하면서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격문을 보내 양주로 집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양주에 집결한 의병들이 13도 의병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이인영을 元帥府十三道總大將으로 선출할 때 그의 중군장(中軍將)이 되었다. 의병연합부대는 곧 진격을 개시하여 서울을 공략할 계획이었으나 총대장 이인영(李麟榮)의 부친상으로 서울침공작전은 실패되었다.

의병연합부대는 1907년 12월에 소속부대를 거느리고 양근·포천 방면으로 이동하여 임진강유역에서 허위(許薦)와 손을 잡고 재차 임진강의 병연합부대를 편성한 뒤, 허위를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이 지역에서 크게 위세를 떨쳤다.

1908년 말 허위(許薦)와 김수민(金秀敏)이 일본군에게 잡혀 순국하자 이들 의병부대는 의병수가 적은 곳은 수십명, 많은 곳은 200명 내외의 집단으로 양주·포천·영평·연천·삭녕·금천·배천·연안을 잇는 선내 및 해상도서에서 유격전술로 전과를 거두었다.

1909년 1월 초순에 일본군의 압력이 심해지자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남방의 연안 도서지방으로 이동하여 1월 19일에는 야음을 타고 2척의 배에 분승하여 연평도 일본군 파견대를 기습공격한 뒤 중산도(甌山島)로 후퇴하였다. 2월 27일에는 3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양주군 석우리 북방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큰 타격을 입혔으나, 의병



이은찬 추모비

또한 수십명의 희생자가 있었다.

이후 간도로 들어가 정병을 양성한 뒤 보다 적극적인 항전을 계획하였으나, 이때 서울에 있던 박노천(朴魯天)과 신좌균(申左均)이 이 계획을 탐지하고 군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미끼로 그를 서울로 유인하였다. 그들의 말을 믿고 3월 31일 서울에 잠입하여 용산역에 나타났다가 잠복하고 있던 일본경찰에 잡혀 1909년 5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

33세로 생애를 마친 공의 유해는 심복 부하였던 박찬문(朴贊文)이 거두어 원주 봉산동에 안장하였다가,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원주애국유족회에서 이은찬의 충의와 애국심을 추모하기 위하여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이은찬이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질 때 남긴 사서시가 전해진다.

一枝李樹作爲船  
欲濟蒼生泊海邊  
寸公未就身先溺  
誰算東洋樂萬年

오얏나무 한가지로 배를 만들어  
만백성 건지고져 바다에 뗏다가  
품은 뜻 못 이루고 내 몸이 먼저 빠지니  
누라서 동양의 평화를 보존한단 말인가.



# 11 기타

## 1) 국형사

국형사(주지:石牛)는 원주시 행구동 98번지에 있는 사찰로 보통은 국향사(國享寺)라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 경순왕대에 무착대사에 의해 창건되어 고문암(古文庵)이라 하였고, 무착대사는 이곳을 호법대도량(護法大道場)으로 하여 불도에 정진하였는데 신통한 일이 많았다고 한다.

신라시대 창건이라고 하나 당시의 유적·유물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조에 태조는 이 절에 동악신(東岳神)을 봉안하고 동악단(東岳壇)을 쌓았으며, 매년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 고을의 원들이 모여 제향을 올렸다.

일설에는 조선시대 정종의 둘째 공주인 희희공주가 병을 얻어 백약이 효과가 없더니 이 절에서 백일기도하게 되었다. 하루는 공주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리라고 한 뒤 완쾌되었으므로 정종이 기뻐하여 절을 크게 확장하였다.

1680년 이후에 폐사되었던 것을 1907년에 벽하(碧河)와 응송(應松)이 중창하였으며, 1945에 자항(慈航)이, 1974년에는 주지 김용호(金龍浩)가 각각 중수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무애당·관음전·대방·요사체가 있으며, 문화재로는 진암당대선사영주탑과 그 옆에 파괴된 부도 1기가 있다.

또한 대웅전 북서쪽 100m 지점에는 봄과 가을에 호국대제를 봉행하는 동악단이 있다. 관음전







영천사 배례석

정면 3칸, 측면 3칸의 8각집이며 승방인 무애당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8각집이고, 이 밖에 요

사들도 모두 8각집이다.

다만 소형의 맛배집이 있으나 승려들의 기거처는 아니다.

국형사 주변은 약 100여년생 이상으로 추정되는 송림이 울창하게 차 있어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동반으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 2) 영천사

영천사는 원주시 태장 1동 122-1번지에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려 중엽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현재 그 당시에 조성된 유적·유물은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대웅전과 산실각, 요사채 등의



감원감영 청운당

건물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1968년경에 새로 세워진 것이다. 한편 이곳에서 1915년에 영천사지 보제존자사리탑(보물 제 358호) 2기가 서울로 옮겨져 현재 경복궁 경내에 보존되고 있다고 하나 이들의 원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8작집이며, 산신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이다.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장방형으로 이루어진 큼직한 연못과 그 쪽과 놓여 있는 장방형의 배례석으로 이들은 고려시대 초창시의 유적·유물로 추측되고 있다. 배례석은 1.23m×0.6m의 규모 전후면에는 4구의 안상이 있고 양측에는 2구씩의 안상이 있으며 상면에는 연화문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이 배례석의 용도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혹시 서울로 옮겨진 보제존자 사리탑과 관계가 있지 않나 추측된다. 연못은 주변상황으로 보아 오래된 연지로 추정된다.

### 3) 강원감영 청운당

청운당은 원주시 일산동 54-2의 선화당 옆에 있는 건물이다. 전하는 말에는 조선시대 강원감영에 부속되었던 건물로 아전들이 사무를 관장하던 건물이라고 한다.

청운당은 ㄱ자형의 집으로 맞대지붕이며 한식 골기와를 지붕에 얹었다. 장대석을 배열하여 기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건립되었으며 서쪽편에는 뿔마루를 만들었다.

원형 또는 방형의 주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으며, 한면은 정면 4칸, 측면 2칸이고 또 다른 한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뒷면은 모두 5칸씩으로 이루어졌다.

청운당은 ㄱ자집인 점과 뿔마루가 달려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정충각

### 4) 정충각

정충각은 원주시 개운동 산 4번지에 있으며, 조선 세조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元昊)의 충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숙종 25년(1699)에 판부사(判府事) 최석정(崔錫鼎)의 건의에 의해 세워졌다.

이 정충각은 6·25 당시 파손되었고 1970년 원주문화원에서 元氏종중과 함께 비석과 비각을 재건하였다. 현재 있는 정충각 현판에는 「忠臣觀瀾元先生旌忠之閣」이라 썼고, 비각 안에는 높이 2.2m, 폭 52cm의 화강암으로 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전면 상단에 「忠臣觀瀾元先生旌忠碑」라 쓰고 전면과 뒷면에 선생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정간공(貞簡公) 원호(元昊)는 태조 5년(1396) 4월 9일 병조참판(兵曹參判)이었던 원헌(元憲)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자허(子虛), 호는 무항(霧巷) 또는 관란(觀瀾)이며 본관은 원주이다.

15세에 이미 도학군자라 칭송되었고 세종 5년(1423)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청관현직(淸官顯職)을 차례로 지내어 문종 때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단종 1년(1453)에

수양대군이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의 대신을 죽이고 정권을 잡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원주 남송촌에 돌아와 세상과 등졌다.

세조 3년(1457)에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니, 영월 서쪽에 집을 지어 관란정(觀瀾亭)이라 하고 흐르는 물에 시를 읊기도 하고 문을 닫고 독서에 몰두했으나 마음은 항상 단종이 거처하는 쪽을 바라보고 울며 임금을 사모하였다. 단종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뒤 3년상을 입었고 복이 끝날 때까지 관란정에서 기거했으며 복이 끝나 원주로 돌아와 문밖에 나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세조가 특별히 호조참의를 제수하고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 앉으면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고 누워도 반드시 동쪽으로 머리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단종의 묘소가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기개 높고 절제 있는 생활을 했으며 친지 가운데 조정에 벼슬한 자들이 와서 보기를 청하여도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 그는 관부(官府)에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하여 최후에는 주천현(酒泉縣) 산골 속에 은거하다 일생을 마쳤다. 묘소는 지금 원주 남송에 있다.

숙종 25년(1699)에 판부사(判府事) 최석정(崔錫鼎)의 건의에 의해 정려(旌閭)가 세워지고, 1703년 칠봉서원(七峰書院)에 배향되었다. 정조 6년(1782)에 김시습(金時習)·남효온(南孝溫)·성담수(成聃壽)와 함께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원호(元昊)는 두수의 시조를 남기고 있으니, 하나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여 세조가 된 뒤에 벼슬을 버리고 영월에 단종을 먼발치로 따라가 있다가 그곳에서 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주 남송촌에서 은거했을 때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이 두수의 시조는 모두 청빈한 선비의 한결 같은 충절을 엿볼 수 있다.

간밤의 우뒀 여울 솔피 울어 지내여라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저물이 거스려 흐르고저 나도 울어 녀미어라.

위에 시조에 얹힌 이야기로는 영월군 서면 사내평에 석실을 만들고 살 때 매일 음식물과 서신을 표주박에 담아 동강에 띄워 보내면 청령포(淸冷浦) 40리를 역류하여 단종께서 받아 보셨고, 단종이 도로 떠내려 보내면 그가 표주박을 받았다 하니 그의 일편단심이 얼마나 지극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조에서 흐르는 냇물은 단종의 눈물이 흘러온 것이니 만약에 냇물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의 이 슬픈 눈물을 단종께 알리려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紫桑里 五柳村에 陶處事의 몸이 되어  
줄없는 거문고를 소리없이 집었으니  
白鶴이 知音하지는 우측우측 하더라.

이 시조는 그가 도연명의 결백을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도연명의 유유자적하던 고사(故事)를 부러워 한 것은 원주에 은거하면서 거문고의 줄을 끊어 버리고 소리없이 살던 그때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 5) 일산동 석탑재

원주시 일산동 옛 강원감영 터 안의 청운당 앞쪽 잔디밭에 있는 석조물 부재로, 이곳에 옮겨지기 전에 감리교회 앞마당에 보존되었던 유물이다.

이들 석조물은 석탑과 석불의 각 부재로 나뉘는데, 석탑은 기단갑석(한변의 길이 1.2m) 탑신석(한변의 길이 52cm, 높이 53cm) 옥개석(한변의 길이 92cm) 등이며, 석불은 좌상(높이



일산동 석탑재

107cm)과 원형연화대석(직경 91cm) 등인데 본래 어느 절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특히 탑신석은 양우주가 정연하고 사방에는 사천왕상이 두드러지게 양각되었다. 이밖에 기단면석에도 조각이 있으며 방형의 연화대석 1석이 있는 것도 불상대좌이 부재로 보인다.

석탑이나 석불에서 풍기는 조성양식을 보면 모두 고려시대 전반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6) 전천왕사지출토 석탑재

원주시 학성 1동 법웅사 입구의 돌축대에 있는 석탑의 부재이다.

시내 봉산동에 있는 천왕사에서 출토되었다

고 전하나 출토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1971년에 법웅사를 창건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석탑의 부재는 탑신석 1석과 옥개석 2석 뿐이다. 탑신석은 한변의 길이 57cm, 높이 57cm로 양우주가 정연하고 4면에는 1구씩의 사방불을 배치하였다. 사방불은 현재 조각이 희미하나 머리위의 큼직한 옥발과 상호의 각부, 결과부좌한 형태 등이 뚜렷하게 윤곽이 남아 있다.

옥개석은 한변의 길이 85cm, 다른 옥개석은 한변의 길이가 65cm로 하면에 받침이 4단씩이며 상면에는 탑신과임이 각출되어 있다. 사방불과 옥개받침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시대 전반으

로 추정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원주목조에 의하면 “천왕사는 주의 동쪽 2리쯤에 있다. 지금은 폐지되고 사청(射廳)이 되었다.”라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 성종대(成宗代)에 벌써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학봉정 활터를 천왕사지로 비정할 수 있지만, 전하는 말에는 학봉정으로부터 약 500m 동쪽에 위치한 봉산(鳳山) 8부능선 골짜기에 천왕사가 있었다 한다.

구전에 따른 사지는 중앙에 민가에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고 이 우물 곁에서 석탑의 옥신 1기와 옥개석 2매가 출토되었다. 또 국립박물관 유물카드에는 원주 천왕사지에서 출토되었다고 하

는 사리용기 1좌가 있다.

또한 천왕사지로부터 약 30m 지점에 보살입상(유형문화재 제67호) 이 보살입상도 천왕사와 관련된 유물로 추측되고 있다.

## 7) 국형사 진암당부도

국형사의 동쪽 산기슭에 건립되어 있는 진암당 부도는 석종형부도로 현재의 위치가 원위치이다. 현존하는 국형사의 석조물로는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전체 높이 1.74m의 중형부도로 탑신 표면에 「진암당대선사령주탑(晉庵堂大禪師靈珠塔)」이라 새기고 왼쪽에 「승정삼기미사월립(崇禎三己



전천왕사지출토 석탑재

未四月立)」이라 각자되어 있다. 이로써 이 부도가 진암당대사의 묘탑을 알 수 있으며, 건립 연대는 조선 정조 23년(1799)이다.

원형대석 위에 탑신을 안치하였으며 대석과 탑신, 보주형의 상륜에 이르기까지 양련과 복련·고사리문양 등을 가득히 조각하였다. 바로 옆에는 또 하나의 부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직경 62m의 대석만이 남아 있다.

이 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화문으로, 대석 측면에는 상·하에 연꽃이 있고 탑신부와 노반부에도 상·하에 양련과 복련이 가득히 조각되어 있어 조선 후기의 부도로는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진암당 부도는 현재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묘탑의 주인공과 건립 연대도 확실하며, 양식이나 조각수법 등으로 보아도 문화재로 지정될 충분한 조건을 가진 유물이다.

제3기: '洗染堂楚雲大師塔', 石碑形으로 全高 82cm, '乾隆十年乙丑四月日立'

제4기: '行願堂道先塔', 全高 1.24m, 좌우측 아래에 글씨가 있으나 확인 불



국형사 진암당부도

## 8) 구룡사 부도군

원주군 소초면 학곡 2리 1029의 구룡사 경내에 있는 승려들의 묘비이다. 원통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 넓직한 대지가 있고 이곳에 9기의 석조부도가 안치되어 있다. 모두 조선후기의 것으로 석종형 부도인데 소·중형의 규모이다. 9기중 주인공이 명시된 것인 6기이고 건립연대가 명시된 것은 2기 뿐이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살펴

면,  
제1기: □ 檜堂부도, 全高 1.68m

제2기: 無銘부도, 全高 1.54m

능

제5기: '冲虛堂□□大師之塔, 全高 1.33m, 뒷면의 건립연대는 판독 불가능

제6기: 無銘부도, 全高 1.37m

제7기: 無銘부도, 全高 1.5m

제8기: '霜波堂寶寬大師靈珠塔', 石碑形으로 全高 1.07m, '崇禎後三癸巳閏三月日立'

제9기: '海月□明□塔', 全高 1.4m, 탑의 뒷면에 글씨가 있으나 판독 불능

여기에서 제3기의 건립10년 을축은 조선 영조 21년(1745)에 해당되며, 제8기의 승정후삼계사(崇禎後三癸巳)는 조선 영조 49년(1773)이다.

이 2기의 석조부도에 절대연대가 있어 주목되며, 구룡사 부도군은 넓직한 부도밭을 이루고 있어 환경도 좋으며 보존이 양호하다.

## 9) 법천사지 석조물부재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74-2의 법천사지 비전에서 수습된 많은 석물들이 비전 우측의 묘사지(寮舍址)에 보존되고 있다. 여기에는 석탑부재·불상·광배·배례석·연화문대석·용두 기타 조각석 등 다채로운 석조물이 있다.

석탑부재는 옥개석 2매, 탑신 1석, 기단갑석 1매 등인데 탑신에는 양우주가 있고 옥개받침은 4단씩이며, 갑석에는 탑신괴임대가 모각되어 있



구룡사 부도군



법천사지 석조물부재

다.

광배는 전고 1.33m의 보주형이며 중앙에 큼직한 2층의 원광이 있고 주연에는 화염문이 유려하다.

배례석은 1.27m×0.63m로서 상면에 연화좌가 있고 측면에는 안상이 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고려 전반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이곳에 있는 지광국사현묘탑비와 같이 모두 조각이 화려하고 예리하며 다채로워서 고려시대 석조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비전과 더불어 보존은 잘 되고 있으나, 이밖에도 법천사지에는 많은 석조물이 산재해 있어 이들을 수습하여 보존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0)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진공대사탑비의 비신은 화강암 재질의 석비로서 고려 태조인 왕건이 친찬(親撰)하고 비문의 글씨는 당 태종의 글자를 집각한 저명한 정석(貞石)으로서 일찍이 세인이 주의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이 탑비에 대한 문헌 및 저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사』세가 태조 23년조에 “秋七月王師忠湛死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親製碑文”이라 하여, 후진(後晉) 천복(天福) 5년(940)에 진공

대사가 시적(示寂)하고 그 해에 탑비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진공대사탑비가 파손되어 알 수 없던 비의 건립연대를 밝혀 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다음으로 이제현의 『역옹패설』 후집 1에는 “北原原州興法寺碑我太祖親製其文而崔光胤集唐太宗皇帝書模刻于石辭義雄深偉麗如玄圭赤鳥 揖讓廊廟而字大小眞行相間鸞漂鳳泊氣吞象外眞天下之寶也(北原 원주 흥법사 비는 고려 태조가 친히 그 글을 짓고 최광운에게 명하여 당 태종의 글자를 모아 돌에 본 떠 새겼다. 말의 뜻이 웅장하고 깊으며 위대하고 고와서 검은 홀과 붉은 신을 신고 낭묘에 읊양하는 것 같고 글자는 큰 글자와 작은 글자가 서로 잘 조화되어 섞여 있어 난풍이 일렁이듯 봉황이 깃들인듯 기운이 우주를 삼켰으니 진실로 천하의 보물이다.”라고 하여, 진공대사탑비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 성종 11년(1480)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권46 원주목 불우조에는 “興法寺在建登山寺有碑高麗太祖親製其文命崔光胤集唐太宗書模刻李齊賢曰辭義雄深偉麗如玄圭赤鳥揖讓廊廟而字大小眞行相間鸞漂鳳泊氣吞象外眞天下之寶也”라 하여 앞의 『고려사』와 『역옹패설』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다. 숙종조에 낭선군 이우가 편집한 『대동금석서』에 보면 “興法碑：在原州建登山興法寺眞空大師塔碑高麗太祖文崔光胤集唐文皇字碑陰無名氏書石晉高祖天福五年庚子立麗太祖二十三年也”라고 실고 있다.

진공대사탑비의 파손시기에 대한 정확한 견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의 몇몇 사료를 통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興法寺在建登山寺有碑高麗太祖親製其文命崔光胤集唐太宗書模刻…… 下略(『東國輿地勝覽』 卷 46 原州牧 佛宇條)

나) 眞空大師碑…… 中略…… 後移置州廨有

一守苦求揚者紛至投擲構腰中仍折破今但存二片今在原州監營(『東國金石』)

다) 按興法寺在原州牧西三十五里靈鳳山丙辰之夏余訪碑關東至興法寺寺久廢其趾今爲陶川書院佛像經幢尚在階砌榛莽之間遍索龜趺螭頭矮然獨立剔去苔蘚篆額宛然可見…… 中略…… 豐草之際終不可覓其碑之所在書院老吏爲余言此碑壬辰之變倭寇車載以東今原州存殘石二片云翌日至原州牧治見斷石二片在鶴城館之東又覓一小片爲居民浣衣之石已多磨(『三韓金石錄』)

이상의 사료에 의하면, 사료 가)에서는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성종 11년(1480) 경에는 흥법사 뿐만 아니라 진공대사탑비도 유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나)는 서유구(徐有榘)가 당시에 인용하였던 『원주읍지(原州邑誌)』의 내용으로, 진공대사탑비(眞空大師塔碑)가 원주의 관청으로 이치되었고, 한 관리가 탐본하는 과정에서 비가 넘어지자 이를 밭 도랑에 투척하면서 파손되어 이편(二片)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史料) 다)는 오경석(吳慶錫)이 철종 7년(1856) 여름에 직접 흥법사를 탐방하고 기록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① 이미 흥법사는 오래전에 폐하였고, ② 흥법사지는 도천서원이 되었으며, ③ 불상과 석경(石經)은 섬돌과 풀숲의 사이에 있었고, 두루 찾으니 거부와 이수가 홀로 서 있고 이끼를 제거하여 전액을 완전히 볼 수 있었으며, ④ 도천서원의 관리가 말하기를 ‘비는 임진왜란시에 왜구가 옮겨 원주에 잔석 이편이 있다’고 하였으며, ⑤ 원주 학성관의 동에서 단석 이편을 보고 또 많은 거민이 옷을 빠는 돌로 사용한 작은 일편을 보았는데 이미 마멸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진공대사탑비의 파손시기를 추측하면, 진공대사탑비는 임진왜란 당시 왜구에 의

해 반출되었고 이후 비신만 원주의 관청으로 이전되었다가 『원주읍지』가 편찬되기 이전에 한 관리가 탐본하는 과정에서 비가 쓰러지자, 이를 밭도랑에 투척하면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진공대사에 관한 사료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진공대사탑비 이상의 것은 없으나, 애석하게도 이 비는 파손되어 진공대사와 왕건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또 탐명도 어떻게 받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불완전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비문의 번역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高麗國 原州 靈鳳山 興法寺 王師  
眞空大師의 塔 …… (마멸)」

臣 崔光胤은 敎旨를 받들어 太宗文  
皇帝의 글씨를 集字합니다.

듣건데 깊은 말로 교리를 세워 비로서 취령(鷲嶺)의 설법을 열었고 현묘한 뜻으로 마음을 전하여 마침내 계산(鷄山)의 선정(禪定)에 들어 갔다고 한다. 비록 따로 법안(法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면 현정(玄精)을 함께 받아, 경희(慶喜)는 수제자가 되었고 화수(和修)는 그 계통을 이었으며, 마친매 마명(馬鳴)의 뒤를 이어 묘법(妙法)을 삼승(三乘)에다 전하고 용수(龍樹)는 그 훌륭한 교리를 선양하여 그 (…… 마멸 ……) 드러냈다. 상(相)은 상(相)을 떠남이 (…… 마멸 ……) 자신은 자신이 아니다. 내려 (…… 마멸 ……) 처음에 원각(圓覺)이 동으로 량(梁)나라에 들어 왔다는 것을 들었고, 비로서 대홍(大弘)이 북으로 위나라에 노닐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리하여 스승 제자가 의기가 투합하여 넘겨 준 것이 일색이었고 초조(初祖)의 법을 서로 이어 마음

의 등불이 끊이지지 않았으니, 이는 한송이 꽃이 홀연히 피어난 뒤에 여섯 잎이 거둬 피어난 것이다. 근대에는 강서(江西)로부터 해동에 흘러 들어왔고, 또 봉림(鳳林)이 장경(章敬)에게서 선종을 전수받았으며, 그의 증손(曾孫)인 우리 대사(大師)는 우리의 불도를 다시 선양한 사람이다.

대사의 법휘(法諱)는 충담(忠湛)이고 속성은 김씨(金氏)인데, 그 선대는 계림(鷄林)의 대족(大族)이고 토군(兔郡)의 큰 지손(支孫)으로 섬에 (…… 마멸 ……) 하여 따로 번성하고 상진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비신

(桑津)에 의탁하여 파를 달리하였다. 윗대의 선조는 많이 (…… 마멸 ……) 도잠(陶潛)을 (…… 마멸 ……) 하여 왕후를 섬기지 않았으니 가후(賈誼)를 바라 어찌 녹위(祿位)를 구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의 도를 즐겨 일찍이 장자(莊子)와 열자(列子)의 글을 다루었고, 숨은 인재들과 시를 읊조리며 저자와 조정의 칭송을 피하였다. 어머니가 (…… 마멸 ……) 어진 아들 (…… 마멸 ……) 하니 어찌 성선을 닦을 마음이 없겠는가. 이 영기(靈奇)를 감통하고 법운(法胤)을 남기기를 기도하고 함통(咸通) 10년(869) 정월 1일에 대사를 탄생하였다.

대사는 태어나자 남다른 상을 지녔고 어릴 때 실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 마멸 ……) 성령이 월등하고 신오(神悟)가 뛰어나 괴시(槐市)에서 경서도 횡행하고 행원(杏園)에서 붓대를 달렸다. 양친이 일찍이 관상 보는 사람을 불러 상을 보게 하니, 하는 말이 감라(甘羅)의 나이가 되면 진취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라고 나중에 賈誼의 (…… 마멸 ……)에 이르면 (…… 마멸 ……) 부모를 여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장순선사(長純禪師)가 있었다. 그를 인도하는 스승으로 삼고 세상을 스쳐가는 인연을 닦았으니 그는 죽은 아버지가 사귀던 불가의 벗이었다. 대사는 그 장로를 따라 (…… 마멸 ……) 속세를 (…… 마멸 ……)하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마루에 올라 으스스한 곳을 보고 방에 들어가 깊은 곳을 살피게 하니, 달리는 발이 빨라 나중에 출발하였으나 먼저 이르고 깨닫는 가지는 늘어져 앞서 피어나고 늦게 맺어졌다. 그래서 선림에 몸을 담고 (…… 마멸 ……)에 노닐면서 (…… 마멸 ……) 인도가 거듭 빛남을 알았고 마침내 서로 전수하기에 이르러 능가(楞伽)가 다시 열림을 엿보았다. 이리하여 龍紀 원년(889)에 무주 영신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윽고 그 상부를 익히고 비니(毗尼)를 정밀

히 탐구하여 (…… 마멸 ……) 도를 논의하였다. 배우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가는 물줄기도 끊음이 없으면 돌을 뚫고 마음을 함께 하면 쇠도 끊는다. 열심히 갈고 닦는다면 병 속의 물을 쏟듯 쉽게 되는 것이니, 모두가 조금씩 쌓아 가길 마지 않고 종종걸음을 계속함을 따라 얼마 후에는 배움바다의 꿈을 이루고 길이 (…… 마멸 ……) 나아가 (…… 마멸 ……) 석자를 (…… 마멸 ……)하고 선승을 욕되게 한다. 여기는 뼈가 뒹구는 터이고 시체가 널리 있는 곳이다. 다른 산은 조용하니 어찌 이 땅을 피할 곳이 없겠는가. 이 땅은 위태로운 곳이니 끝내 산에 있을 계획을 말아야 한다. (…… 마멸 ……) 중국 (…… 마멸 ……) 함께 싣고 가서 그곳에 이르렀다. 이때 먼저 雲蓋禪宇에 올라가 경건하게 淨圓大師에게 예를 올렸다. 대사는 雲壑 속에 노닐고 石霜의 심인을 받았는데 (…… 마멸 ……) 대사가 멀리 떠난 것을 알고 (…… 마멸 ……)

(…… 마멸 ……) 남쪽을 목표로 삼아 멀리 구름처럼 넓은 날개를 치고 豫章이 위를 향하여 높이 해를 건드릴 가지를 휘저었다.大師는 말하기를 「너는 이 단계에 이르려면 미리 그 喬木으로 옮기는 뜻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라」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고 (…… 마멸 ……) 하였다. 하동에서 (…… 마멸 ……)하고 紫巖에서 신문을 參謁하였기 때문에 능히 聖典을 엿보느라 禹穴의 주변에서 오랜동안 노닐고 비로소 靈踵을 보기 위해 燕臺 가에 이르렀다가 天祐 15년(918) 6월에 (…… 마멸 ……) 도착하였다. 함께 질문하면서 경하하여 서로 交誼가 깊었다. 수개월 동안 禪理를 논하고 일년간 불법을 물었는데 한없이 말을 하고 계속 입을 놀리니 논리가 정연하고 어법이 (…… 마멸 ……) 알았다. 이 때에 헤아리기를 양쪽의 마음 (…… 마멸 ……) (…… 마멸 ……) 전쟁의 광경을 수심스레 보았다. 그래서 홀연히 김해를 하직하고 멀리 중국을 떠났던

것인데 오랜동안 객지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본국으로 들어오니, 摩勒이 다시 생기가 돌 뿐만 아니라 아울러 優曇이 한번 나타난 것이었다. 내전으로 받들어 영접하였다가 곧 (…… 마멸……) 석가의 설을 내뱉을 때마다 경탄한 나머지 거듭 거듭 자리를 옮기고 공손하게 제자의 예의를 차려 말을 하나 하나 기록하면서 왕사의 예로 정의를 맺었다. 다음날 자리를 옮기기를 청하여 (…… 마멸……) 永元 (…… 마멸……) 대사는 멀리 임금의 사신을 따라 두번째 서울에 당도하였다. 그리하여 玉堂을 특별히 단장하고 繩榻에 오르게 한 다음 대사에서 「과인은 젊을 적에 무력에 전념하느라 학문을 정밀히 하지 못하여 선왕의 법을 알지 못하니 어찌 (…… 마멸……) 存亡의 뜻이겠습니까. 반가운 점은 漢 明帝의 꿈을 꾸지 않고 서울에 모셔온 일입니다. 세종이 摩騰을 만나고 梁 武帝가 寶誌의 만난 일도 이보다 더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생생세세(生生世世)토록 길이 香火의 공을 닦고 자자손손 끝까지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흥법선원(興法禪院)을 일으켜 (…… 마멸……) 주지하게 하니 吉祥의 땅임을 (…… 마멸……) 과거의 아름다움을 논하니 다시 복을 맞는 터임을 알고, 그곳에서 현세를 마칠 뜻을 두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곳에서 禪局을 높이 열자, 오는 자가 구름 같고 배우는 사람이 안개와 같았다. 꾸준히 琉璃 (…… 마멸……) 나라에 (…… 마멸……) 興法寺의 설법을 듣지 (…… 마멸……) 大師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는 곳곳에 精舍를 마련하고 그들이 푸대접을 하였는데, 하루 종일 전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고 하룻밤도 절대로 머물러 자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뜻하셨으리요. 대사는 본디 병이 없어 충분히 (…… 마멸……) 하여 座品과 달랐는데 (…… 마멸……) 5년(940) 7월 18일 아침에 문인에게

이르기를 「만법은 다 공한 것인데 나는 떠난다. 한 마음이 근본이니 너희는 힘쓰도록 하라」하고 평상시와 다름 없는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서 (…… 마멸……) 하니 俗年은 72세이고 승(…… 마멸

그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졌으며 구름이 수심에 쌓이고 해도 서글퍼 하였다. (…… 마멸……) 사방에 슬픔이 가득하여 천인은 학통이 끊긴 슬픔이 더 하고 어찌 곳곳에 애통함이 통할 뿐이겠는가. 土庶(중생)는 스승을 잃은 슬픔에 울었다. 과인은 갑자기 遷化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층 더 애앓고 큰 공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였다. 大師는 특히 宗林의 禪伯이며 말세의 뛰어난 인물로 (…… 마멸……) 만수의 오랜 수명을 (…… 마멸……) 많은 사람의 경앙하는 마음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대들보는 비록 부러졌다고 해도 집은 수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처음에는 깊은 물에 고기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황폐한 숲에 새들이 흠어지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겠다. 바라는 것이란 하루 빨리 의식을 밝히고 예를 바로 하는 일이다. 마땅히 (…… 마멸……) 眞空大師라 贈諡하고 塔號는 (…… 마멸……) 탑이라 하였다. (銘文 생략)

#### 靈鳳山 故 王師 眞空大師 碑陰

들으니, 탕왕은 夏나라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그물을 풀어준 인자함을 베풀었으며 武帝는 (…… 마멸……) 서역의 가르침을 (…… 마멸……) 하고 친히 寶誌를 엿보아 東夏의 교화를 말하였다. 이리하여 조정 신하를 전부 모이게 하고 거마를 갖추어 받들어 맞이하는데 스님은 마친 동원에 나가 노닐고 있었다. 가마에 태우고 함께 (…… 마멸……) 우리나라는 二韓과 서로 버티고 서 있어 피차간에 진실 여부를 모르다가 한 나

라가 응비하여 홀연히 전쟁의 우렁리 가려졌다.  
성덕을 많이 입고 널리 (…… 마멸 ……)

대사는 表文으로 아뢰기를 「전하는 정기가 四乳와 같고 눈은 雙瞳이 빛납니다. 이 때문에 梨察은 元皇의 좌석에 있었고 圖澄은 趙主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 마멸 ……) 소승은 오가는 것을 꺼리고 뜻은 山水에 있습니다. 무성한 숲속의 山家は 도인이 머무는 곳이며 궁벽하고 물결치는 바닷가는 군자가 마음이 편안한 곳입니다. 앞드려 비오니 이 처지를 가련히 여기시어 (…… 마멸 ……) 하니, 임금의 답하기를 「대사께서 이제 樂土를 마다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고자 한 두루마리의 글월을 높이 내려 구중 대궐로 보내 왔으나 과인과 대사와는 정이 膠漆보다 깊고 의리는 (…… 마멸 ……) 동국을 교화시켰오. 맹서하오니 그 興法禪院은 비록 오래된 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지역에 있으나 화상생전에 길이 거처할 곳으로 하시오」 하였다.

대사의 남아 있는 제자 (…… 마멸 ……) 고을 관원.]」

진공대사탑비는 고려 왕건이 비문을 짓고, 문신 최광윤(崔光胤)이 당나라 태종의 글씨를 집자한 것으로 유명하다. 글씨는 2~4cm의 행서로 신라 말엽에 이미 당 태종의 글씨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을 입증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 비의 뒷면에는 대사가 태조에게 올린 표가 해서로 새겨져 있다. 거의 모든 글씨를 당 태종의 글씨에게 집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구성미는 찾아볼 수가 없으나, 집자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서미적(書美的) 사고를 엿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서풍은 역시 당 태종이 좋아한 왕희지의 서풍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11) 상원사중수비

상원사중수비는 원주시 무실동 산 123 대성학원 향토관에 보관되고 있으나, 원래는 치악산 상원사에 있었다.

상원사중수비는 보통의 비석(碑石)과는 달리 나무로 만든 보기 드문 사적비이다. 상단에는 '상원사적'이나 해서로 크게 썼고, 우측 1행에 '雉岳山上院寺重修記'라고 표기되어 있다.

전면은 12行, 1行 40字이다. 후면은 상원사(上院寺)가 중건될 때 시주한 사람의 이름이 새



상원사 중수비

져져 있다. 이 목비의 글은 이인상(李寅相)이 지었고, 이태회(李泰會)가 각자하였다. 상원사 목비는 1932년에 건립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雉岳山上院寺重修記

山之高水之麗甲於天下者我朝鮮一而已故中華之人至今稱高麗云者以是之故也概嘗論其大略則曰北有金剛五臺之雄偉南毓方丈頭流之壯觀也鶴城之東有山治如龍虎之蟠踞者曰雉岳即五百年全盛時自 朝家特定福國佑世之東岳壇每年月日使守令方伯定祭官享祀之所也山之頂有上院寺即新羅敬順王師无着祖師之所創也山之勝寺之古自有則人之述備矣不必更贅而□□□之里亦關時數自初創至今凡七番重修者因山之英故高明禪德洗鉢于斯遂毀修葺使千古祖□□跡繼連不荒干茲亦豈非大雄氏大神通之化跡歟每於重建之時明現靈異之跡而今於竺念禪師之七建也亦有廷塔雷轟處奉出一位純金佛型其神化暗助者明矣噫因緣禍福自有其時竺念禪師之來住是寺者亦係杓緣會也適因寺之弊而以金像異兆得認求募重建蘭若煥然更新使同參檀信種佛種子於無量念師可謂如來使人也請余記之余本拙於文詞然深感師之信願強構荒辭記其顛末列錄檀信之芳啣于左以著千載不朽之功績云爾佛記二千九百六十年壬申八月 日蒼岡居士李寅相識

산은 높고 물은 맑아 천하에 제일이다. 우리 조선에서 제일인 고로 중국사람들이 지금도 고려(高麗)라고 칭하는 것이 이러한 까닭이다. 일찍이 그 대략을 논할 때 즉 북으로는 금강산과 오대산의 웅위함이 있고 남으로는 방장과 두류의 방관이 있다. 학생의 동쪽에 흡사 용과 호랑이가 틀고 앉은 모습과 같은 산이 있어 치악이라 하니 오백년 전성기 때에 조정에서 특별히 북국우세로

동악단에 매년 월일에 수령·방백으로 하여금 제관을 정하여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산의 정상에 상원사가 있으니 즉 신라 경순왕의 왕사인 무착조사가 창건하였다. 산의 명승과 절의 오래됨이 이로부터이니 즉 사람들이 말하고 이론 것을 다시 군더더기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 (… 마멸 …) 이런 관계로 처음 창건된 이래로 자주 일곱번을 중수하였다.

산의 영험으로 인연하여 고명선덕이 여기에 머물면서 이에 따라 무너진 것을 고치고 수습하여 천고에 조사의 자취는 계속 연이어져 황폐되지 아니하니 이것 또한 부처의 큰 신통스러운 조화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매양 중건할 때에 밝은 신령스러움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축염선사의 일곱번째 세움에도 역시 뜰에 있는 탑의 뇌평이 부딪친 곳에 순금 부처 1위를 받들고 나오니 그 신이 한 조화의 도움이 이와같이 명명하다.

아, 인연화복이 축염선사가 주석한 이때에 있었고 마침 절이 폐하고 이와같은 금불상의 신이 한 징조로 인하여 많은 뜻있는 이를 모아 중건에 모을 수 있었다. 이 아름답고 빛나는 경신에 동참하는 화주들의 보시로 하여금 부처님의 인연을 심고 여래가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축염선사를 돕게 하였다. 나에게 기문을 청하나 나는 본시 문장에 능하지 못함에도 깊이 선사의 믿음과 발원에 느낀바가 있어 거친 글을 엮어 그 전말을 기록한다.

화주의 보시와 그 꽃다운 이름을 원편엔 열록하니 천년에 썩지 않을 공적이다. 불기 2960년 임신 8월 일에 창강거사 이인상이 기록하다.

## 12) 국형사 동악제단

원주시 행구동 국형사 옆에 있는 동악단은 전하는 말에 조선초 정종 때 공주의 신병을 완치한 곳이 바로 이곳 동악제단으로 당시 100일 기도를



국형사 동악제단

드려 동악산 신령의 가호에 의한 것이라 전해진다.

현재의 건물은 근년에 신축한 것이다. 본래는 조선초기 정종 때 100일 기도를 하여 동악산(東岳山) 신령의 가호로 공주(公主)의 병을 완치하였다 하여 왕명으로 동악단의 제단이 설치되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이곳에서 봄, 가을로 호국대제를 올리고 있다.

토단만이 남이 있던 곳에 건물을 지어 「동악

단」을 설치하였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집이다. 좌·우에 방풍판(防風板)이 있고 새로 지은 집이어서 단정하다. 주변은 돌담으로 에워싸 신단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제전의 의식과 산악신앙·토속신앙 등 여러가지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유적이다.

동악단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조선 정종의 둘째 딸 희희공주가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가 되자 이곳 보문암에 와서 낭응대사(郎應大

師)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100일 기도를 한 결과 동악산 신령의 힘을 얻어 완치함으로 환궁했다 한다. 이에 감동한 정종임금은 보문암을 크게 증축해서 국형사라 부르게 했다.

또 왕명으로 이곳에 동악단을 쌓게 한 연후 봄과 가을을 택하여 호국대제를 봉행케 하였다고 한다.

### 13) 현충탑

원주시 태장 1동에 있는 현충탑은 6.25 당시의 고장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전투에 임했다가 순국한 군인, 경찰, 청년 등 순국충혼 680위를 위로함과 앞으로 나라에 몸바치는 영령을 위해 세워진 탑이다.

1966년에 애국애족을 위한 현충탑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당시 학성동의 심기연(沈基淵)씨가 대지 1만여평을 희사하여 이해 6월 6일에 제막과 동시에 전사자 680위의 영령을 봉안하고 유족을 위로하게 되었다.

이 탑은 지대석 위에 직6각형으로 돌축대를 쌓았으며 꼭대기에는 양쪽 귀만 높이고 가운데는 움푹 패이게 모양을 만들어 세워 놓았다. 높이는 5m이다. 또한 현충탑을 건립할 때 6.25를 상징하기 위해 길 밑에서부터 지대석까지 크기는 6개의 계단으로 구분하고 이 안에 250개의 층계를 만들어 놓아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탑비에는 이은상의 글과 김기승의 글씨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곳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복원경 옛 땅이라 치악산 정기로 태어난 이 고장 젊은 이들은 남달리 가슴에 의기와 정열을 품고 자랐다. 1950년 6.25동란에 그들은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물불 속으로 뛰어 들었고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총칼 앞에 달려 들었다. 또 그날 이 지역 전투에서는 다른 고을 출신들도 같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탑을 세워 군, 경, 청년들 그날의 순국충혼 680위를 위로함과 아울러 앞으로 나라에 몸을 바치는 정의의 영령들을 다 함께 모시려는 것이니 그 뜻과 이름은 세계에 이고장 강산과 더불어 같이 갈 것이다.”

현충탑이 세워진 곳에는 지방민의 현수로 각종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시민의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매년 현충일에도 민, 관, 군과 유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영현을 위로하고 있다.



현충탑

편찬위원장 : 박창원(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장)  
편찬위원 : 박경수(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 홍보팀장)  
집필진 : 김호길(반강고전연구소 소장)  
박문성(반강고전연구소 부소장)  
채희승(반강고전연구소 서법학 연구실장)  
김성찬(반강고전연구소 금석학 연구실장)  
김건호(반강고전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손기창(반강고전연구소 연구위원)  
경수현(반강고전연구소 연구위원)  
자문위원 : 김충렬(고려 대학교 대학원장)  
원영환(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동전화 이1  
이2 내고장 의미찾기/ 강원  
남한강 천리물길 따라서

---

발행일자 : 1995년 6월 일  
집필인 : 김 호 길  
발행인 : 박 창 원  
발행처 :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  
제 작 : 대산기획

---

〈비매품〉

본책의 판권은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가 소유하며  
책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십시오.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4-5  
TEL : (0371)732-8576, 455-5649  
FAX : (0371)732-8383